

2013년 전략과제 본보고서

내포지역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지리·역사문화적 측면에서 -

2013. 12. 10

부 서 : 문화·디자인연구부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화와 지방화는 지역간, 도시간 경쟁을 심화시켜며 지역과 도시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은 역설적으로 지역의 지역다움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였고 지역과 도시차원에서 그 지역과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서해안권의 개발과 광역적 차원에서 충청남도 서부 내포지역의 개발과 충청도청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은 충청남도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방향설정에 있어 내포지역의 내포다움을 찾고 이를 창의적으로 계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내포지역에 대한 지리·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연구를 통하여 내포정체성 요소를 밝히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연구결과가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에 방향에 바람직한 자료 및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2. 내포와 정체성의 개념

1) 내포(內浦, firth)란

내포라는 의미는 본래 ‘바다나 호수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부분’을 말하는 일반명사로의 뜻이지만, 고려 말~조선 초기 이후부터는 특정한 지역인 충남의 서북부 지역을 명명하여 쓰이게 됨에 따라 일반명사가 고유명사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포(內浦)란 ‘바다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충청남도의 서부지역’을 의미한다.

2) 정체성의 개념과 정체성 형성의 의미

정체성(正體性)은 ‘인간환경 속에 존재하는 개체 또는 집단이 참된 본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의미하며, 인간을 정체성의 주체로 보는 경우는 인간정체성이고 지역 또는 도시를 주체로 보는 경우는 지역정체성, 도시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은 다른 것과 통합되는 상관적 공유성(동일성:sameness)과 다른 것과 구별되는 배타적 고유성(개별성) 등 두 가지 속성을 모두 포괄한다.

〈표 2-1〉 정체성의 개념적 구분과 의미

구 분			의 미
동일성 (그 지역은 그 지역답다)	연속성(지속성)		• 그 지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
	동 일 화	투입에 의한 동일화	•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진다
		정합에 의한 동일화	•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
개별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 와는 다르다)	특이성(차별성)		•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우 월 성	공동요소를 비교한 우월성(수월성)	•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도 있는 요소들과 비교하여 더 뛰어나다
		고유요소 존재에 의한 우월성(고유성)	•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요소가 있어 더 뛰어나다

자료 : 황기원, 1995,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회복과 조정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한국조경학회, p.5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

지역·도시차원에서 정체성을 찾고 형성한다는 의미는 ①지역·도시가 가지고 있는 수월하고 차별화된 특성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②전략을 마련하며 ③실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내포의 지리적 정체성

지리적 측면에서 내포의 영역, 자연지리적, 인문지리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내포의 영역은 가야산 주변의 십여 개 고을(擇里志)-지금의 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전역과 아산시(선장면, 영인면 일대) 및 보령시(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일부 지역을 의미한다. 둘째 자연지리적 특성은 ①차령산지(금북정맥)가 내포지역의 경계 역할을 하며, ②가야산을

중심으로 하천이 분기하며 서해로 유입되며 만(灣)을 형성하고, 차령산지에서 발원하는 무한천과 오서산 및 가야산에서 발원하는 삼교천이 가로지르는 예당평야는 편마암 산지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영양염을 바탕으로 ③비옥한 토지가 발달하여 한양 사대부들의 근거지가 되는 생산 기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①수로가 중심이었던 조선시대 내포의 포구는 경기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내포는 문화적으로 한성·경기와 연관성이 큰 문화를 형성하였다. 한성사대부의 경제적 근거지였으며 경기도의 성호학파의 영향권에 들었고 한양·경기도와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초기 천주교 전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고, ②방언, 민요, 시조 등 문화요소들이 경기와 호남의 중간 성격을 띠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지리적 측면에서 내포정체성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확대되어 왔으며, 중국과 근접성, 한성·경기의 연결성 등으로 **개방성과 다양성**, 문화적 접이지역으로서 문화적인 복합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4. 내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내포의 영역, 역사문화적 인물, 장소, 민속 등을 연구한 결과, **첫째** 내포의 영역 시대에 따라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가야산과 삼교천,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범역은 내포 지역의 중심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내포의 역사적 인물로서는 승려, 성리학자, 실학자, 천주교 선교자,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하였다.

유 형	대표적 인물	특 징
① 승려	혜현, 도침, 낭혜, 탄문	고대 불교의 수용
② 성리학자	백이정, 이곡·이색 부자, 이개, 이자, 이지함, 서기, 홍가신, 한원진, 이간 등	초기 성리학 성립과 발전
③ 실학자	성호가학, 김정희	선진문물의 수용
④ 천주교	이존창, 김대건, 최양업 등	천주교 수용의 선구
⑤ 근대 독립운동가	김복한, 이남규, 한용운, 김좌진, 윤봉길, 문종구 등	충절인물
⑥ 기타 명현	복지겸, 박술희, 안견, 이순신, 정순왕후, 이상재 등	

셋째 장소적 명소로서는 서해의 갯벌과 포구, 조운로와 조창, 관방유적, 불교 및 천주교와 관련된 유적지,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유적이 대표적인 장소적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유 형	특 징
① 갯벌과 포구	전통시대 수로교통의 요지, 중국 선진문물 수용의 창구, 해만간척의 역사와 방조제 축조
② 조운로와 조창	전통시대 삼남지역과 왕도의 연결, 중앙재정의 근간, 운하 굴착
③ 관방유적	해안을 통한 외적 침입의 보루, 지방행정의 중심지
④ 종교유적	불교와 천주교, 마애삼존불의 전통, 가야산의 불교유적, 천주교 순교지
⑤ 역사적 인물 유적	생가와 생가지, 활동지역

넷째 민속적 특징은 ① 자수성가를 요구했던 분가와 상속의 관행, ② 여러 고을을 연합하는 상인조직, 내포 보부상의 전통, ③ 주민들의 심성이 반영된 내포제 등이 대표적인 요소로 도출되었다.

유 형	관할 지역	비고
① 예덕상무사	예산과 덕산 및 면천, 당진	
② 원흥주육군상무사	홍성·광천·보령·청양·대흥·결성 등 6개 군현	
③ 저산팔읍상무사	정산·부여·홍산·임천·한산·서천·비인·남포 등 8개 군현	

내포의 지리적, 역사문화적 특징요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방과 선진, 다양함 그리고 민중문화가 있는 곳으로서 ① 서해로 열린 문화 특구, ②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 ③ 한국사의 새벽을 연 내포지성사, ④내포의 독특한 민속과 생활문화가 온전한 곳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 내포 정체성과 향후 추진과제

1) 내포 정체성, 그 요소와 가치

내포지역의 독특한 문화사는 ‘새벽문화’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역사상에서 몇 가지 특이하고 커다란 궤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내포의 지성사적 전통은 금강유역의 유교문화와 그 경향이 다르다. 내포문화는 ‘열린 출구, 관문’으로서 새로운 변화에 매우 빠르게 대처한 **개방과 선진,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내포의 지리적, 역사문화적 특징요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방과 선진, 다양함 그리고 민중문화가 있는 곳으로서 ①대외적으로 바닷길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였으며, ②조선후기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사의 새벽을 연 내포지성사가 있으며, ③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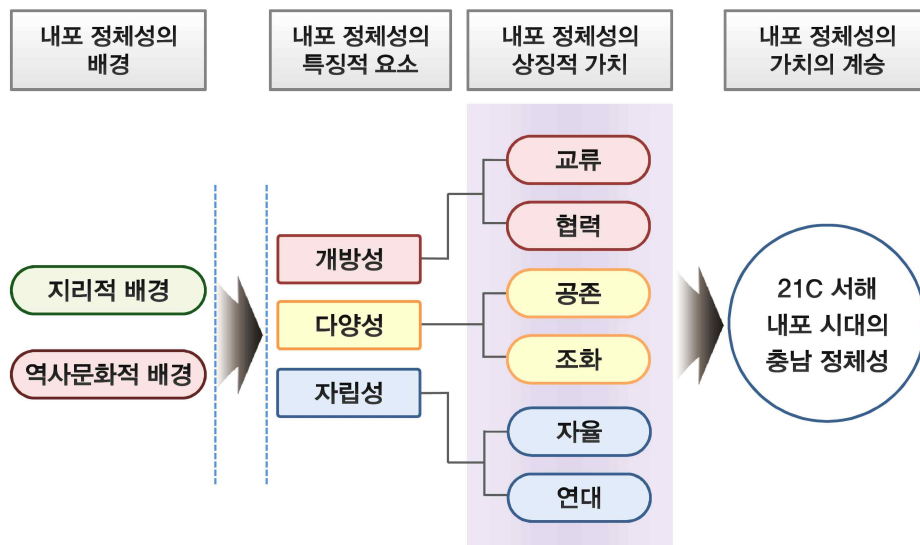
과 간척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독특한 민속과 생활문화가 온전한 곳으로서, ④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포지역 내에서의 역사문화적인 사실과 특징을 바탕으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의 계승과 발현이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는 ①개방성, ②다양성, ③자립성을 도출하였으며, 상징적 가치로서는 교류와 협력, 공존과 조화, 자율과 연대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요약-표〉 내포의 지리·역사문화적 특징과 정체성 요소

내포의 지리·역사문화적 특징	내포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요소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 : 고대 불교문화의 전래, 안흥항과 당진항의 발달 등	항, 포구의 발달 (긍정적 측면의 발달)	개방성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잦은 외국세력의 침투 : 여말선초 왜구의 출몰, 조선후기 이양선의 출몰 등	관방시설의 구축 (부정적 측면의 극복)	
조선후기 개방적 분위기 : 화담학, 퇴계학, 율곡학의 공존 / 인물성 동이논쟁 / 실학의 발달 / 의병과 동학 / 천주교 등	다양한 문화의 공존 (긍정적 측면의 계승)	다양성
이념간의 갈등 : 성리학적 논쟁 / 천주교 박해	문화적 배타 (부정적 측면의 교훈)	
개간과 간척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자립 : 갯벌과 간척, 어림의 이익과 상업의 발달, 농업의 발달 등	스스로의 삶의 개척 (긍정적 측면의 계승)	자립성
독특한 생활민속문화 : 내포제 시조와 결성 농악, 기지시 줄다리기, 황도 붕기풍어제와 서해 어로 민속 등		

〈요약-그림〉 내포 정체성 요소와 21세기 내포시대 충남 정체성의 계승



이러한 내포 정체성의 특징적 요소와 가치는 21세기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문명창조에 부합될 뿐 아니라 내포시대 충남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약-표〉 내포 정체성의 특징요소, 상징가치와 의미

특징요소	상징가치	상징가치의 의미	비고
개방성	교류 (Exchange)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	사전적 의미
	협력 (Cooperation)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사전적 의미
다양성	공존 (Coexistence)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사전적 의미
	조화 (Harmony)	서로 잘 어울림	사전적 의미
자립성	자율 (Autonomy)	스스로의 의지로 객관적인 법칙을 세워 이에 따름	사전적 의미
	연대 (Solidarity)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사전적 의미

2) 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포 정체성을 바탕으로 충청남도내 백제고도문화권과 함께 내포문화권은 충남을 견인하는 두 바퀴,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포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가치적인 경쟁력을 블루오션적인 측면에서 홍보하고 전략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내포 정체성 강화와 내포 정체성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여야 한다. 내포 정체성을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발굴된 내포 정체성 요소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개를 통해 내포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충남도민들이 내포 정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함께 지역별 내용별로 단계적으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충청남도, 시·군 비전 및 전략계획에 내포 정체성 요소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소프트적 측면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을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를 시·군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포 정체성을 계승하는 물리적인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충남의 정체성

정립한다. 역사적인 정체성은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계승되고 창조적으로 발현될 때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포 정체성의 상징가치인 교류와 협력, 공존과 조화, 자율과 연대라는 가치는 창조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활성화로 연계하는 것은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고 형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포신도시 조성에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도입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내포 정체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원 발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는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되었다. 저변에 흐르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체험하는 많은 요소들은 발굴이 절실하다. 그리고 관련 자료의 고증과 의미 등에 대한 조사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제1장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연구의 구성 및 추진과정	6
 제2장 이론적 고찰	8
1. 내포, 지리와 역사문화에 대한 개념	8
1) 내포(內浦, firth)	8
2) 지리(地理, Geography)	9
3) 역사문화(歷史文化, History and Culture)	10
2.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속성	12
1) 정체성의 개념	12
2) 정체성 개념의 비판적 검토	14
3. 지리 및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정체성의 형성 과정	16
1) 지역정체성의 형성	16
2) 지역정체성 형성 개념의 적용	18
3) 지역정체성 형성 과정	21

제3장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24

1. 지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24
1) 지역정체성 논의를 위한 고려 요소	24
2) 지리적 정체성의 형성	29
2.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의 구성요소와 특징	30
1) 영역적 형성의 역사적 과정	30
2) 상징적 형상의 형성	44
3. 내포의 지리적 정체성	60
1) 영역 형성	60
2) 상징 형성	61
3) 사회문화체계 형성과 지역정체성의 구성	63
4) 진행 중인 사회문화체계 형성 과정	63

제4장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의 정체성 65

1.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65
2.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의 정체성 구성요소와 특징	67
1) 역사적 변천을 통해본 내포의 지역범주	67
2) 내포가 배출한 대표적 역사인물	69
3) 내포의 대표적 역사명소	80
4) 민속과 생활	91
3. 내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95

제5장 지리적·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의 정체성 105

1. ‘내포’의 지리와 지역 정체성	105
1) 천혜의 자연조건, 풍부한 물산	105
2) 해로발달과 ‘새 문화의 관문’ 내포	107
2. 내포지역의 다양한 문화특성들	107
1) 내포의 백제문화와 백제정신	107
2) 라말려초 변혁기의 내포지역	110

3) 내포의 정신사, 지성사 - 실천과 다양성	112
3. 21C 도청이전시대의 시사점	117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22

1. 결론 및 연구함의	122
2. 정책건의	125

참고문헌 127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세방화에 따른 지역다움의 중요성 증대

기술적 측면에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방화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지역의 지역다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다움이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시대에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경제의 발전에 따른 위기는 지역간, 세대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국가적인 차원뿐 아니라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서부 지역은 충남의 발전에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충남의 충남다움을 확보하며 충남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서해안의 내포지역은 충남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충남의 충남다움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내포지역에 대한 정체성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 충남 서부 내포지역의 중요성 증대와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대중국 교역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서해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그 동안 내륙과 동남부에 치우친 지역발전의 방향을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행정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은 그동안 충남 동남쪽에 치우친 개발을 북서쪽에 과급함으로서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물적인 균형발전이 아닌 비물적인 측면이 포함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에 내재된 특성이 반영된 발전 모색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서 내포지역에 대한 정체성의 연구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3) 지역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충남 내포지역의 정체성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지역간,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역과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의 폐해인 균질화, 획일화된 지역개발과 정비에서 탈피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고유특성을 살리고 개성이 있는 도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다.

충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찾고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충청남도 내포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해안 시대의 전개와 충남도청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발전에 전기를 맞이한 충청남도 내포지역에 대한 지리·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연구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연구결과가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에 방향에 바람직한 자료 및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는 내포지역이라 불리우는 충청남도 서부 및 서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①지리, 역사 및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②지리적 차원에서의 내포의 정체성, ③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내포의 정체성, ④지역적·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내포의 정체성 등 4부분으로 구성되며 부분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 역사 및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내포, 지리, 역사문화,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과 역사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연구에서는 지리지역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특징을 통해 지리적 정체성을 도출한다.

셋째,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연구에서는 인물과 장소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특징을 살펴보고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도출한다.

〈표 1-1〉 내용적 범위 구성과 세부내용

연구내용	연구 세부 내용
지리, 역사 및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 지리와 역사문화에 대한 개념 ▶ 정체성에 대한 개념 ▶ 지역과 역사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의 기능과 역할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 지리적인 차원에서 내포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특징 ▶ 내포의 지리적 정체성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특징 ▶ 내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지리적·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의 개념과 정체성 ▶ 내포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리·역사문화적 구성요소와 특징

넷째, 지리적·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포의 개념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내포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리·역사문화적 구성요소와 특징을 연구하였다.

또한 내포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도출함으로써 충청남도정의 방향과 계획 설정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내용에 따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에 수행되었던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 문헌 등의 자료조사를 통해 수행하였고, 둘째,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연구는 고지도, 고문헌, 방언, 학술연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연구하였하였으며 셋째, 역사문화적 차원의 내포 정체성 연구는 고문헌, 연구논문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넷째, 지리적·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연구는 지리적 차원, 역사문화적 차원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고 연구진 회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정체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표 1-2〉 연구내용과 조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이론적 고찰	▶ 문헌, 연구논문 등을 활용하여 개념 도출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 고지도, 고문헌, 방언, 학술연구자료 등을 분석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 고문헌, 연구논문 등을 활용 ▶ 장소, 사건, 인물 중심의 역사적 정체성 요소 도출
지리적·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 연구진 회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정체성 도출

3. 연구의 구성 및 추진과정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모두 6장으로 구성되며, 추진과정은 장별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장별 구성과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연구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①내포, 지리와 역사문화에 대한 개념 ②정체성에 대한 개념 ③정체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념적 차원에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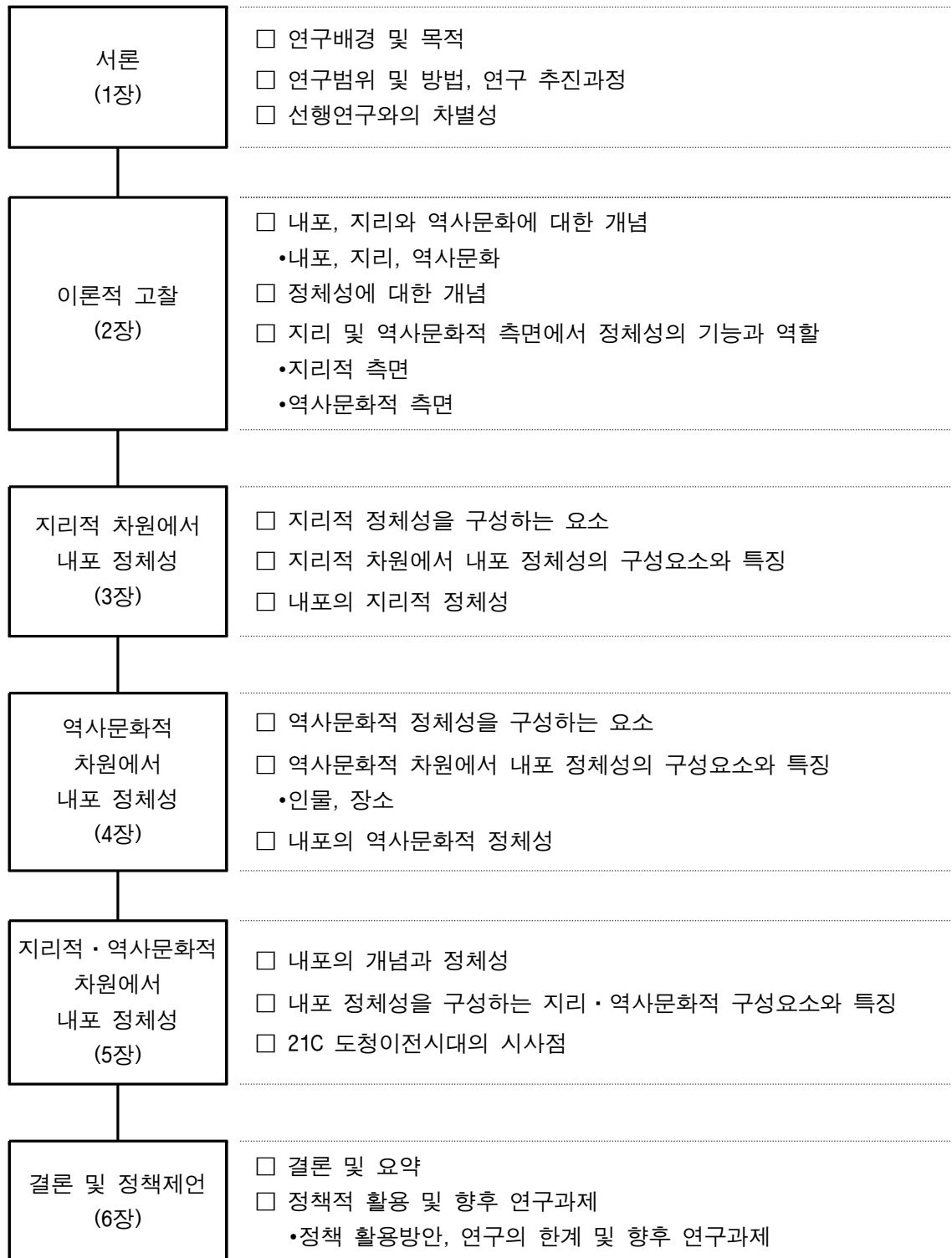
제3장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부분에서는 ①지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②지리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통해 ③내포의 지리적 정체성을 연구하였다.

제4장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부분에서는 ①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②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인물, 장소, 사건(민속)측면에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③내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제5장 지리적·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부분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시적, 내용적 관점에서 내포의 개념과 정체성을 살펴보고, 내포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리·역사문화적 구성요소와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도청이전시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된 연구내용을 요약한 후 향후 추진과제로서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과정



제2장 이론적 고찰

1. 내포, 지리와 역사문화에 대한 개념

1) 내포(內浦, firth)

내포(內浦)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바다나 호수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부분’을 말한다. 영어로는 firth 또는 frith로 표현한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내포는 일반명사로서 바다나 호수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부분 또는 강어귀를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쓴다. 예를 들면 금강에 연접한 부여, 공주, 강경 등도 내포라고 할 수 있다. 바다와 접하며 육지로 들어온 포구가 형성된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포란 용어는 다양한 지역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기록에 의해 어느 순간 특정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언급되는 횃수가 들어나며, 특정구역이 내포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게 된다. 최초로 발견되는 기록은 「고려사」에서 공민왕대에 ‘전라도 도순어사 김형이 운수선을 인솔하고 내포에까지 와서 왜적과 싸워 패배하였는데 절반 이상의 군사가 전사하였다.’(「고려사」 공민왕 13년 4월 丁酉)· ‘왜적이 내포에 침범하여 병선 30여 척을 파괴하고 여러 주들에서 벼와 조를 약탈하였다.’(「고려사」 공민왕 19년 2월 己巳)는 부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려사」에 언급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역이 반복되며 나타나는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택리지」 등에서 이며, 이는 충청도 서북부를 공동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특히 조선 초기에서 후기를 거쳐 내포라는 용어는 차령산맥의 서쪽 일대에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을 의미하게 된다.

내포라는 의미는 본래 일반명사로서의 뜻이 있지만, 한편으로 충남의 서북부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가 진전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포란 ‘바다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충청남도의 서부지역'을 의미한다.

2) 지리(地理, Geography)

지리학에서 지역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리학의 주요 관심 주제인 '지역(地域, region)'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땅(地, Geo)'을 '기술(記述, graphien)'하는 것이 지리학(Geography)의 출발이었으며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땅에 대한 기술에 관심을 가져온 것이 지리학이다. 물론 지리학은 땅을 기술하는 차원을 넘어 지표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의 원리(地理)를 탐구하는 방법론도 가지고 있다. 즉, 지리학의 연구 방법론은 '지표의 지리적 현상을 기술'하는 것과 '그것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Geography'라는 용어 속에는 인간 중심의 '이용'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지의 세계(Geo)에 대한 탐구와 그에 대한 기술(graphy)은 교역이나 정복에 활용되었으며 그러한 본질은 지금도 큰 변함이 없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는 분야를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라고 한다. 반면에 '地理學'이라는 용어 속에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 개념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땅(地)의 이치(理)를 정확하게 탐구함으로써 그 땅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 지리(地理)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활용하는 분야를 계통지리학(Systematic geography)라고 한다. 개발과 이용을 강조하고 인간 중심의 인간-환경관계 인식이 발달한 서구의 사고방식과 Geography는 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며 적응과 조화를 강조하는 환경 중심의 인간-환경관계 인식은 동양적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용'과 '적응'이라는 개념은 지리학의 대표적인 탐구 주제인 '인간-환경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양 날개이다.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리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개념이 'Geography'와 '地理學'이라는 용어 속에 각기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땅의 이치를 잘 따져서 거기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땅의 특징을 세밀하게 읽어 냄으로써 효과적으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리학(Geography)이다.

지역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땅에 대한 기술'을 방법론으로 하는 지역지리학과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지리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지고, 따라서 정보의 독점 보다는 정보의 일반화가 현실이 됨으로써 땅에 대한 기술은 얼핏 그 의미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계화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방화의 요구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관심이 오히려 증대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지리학의 역할은 존재하는 특성을 기술하는 차원을 넘어 구성되는 특성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포는 지리학의 관심이 될 만한 지역이다. 즉,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지역이었으나 주민의 인식에서 사라진, 잊힌 지역이었으며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규모가 도(道) 단위 규모보다는 작고 시·군 단위 규모보다는 큰 독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는 일치하지 않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경계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면서 그 내부에 언어, 종교, 음악 등 다양한 동질적 문화요소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현재 내포를 하나의 실재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내포를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해내는 과정은 곧 지역정체성의 구성과정이며 그것이 지역지리학, 즉 지리학의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3) 역사문화(歷史文化, History and Culture)

역사문화란 역사와 문화의 합성어이다. 역사(歷史)란 사전적인 의미에서¹⁾ ‘인류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이 변화한 과정’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기술하는 주체는 역사가(개인)이며 역사가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과거를 기술하며,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 역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 즉, 역사가가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부터 파악하지 않고는 그의 연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1)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1.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2.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 3.자연 현상이 변화해 온 자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歷史란 한자적인 의미에서 1.지난날,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나 국가, 민족 등이 겪어 온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천의 과정이나 중요한 사실·사건의 자취. 또는, 그에 대한 비판적 조사나 연구, 2.사물이 과거로부터 변천하고 발전해 온 과정이나 자취라 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그 입장 자체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고 있다.²⁾

에드워드 헬릿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1961)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 정의하며 그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역사는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과의 관계를 취급하는 것으로서 원인 관계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관성 개입에 있어서도 오늘날 자연과학 분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각하는 주체(인간)와 지각되는 객체(자연력)간의 상호관계와 의존관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그 과학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역사는 교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일반화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데 있으며, 어떤 경우의 사건에서 얻어낸 교훈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³⁾ 셋째, 역사는 예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과학적인 법칙도 하나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의 일반화는 비록 개별적인 예언은 아닐지라도 미래 행동을 위한 타당하고도 유용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경작(耕作), 재배(栽培)로 해석하며, 토양의 경작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문화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되는데 16세기에 들어서는 정신과 지성이 세련되었다는 개념으로 변화했으며, 19세기 초부터는 시민의 정신과 지성의 발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의미로서 민족 국가와 같은 특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공통적 특징을 의미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인문학에서는 지성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모든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러한 다의적인 문화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특정 집단이 공통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태도, 신앙, 도덕, 습관, 가치관, 풍습 등을 의미하며, 둘째, 인간생활의 지적, 도덕적, 예술적 측면과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과 그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산출물 등 이다.⁴⁾⁵⁾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

2) 카(E.H.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1961)에서 역사를 연구하기에 앞서서 우선 역사가를 연구해야 하며, 역사가를 연구하기에 앞서서 그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연구하라고 말하고 있다.

3) 과거의 기록이 보존되기 시작한 것은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 훌륭한 역사가들은 역시 미래라는 것을 뼈속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다. 역사가는 ‘왜냐’라고 묻는 동시에 ‘어디로’라고 묻는 법이다.

4) 데이비드 트로스비, 문화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8, pp.23-24.

5) 한편 문화의 의미를 ① 사회나 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②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지적, 정신적, 예술적 산물, ③ 상징적인 체계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자료: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pp.20-22 참조)

를·관습 등 인간의 사회관계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역사문화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의 사회관계 또는 습관의 총체'라 정의하고자 한다.

2.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속성

1)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正體性)은 우리 인간환경 속에 존재하는 개체 또는 집단이 참된 본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의미한다.

- 원래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의 自我理論(self theory)에서 나온 것으로 한 개체 또는 사회적 집단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을 말함
- 영어로는 identity이며, 그 어원은 라틴어인 identitas, identicus이며 idem 즉 동일하다는 뜻에 기원함

인간을 정체성의 주체로 보는 경우는 인간정체성이고 지역 또는 도시를 주체로 보는 경우는 지역정체성, 도시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은 다른 것과 통합되는 상관적 공유성과 다른 것과 구별되는 배타적 고유성 등 두 가지 속성을 모두 포괄한다. 정체성의 개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경우는 그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특징인 동일성(sameness)이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의 개체로서 보았을 때는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특성인 개별성(individuality, oneness)의 측면이 있다⁶⁾.

동일성을 지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은 바로 그 지역답다”라는 개념이다. 동일성은 변화에 대한 연속성(continuity)과 어떤 대상에 대한 동일화(identification)라는 개념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연속성이다.

6) 전자는 ...와 같은 (identity with)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 의 (identity of)라는 뜻을 가진 정체성이다.(E. Relph,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 Pion Ltd., p.45)

○○지역이나 도시에 관련되는 나는 그 지역 또는 도시와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지거나 ○○지역이나 도시에 관련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지는 것은 동일화라고 할 수 있다.

개별성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고 더 낫다’라는 개념으로서 특이성(uniqueness)과 우월성(excellence)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특이성은 ○○지역 또는 도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월성은 ○○지역 또는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무언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정체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며,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표 2-1〉 정체성의 개념적 구분과 의미

구 분			의 미
동일성 (그 지역은 그 지역답다)	연속성(지속성)		• 그 지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
	동 일 화	투입에 의한 동일화	•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진다
		정합에 의한 동일화	•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
개별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 와는 다르다)	특이성(차별성)		•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우 월 성	공동요소를 비교한 우월성(수월성)	•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도 있는 요소들과 비교하여 더 뛰어나다
		고유요소 존재에 의한 우월성(고유성)	•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요소가 있어 더 뛰어나다

자료 : 황기원, 1995,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한국조경학회, p.5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

본 연구에서 지역·도시차원에서 정체성을 찾고 정립한다는 의미는 ①지역·도시가 가지고 있는 수월하고 차별화된 특성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②전략을 마련하며 ③실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유병림·황기원, 1992, 「도시문화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p.23-26.

2) 정체성 개념의 비판적 검토

정체성의 근거에는 “주체(subject)가 객체(object)를 통합하는 원리, 즉 자연과 사회 내부에서 주체가 자기 것들은 물론 다른 것들을 자기 자신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이성백, 2002). 이와 같은 정체성의 원리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상호 대립적이다.”라고 보는 근현대 철학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김지영, 2004). 실제로 근현대 철학이 이전의 철학과 다른 것은 주체의 인식을 넘어서 객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고한다는 사실이다.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스스로 처한 시대적 상황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이해한다면 근현대 철학 역시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유 체계인 것이다. 근현대 철학의 핵심적 개념인 근현대성(modernity)은 공간적 제약의 붕괴와 대량 생산 체제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경제구조, 이성적 판단을 전제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와 보편주의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근현대성은 인간 해방의 주체가 되는 이성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합리주의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다수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랫동안 서구 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담당해 온 합리주의는 시민 혁명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와 계급적이고 집단적인 사고에 근거한 巨大談論이 수용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가 서구 사회의 진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한편으로 이성이라는 주체가 인간에게 ‘동일화(identification)’의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사회 (또는 자연)와 인간 주체의 합일’에는 주관성(subjectivity)이 개입되는 바, 주체는 비록 개별적이지만 주관성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단계를 거쳐 집단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내는 결과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특정한 정체성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구성되고 동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단일한 유형으로 획일화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정체성의 구성에는 주체가 객체를 지배하기 위하여 객체의 차별성이나 고유성을 억압하고 객체를 주체 자신의 주관적 형식으로 통합하는 원리, 즉 객체를 주관화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존중하고 포용하기가 어렵다. 최근 들어 근현대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이 상당히 진전된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근현대 철학에서의 정체성의 원리를 주체가 객체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는 지배 원리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유 체계인 것이다.⁸⁾

타자(Other)를 주체의 정체성의 일부로 포섭한 근현대의 담론에서 진정한 타자의 의미와 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주체는 본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제공된 이미지로부터 자기 인식을 하는 분열적인 존재이다. 라캉(Lacan)은 ‘거울 단계(le stade du miroir: mirror phase)’의 설명을 통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듯이 보이는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과정이 실제로는 만성적 자기 오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⁹⁾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통한 자기 인식은 자기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실상은 좌우가 뒤바뀐 상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 주체에게 자기 인식이란 애초부터 자신의 존재가 결여되고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양석원, 2001).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의 타자(Other)에 대한 논의는 주체로 환원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은 ‘타자(Other)의 타자성(Otherness)’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들뢰즈(Deleuze)의 주장에 의하면, 타자가 기본적으로 존중되려면 자아에 대한 의식과 대상의 구별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아에 대한 의식과 대상의 분리를 가져오는 타자의 작용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공간과 시간은 연속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현재 세계를 연속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자아가 타자와 함께 현재 세계에 거주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가 온전하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타자가 지각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지각 가능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Deleuze, 1990: 김지영, 2004, 재인용).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 의하면 서구의 형이상학은 ‘같음’, 즉 동일성(identity)

8) 아도르노의 주장에 의하면 정체성의 원리는 주체의 특정한 형식을 객체에 부과하여 객체로 하여금 이 주관적 형식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객체의 고유한 성격은 희생되기 때문에 정체성의 원리는 객체의 고유성을 억압하면서 주체의 원리에 복종시키는 지배의 원리이며, 또한 사물의 독자성을 파괴하고 그것을 인간을 위한 사물로 만드는 원리이다 (이성백, 2002).

9) 거울 단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어린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실재하는 타자로 지각한다. 즉, 자신과 타자를, 이미지와 실재를 혼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두 번째 시기에서 어린아이는 거울 속의 ‘타자’가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미지와 실재를 구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시기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단지 이미지일 뿐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이미지가 바로 자신의 이미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김형효, 1990).

의 논리를 위해 '다름', 즉 차이성(difference)을 차별해 온 폭력적 위계 질서였다. 이제는 타자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기존의 정체성 개념은 차이성에 합당한 의미와 위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이성백, 2005). 오늘날의 정체성 개념은 내부적으로 같은 성질(同質性)만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성질(異質性)을 무시하는 방향을 탈피하여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더니즘(modernism), 즉 근현대주의는 정체성을 확고하고 안정적인 성질로 간주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체성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창조(creation)'와 '순환(recycling)'을 거듭하는 가변적인 성질로 이해한다(Bauman, 1996). 결론적으로, 정체성란 매우 복잡하고 부단히 변모하는 성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경우와 같이 단수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다양한 성질로 표현되는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결코 통일되지 않은 채 더욱 분절되고 갈라져 왔으며, 결코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교차하고 반대되는 담론, 실천, 지위 등을 넘어 다중적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정체성은 급진적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인 동시에 끊임없이 위치를 변동하고 모습을 변형하는 과정이다. 정체성은 시대적 담론을 통하여 구성되므로 특정한 역사적, 사회문화체계적 배경을 가지고 생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체성은 특정한 양식의 권력으로부터 발생하며 내부적 차별성이 없는 '같음(sameness)'을 의미하는 전통적 의미보다는 차이와 배제를 동반한 표현으로부터 나온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체성은 '다름(異質性)'의 외부에서 '같음(同質性)'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질성)'을 포함한 내부에서 '같음(동질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Hall, 1996).

3. 지리 및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정체성의 형성 과정

1) 지역정체성의 형성

오늘날은 모든 변화가 매우 빠른 시대로 지역의 특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역 상호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역의 획일화에 못지않게 다양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는 물질적 경관과 주민들의 의식이 모두 변형되거나 말소되어 버려 연결고리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한국의 대다수 지역의 실정이다. 지역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더라도 이는 누군가에 의해 지금까지 규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역사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벌써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정체성은 상당히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오늘날 주민들로부터의 동의를 전폭적으로 얻어 내지 못한 정체성으로 주민들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들이 의외로 많다.

지역정체성은 사회적, 공간적, 역사·문화적인 현상으로 고정적인 동시에 가변적이며 파괴적인 동시에 생산적인 특성을 갖는다(Raagmaa, 2002). 이는 사회 집단이나 지역 공동체에 의한 포함과 배제의 과정을 통하여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적 공간과 정체성은 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인 소속감은 음식이나 안전에 대한 습관적 욕구와 같이 거의 변함없이 지속된다. 최근의 정보 사회가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고 있는 현실은 불과 10~20년 전의 상황에 비하면 매우 달라진 것이다. 초국적 기업과 세계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에 근거한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 때때로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귀속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쁘게는 주민들의 열등감이나 자만심을 대신할 수도 있다. 지역들의 이 익사회(gesellschaft)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렬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동체(gemeinschaft)에 대한 요구가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는 한편으로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지역정체성의 구성 과정을 더욱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Raagmaa, 2002).

지역정체성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경관, 상징 등)과 정신적인 것(주민들의 의식, 신념 등)을 모두 망라하여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구성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정체성 구성의 기준으로 이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과거와 같은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정체성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들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들은 누구인가?” 등과 같이 ‘존재(being)’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역사, 언어, 문화 등과 같은 자원의 지속적인 ‘생성(becoming)’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근원(root)보다는 경로(route)를 추궁

하는데 더욱 집중하므로 전통 그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전통의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Hall, 1996). 결국 정체성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승인과 부인을 거쳐 사회적 소속감이나 법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규정된 것이다(유원기, 2004). 지역정체성은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나 개인의 의지에 따른 행동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성되는 것이다.

2) 지역정체성 형성 개념의 적용

정체성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이러한 일에 적당하거나 가치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질문은 다양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동반하므로 실제로 ‘정체성의 정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Calhoun, 1994).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타자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하며 심지어는 아예 대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은 경우에 따라 매우 주관적이 되기도 하며,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지역정체성의 구성은 다양한 사회문화체계 형성 주체들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형성(사회문화체계 형성, institution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Keating, 2001). 여기서 형성이란 지역정체성의 구축을 위하여 영역적 경계, 상징, 사회문화체계 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형성은 한편으로는 담론, 사회적 실현, 의식 등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의해 통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성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의 지역은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획득하므로 장소에 대한 인식은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지역정체성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객관적인 실체가 아님은 물론 때로는 주민들의 토착적인 지역 의식(regional consciousness)을 초월한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가와 지식인을 비롯한 타자들이 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고 이러한 지역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지지하며 유통시키는 작업에 가담하고 있다(McSweeney, 1999).

대체로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형성 요소에는 경제, 행정, 언어, 매체, 문학, 권력 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혼합된 채 공동으로 지역의 실체와 담론에 영향을 준다.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직과 기구를 포함하는 요인들은 제각기

지역의 의미와 기능을 다르게 이해하며 서로 다른 전략을 채택한다(Allen, et al, 1998). 그러므로 형성을 위한 실천을 통하여 지역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지역 특성이 어떻게 창조되며, 다양한 사회 집단이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정한 지역 의식의 재생산 과정을 규명하려면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지역 특성이 사회문화체계 형성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사회적 재생산 과정의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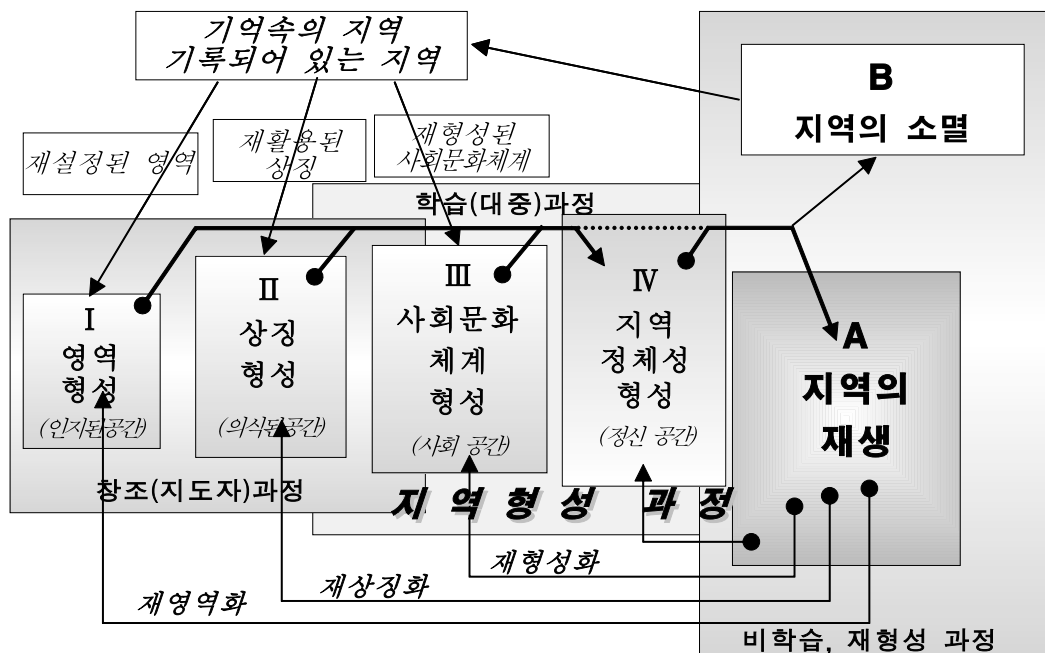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역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의 정체성과 사회·공간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행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적 범위의 수축 내지 팽창을 반복한다. 특정한 지역의 정체성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의 형성(institutionalization) 과정은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파시(Paasi)는 지역 형성의 논리와 역사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형성이라는 개념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그의 제안에 의하면, 형성 과정은 비록 도식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 3-1>과 같이 네 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1) 영역 형성, (2) 상징 형성, (3) 사회문화체계 형성, (4) 지역정체성의 형성(Paasi, 1991).

그러나 이와 같은 형성 과정은 첫 번째 과정에서 네 번째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 네 개의 단계 가운데 일부만을 통과할 수 있으며 진행 순서가 서로 뒤바뀔 수도 있다. 이는 모든 지역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지역정체성의 구성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사회문화체계 형성 개념은 지역정체성의 구성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역정체성은 객관적인 실체로 공인되기보다는 다양한 주체, 즉 사회문화체계 형성의 요소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공간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Amdam, 2002). 특정한 지역에 '속한다'는 느낌은 집단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는 패권적인 지역정체성에 동의하거나 저항하는 기능을 하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정체성을 육성하는 기반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체성이 무엇으로 구성되며 집단적 행동이나 정치적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정체성의

분석에 접근하는 방법은 문화-역사적인 과정을 추적하는 것과 정치-경제적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대별된다(Paasi, 2003).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양자택일하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연구의 실제에서 이들 양자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사실은 특정한 지역이 영역의 경계를 획득하고 이러한 영역을 상징하는 구조가 조성된 다음 이러한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문화체계가 출현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역사적 접근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형성의 과정에서 모든 단계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권력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치-경제적 배경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최종 단계가 또 다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그림 3-11〉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정



자료 : Paasi, 1986-Lefebvre, 1991-Soja, 1996-Maskell & Malmberg, 1996-Riikonen, 1997., Raagmaa, 2002, 587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작성

지역정체성은 우선적으로 주관성에 기초하지만 주관성은 행동의 자율성과 주체의 자기비판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정체성은 일정한 형상과 위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과정이나 과제(project)로 이해되어야 한다(Baldwin, 2004). 과거의 지역정체성은 오늘날 명료하게 형상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정체성은 그렇지 못하며 미래에는 또 다른 형상으로 재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정체성은 자아와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재구성되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복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체계 형성의 개념은 현재를 포함하는 일정한 시점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지역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3) 지역정체성 형성 과정

(1) 영역 형성

영역 형성의 과정은 지역이 경계를 획득하고 공간 구조에서 독특한 단위로 규정되는 과정이다. 경계의 핵심은 지리적 경계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징적 경계이다. 영역은 지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영역 형성의 과정은 경제, 정치, 행정 등의 사회적 현상이 지방화(localization)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영역(territory)이라는 용어는 지리적 공간과 권력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며 여기에는 권력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화를 통하여 지역의 변화가 발생하고 지역이 경계를 획득하며 공간 구조에서 독특한 단위로서 규정된다.

영역 형성은 전통적 지역개념 가운데에서 결절지역의 개념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즉, 결절점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곧 지역의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일정한 세력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절지역의 개념은 영역적 형상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의 의미에 맞추어 재정립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장소 인식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소 인식은 지역의 영역적 형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2) 상징 형성

상징적 형성의 과정에서는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상징적 영역은 역사나 전통과 함께 만들어지며 사회적 인식의 재생산을 촉진한다. 상징적 체계의 중요한 기능 한 가지는 현상(역할, 가치, 정체성, 특권 등)을 법제화하고 강화하며 고무하는 것이다. 영역 이데올로기 또는 지역정체성(국가주의, 지역주의,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고 등) 등과 같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 또는 의미체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상징적 형상은 전통적 지역개념 가운데 동질지역의 개념과 관련을 갖는다. 오늘날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의 요소들은 대부분 역사, 문화적 요소들이며 이들의 분포를 통하여 동질지역의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절성과 동질성, 장소 인식 등은 각각 영역적 형상이나 상징적 형상에 단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화적 동질성은 지역의 상징적 형상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핵심과 주변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의 영역적 형상을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지역의 구성과정에서 상징적 형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역사회는 구성원들과의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독특한 집합적 정체성, 즉 지역 정체성을 갖게 한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징들을 ‘지역의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상징적 형상은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을 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상징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징적 형상은 지역의 역사, 전통과 관련이 깊다.

(3) 사회문화적 체계 형성

형성의 출현 과정에서 형성이란 일반적으로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기대에 의해 표준화되고 통제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 양식이나 시설이다. 이들은 영역적 상징과 기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장한다. 또한 다양한 스케일에서 생산된 사회적 인식이나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을 넘어선 집단적 사고 체계나 가치의 생산은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고 나아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대중 매체, 교육 기관 등의 공공시설이나 정치·경제·법률·행정 분야의 지방적, 또는 비지방적 실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형성은 입장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의 구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또한 형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역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력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면서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4) 지역 정체성 형성과 지역의 성립

지역의 성립 과정은 지역이 형성되고 난 후 사회문화체계 형성 과정이 연속되는 것과 관계

가 있다. 영역과 상징이 성립되고 이를 강화하고 표준화하는 사회문화체계에 의해 지역 정체성이 형성된다. 지역의 구성에서 필수적 요소인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성립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정신공간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이 성립되면 지역은 성립되지만 지역 정체성의 구성에 실패하게 되면 지역은 소멸되어 기록이나 기억 속의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이 소멸할 경우에도 또 다시 재영역화, 재상징화, 재사회문화체계 형성 등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지역의 구성과정을 밟을 수 있다.

지역의 구성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영역은 '장소 판매'에 이용되거나 자원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념적 투쟁에서 하나의 무기로 활용된다. 예를 들면, 영역은 사회 내부의 지역주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regionalism)나 지역 정책에 유리한 자원이나 권력으로 이용된다. 이후에도 지역은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목적에 따라 영역과 상징을 끊임없이 형성하며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지역은 머물러 있는 정태적인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을 되풀이하는 동적인 존재인 것이다.

제3장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 정체성

1. 지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1) 지역정체성 논의를 위한 고려 요소

(1) 차이성(差異性, 다름:異質性)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한 세계화는 시-공간의 압축과 공간적 장벽을 붕괴시키며 보편성을 증진시키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보편성의 증대는 지리적 환경의 고유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지역들은 제각기 자기 장소의 특성을 강화하고 부각시키고 차별적인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동안, 중앙 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을 유지하며, 국가 중심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화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역들이 주체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해 왔다. 지역정체성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하지만 지방화와 민주주의의 진전, 포스트모더니즘의 측면에서 볼 때 정체성은 주민들 상호간의 차별성을 포용하며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특권적 주체의 입장뿐만 아니라 객체의 입장을 고려하여야만 비로소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획득하는 정체성이 구성되는 것이다.

‘다름(異質性)’이 합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정체성은 국가 중심의 정체성에 대하여 소수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합치 여부를 떠나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다름(이질성)’의 개념이 개입된 지역정체성이야말로 그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함은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주관성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주장과 정책, 사회 운동 등은 장소와 정체성 또는 장소와 소속감의 상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할 때 과거의 역사나 지역 특성에 대한 일치된 이해에 크게 의존한다.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한 정체성이나 소속감은 특히 지역주의나 장소의 상품화 등과 같은 이념이나 행위들에 대한 심리적 기반이 된다(Massey, 1994.). 그러나 문화나 역사와 같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기초로 하는 지역의 특성은 외부적 조건의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외부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지역 전통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복원 수준에 머물기 쉽다. 그렇지만 현재에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살아 있는 전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주관적 의식과 판단에 근거한 정체성이라면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주민을 통합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엔트리킨(Entrikin)은 장소와 지역에 대한 사고를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인 차원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ntrikin, 1994).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지리학은 장소와 지역에 대한 사고에서 오랫동안 탈중심적인 관점, 즉 외부자나 관찰자의 관점에 집착해 왔다고 한다. 그는 지리학의 지역적 접근을 혁신하려면 장소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 장소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표현하거나 드러내기 어려운 주관성이 객관적인 역사나 문화와 결합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Hall, 1993). 지역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주민의 주관적 의식과 같은 주관성과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같은 객관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사회가 공간상에서 통합되는 과정보다는 사회적 공간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창조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탐구해야 한다. 지역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우발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행정, 경제, 문화적 실체와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¹⁰⁾.

일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대한 특정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되살려서 주민들의 의식에 주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특정한 입장에 의해 부각된 요소들은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개발 계획의

10) 주민의 의식이나 기억과 같은 심리적 지속성은 매우 다양한 정체성의 기준, 또는 정체성의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되지만 객관적 실체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것을 지역정체성의 구성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성형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입장과 의도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지역정체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Baldwin, 2004).

수립에 있어서 주민과 기업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것이 점점 더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의 개발 계획과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주체들끼리 갈등하고 대립하는 의견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또는 국가)의 정체성을 설계¹¹⁾하는 것이다(Amdam, 2000).

(3) 권력관계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특정한 사회적 행위자에 의해 유도된다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행위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창조된다(Giddens, 1984). 이데올로기, 정치·경제적 지위, 시민 의식 등은 이견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이견과 갈등으로부터 새로운 이미지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이미지가 유통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데올로기, 정치·경제적 지위, 시민 의식 등의 특성들은 또 다시 만들어진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마치 스스로 재생산되는 것처럼 순환적이므로, 사회 구조와 인간의 사회적 행동 사이에는 지속적인 상호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¹²⁾

그 밖에도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자연에 대한 사고, 경관, 建築 환경, 민족성, 방언, 경제적 성장 또는 쇠퇴, 주변-중심 관계, 주변화, 주민 또는 공동체의 상투화된 이미지, ‘우리들’과 ‘그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실질적인 (또는 가공적인) 역사,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의식, 주민들의 동일시에 대한 산발적인 논쟁 등이 있다. 때로는 언어와 방언이 국가(민족)와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Knox, 2001). 정체성은 다소 폐쇄적이면서 주민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담론이나 실제에서 의식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지역정체성 또는 지역 의식은 개인 또는 가족의 공간적 역사를 캐는 질문, 즉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동이 제한되어 있던 과거에는 정체성이 하나의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정체성의 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출신 지역은

11) 정체성의 설계는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 즉 주관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주체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

12) 이러한 특성들은 민족, 인종, 다문화주의, 성별, 섹슈얼리티, 주민 의식, 경제 등으로 인하여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물론 권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집단을 구성하거나 해체하는 사회적 구분을 합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알고 믿도록 하기까지 권력 관계가 지대한 작용을 한다. 지역정체성의 형성에는 주민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적인 호감(또는 적대감), 대중적 의견, 대중 매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에 정치지리학자들은 정체성을 국가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시민정신 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Paasi, 2003).

정체성(동일성)과 차별(이)성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scale) 상에서 발현이 되므로 특정한 지점의 정체성 또는 차별(이)성은 스케일이 다른 또 다른 지역의 특성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Bell, 1999). 이러한 공간적 상호 작용 과정을 거쳐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일정한 영역(territory)을 가지며, 이와 같이 지역화(regionalization)된 정체성은 집단적 행위(사고)의 배경이 된다. 특히 정체성은 인종, 성, 종교, 계급 등과 같은 차별성과 혼합되었을 때 더욱 큰 에너지를 가지며,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상관없이 역동적인 정치운동의 배경이 된다. 사실상 이러한 집단적인 행위(사고)는 ‘우리들’과 ‘그들’ 사이의 사회적 구분과 경계가 없다면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집단적 행위(사고)를 유발하기에 유리하다(Bernstein, 1997). 특정한 유형의 정체성은 대체로 길고 짧은 역사를 가지는 지역화 과정을 거쳐 집단적 행위(사고)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투쟁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반대(차이)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¹³⁾.

또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매우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Massey, 1994). 사회적 요소들은 ‘우리들’과 ‘그들’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 내거나 사회적 구분과 공간적 표현을 생산하고 재생산할 때 제각기 다른 위치와 입장을 점유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에 관한 담론들은 더욱 필연적으로 ‘권력 기하학(power geometry)’의 표현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권력 기하학의 생산과 재생산은 주민들이 태어난 로컬리티(locality)나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의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Paasi, 2003). 이와 같은 상황은 정체성을 객관화하

13) 실제로, 유럽에서 진척되어 온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은 집단적 소속감이 개인적 정체성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긍정적 집단으로 보는 계기가 된다고 가정한다(Oysterman, 2004).

여 하나의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입장들이 점점 더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4) 경계(境界, 영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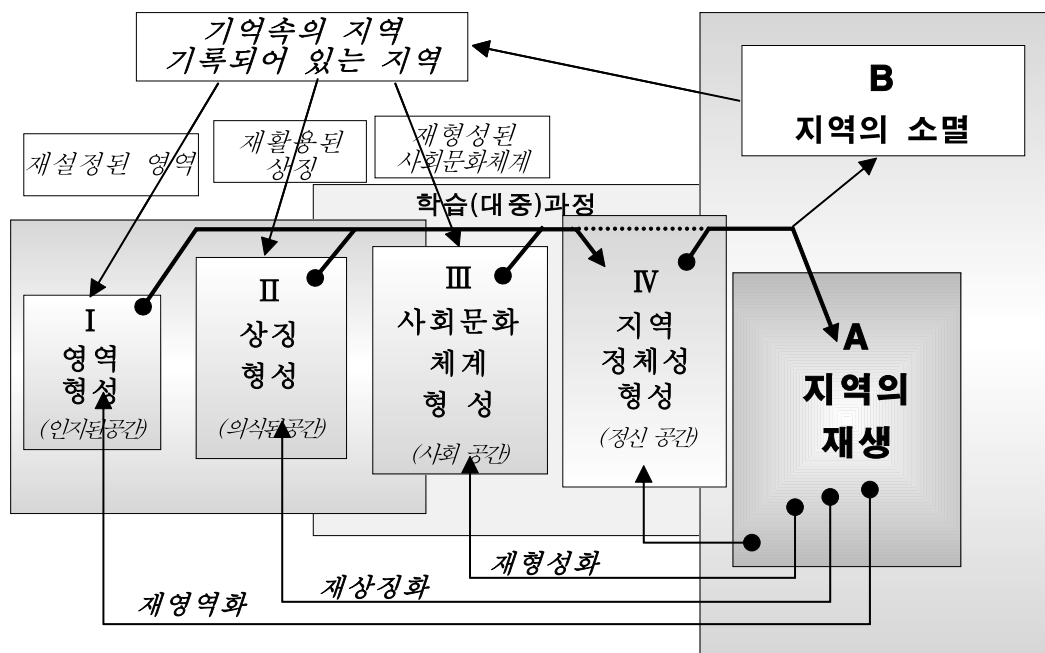
경계는 '지도상에 그어지는 선' 또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지역 정체성, 주민의 행위, 인구 및 물자의 이동, 권력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계와 범위가 사회과학과 문화연구에서 핵심 단어로 부상하였다(Anderson, et al, 2003). 특히 정체성과 경계는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물리적인, 또는 상징적인 경계는 정체성의 배타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된다(Hall, 1996).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범위, 정체성, 권력 등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고에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경계 또는 범위의 비 영속적이고 분절성이 강한 본질에 대하여 주목해 왔다. 경계 또는 범위는 물질적, 상징적 차원에서 그리고 권력관계에서 '섞이고 융화되며 흐릿해지고 잡탕이 되는 공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Bhabha, 1994). 따라서 주민 또는 장소 정체성은 순수하고 고정된 것은 아니며 정체성은 경계가 불분명한 공간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계는 어떤 일반적인 본질도 갖고 있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투쟁의 결과물이고 권력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경계는 역동적인 문화적 과정이다. 이것은 사회 집단을 구별하고 사회집단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는 사회문화체계인 동시에 상징이다. 경계는 상징(iconography, 깃발, 유니폼, 조상 등), 기념물, 문학, 음악과 민속, 낙서, 유적, 경관 등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지역정체성을 나타내고 상징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재료들을 비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매체 담론(TV, 영화, 신문), 고급 또는 대중문화, 교육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경계가 어떻게 정당화되며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문화체계 및 담론과 마찬가지로 경계(boundary)는 다만 변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으로는 어디로든 확산이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과 지역정체성은 실체로서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과정이며 과제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경계는 지역의 외곽을 따라서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도 만들어지며, 정체성과 권력관계와 관련된 담론 속에도 자리를 잡고 있다. 경계는 뒤섞이고 불분명한 하나의 영역으로 물질적, 상징적 실체들과 권력관계가 융합되는 지점이다(Anderson, et al., 2003).

2) 지리적 정체성의 형성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인 정체성을 연구하는데 고려요소인 ①차이성(差異性, 차별성), ②주관성, ③권력관계, ④경계(境界, 영역성)를 바탕으로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내포의 지리적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내포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는 ①영역형성, ②상징형성, ③사회문화체계 형성, ④내포정체성의 단계로 보아야 하나, 내포지역의 특성상 ①영역적 형성의 역사적 과정, ②상징적 형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사회문화체계 형성과 내포 정체성을 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림 3-1〉 지리학적 관점에서 내포 정체성의 형성과정



자료 : Paasi, 1986-Lefebvre, 1991-Soja, 1996-Maskell & Malmberg, 1996-Riikonen, 1997., Raagmaa, 2002, 587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작성

영역적 형성의 역사적 과정은 장소인식의 주요 주체를 살펴보고 내포 범위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았으며, 지역권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시권을

중심으로 내포 지역권을 살펴보았다.

상징적 형상이 형성되는 과정은 자연지리적 측면과 문화·역사지리적 측면에서 상징적 형상의 형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하여 문화권으로서의 내포를 살펴보았다.

〈표 3-1〉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의 구성요소와 조사내용

구성요소	조사 내용	비고
1) 영역적 형성의 역사적 과정	(1) 장소 인식의 주요 주체 (2) 내포 범위에 관한 인식의 변화 ① 17세기 이전 ② 18-19세기 초 ③ 19세기 후반 (3) 내포 지역권: 장시권 ① 장시의 발생과 발전 ② 계층구조의 형성: 영역으로서의 장시권	
2) 상징적 형상의 형성	(1) 자연지리적 상징 ① 차령산지와 가야산 ② 안개(內浦)의 발달 (2) 문화·역사지리적 상징 ① 상징으로서의 방언 ② 민요와 시조-내포 문화의 계급적 이중성 ③ 사대부의 가거지-近畿圈으로서의 내포 (3) 상징적 형상의 형성-문화권으로서의 내포	

이를 바탕으로 내포의 지리적 정체성을 형성과정 단계인 ①영역형성, ②상징형성, ③사회문화체계 형성, ④내포정체성 형성 측면에서 내포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2.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의 구성요소와 특징

1) 영역적 형성의 역사적 과정

(1) 장소 인식의 주요 주체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까지 내포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주로 조운이나 방어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고려사」에 내포에 대한 기록은 공민왕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모두 왜구 및 전라도 조운선과 관련된 내용이었다.¹⁴⁾ 「조선왕조실록」에도 내포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통치 행위와 관련된 기사들로 내포를 충청병영이 위치한 장소로¹⁵⁾, 또는 조운¹⁶⁾과 관련시켜 언급하고 있다. 조운이나 국방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사실은 내포가 주로 국가나 관료들을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지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포가 민중문화와 관련하여 이름이 붙여진 경우가 없다. 즉 풍속, 민속, 민요 등 민중문화 요소 가운데 ‘내포’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내포의 지역 특성에 대한 언급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택리지」의 기술이다.¹⁷⁾ 또한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에 심한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고르면 살 만하다.¹⁸⁾’는 기술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택리지」의 인심조에서 이중환은 ‘당색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가능한 곳을 사대부들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언급하고 있다.¹⁹⁾ 당시 내포는 대부분 기호학파의 영향권에 들었던 곳이었으므로 서울·경기지역과 ‘풍속이 비슷’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반관료 계급은 실제적인 이주를 단행한 경우가

14) ‘전라도 도순어사 김형이 운수선을 인솔하고 내포에까지 와서 왜적과 싸워 패배하였는데 절반 이상의 군사가 전사하였다.’(「고려사」 공민왕 13년 4월 丁酉) · ‘왜적이 내포에 침범하여 병선 30여 척을 파괴하고 여러 주들에서 벼와 조를 약탈하였다.’(「고려사」 공민왕 19년 2월 己巳)

15) ‘…충청도 병영이 외진 내포에 위치하여 양남의 적로와 까마득히 멀다고는 하지만 이미 설치한 병영을 경솔하게 폐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조실록」 권107, 31년 12월 癸丑).

16) ‘…충청도 각관의 전조(田租)는 전객(佃客)으로 하여금 수송하되, 내포···금천(金遷)에 이르게 하고…’ (「태종실록」 권24, 12년 8월 庚辰).

‘…전라도에서 매년 연저창·광흥창의 미곡을 조운하는데, 아울러 4만 60석입니다. 만약 모두 충청도 내포에 육지로 운수한다면 인마가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청진대, 경상도의 예에 의하여 그 정도의 멀고 가까운 것과 경작하는 땅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전라상도의 각 고을은 내포에, 중도·하도는 룡안성이나 혹은 진포에 정월에서 2월에 이르기까지 육지로 운수하여 창고를 짓고 수납하였다가, 3·4월에 이르러 모조리 그 군자로 조운하도록 하면…’ (「태종실록」 권28, 14년 9월 壬午).

‘…다만 전라도의 전세는 모두 해로를 경유하여 간혹 표몰할 염려가 있으니, 신은 생각건대, 경상도의 1년에 상경하는 전세를 반을 감하여 그 도의 주창에 납입하고, 그 감한 수를 전라도 안에 이정하여 도를 나누어서, 상도의 여러 고을은 충청도의 범근내창에, 하도의 여러 고을은 각각 부근의 영산창과 덕성창에 예전대로 수납하게 하면, 충청도의 내포의 선운이 표몰될 염려가 없고, 전라도의 해운 또한 감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종실록」 권77, 8년 윤2월 己酉).

17) ‘忠淸道則內浦爲上(충청도에서 내포가 제일이다)’(「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조)

18) ‘其風俗近京與京城無甚異故最可擇而居之’(「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조)

19) ‘尋同色多處方可有(당색이 같은 사람이 많은 곳을 찾지 않을 수 없다)’(「택리지」 북거총론 인심조)

많았다. ‘여러 대로 서울에 사는 집으로서 이 도에다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서 생활의 근본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은 집이 없다.’²⁰⁾는 기술에서 당시 이러한 현상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내포가 양반관료층,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던 양반관료층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뱃길로 한양과 매우 가까운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²¹⁾

(2) 내포 범위에 관한 인식의 변화

① 17세기 이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내포라는 이름은 그 공간적 범위가 약간씩 바뀌어 왔다. 이것은 내포가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내포가 주민의 인지(perception)에 의해 정의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포의 범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록으로는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관찬 실록과 「택리지」, 「사연고」, 「대한지지」 등의 실학 서적, 그리고 「대동여지전도」 등의 지도 등이 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역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수록 내용도 많고 구체적이다.

처음으로 역사에 내포가 등장했던 고려 말 당시의 내포지역의 범위는 명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 「고려사」에 언급은 되고 있으나 구체적 위치나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운 및 왜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아 내포가 전라도에서 개경에 이르는 해로상에 위치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부터 17세기까지는 내포의 범위가 차령산지 서쪽 일대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까지 내포에 대한 기록은 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이 된다. 예를 들면 「선조실록」에는 내포가 ‘충남서북부의 홍주진관 관할 구역’으로 정의되고 있다.²²⁾ 영조실록의 기록에도 ‘호서 내포 18개 고을’²³⁾이라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는 대체로 당시의 홍주

20) ‘京城世家無不置田宅於道內以爲根本之地’(「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조)

21) ‘伽倻之東爲洪州德山并在由宮之西與浦東禮山新昌舟船通漢陽甚捷(가야산 동쪽의 홍주와 덕산은 유궁진의 서쪽에 있으며 동쪽에 있는 예산, 신창과 더불어 배로써 한양과 통하여 매우 빠르다)’(「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조)

22) ‘공주(公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금강 일대는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며, 홍주(洪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내포 연해 등지를 모두 방어 할 수 있으니…’(「선조실록」 권55, 27년 9월 辛卯)

23) ‘호서 내포 18개 고을이 이미 적지로 판명되었으니…’(「영조실록」 권45, 13년 8월 癸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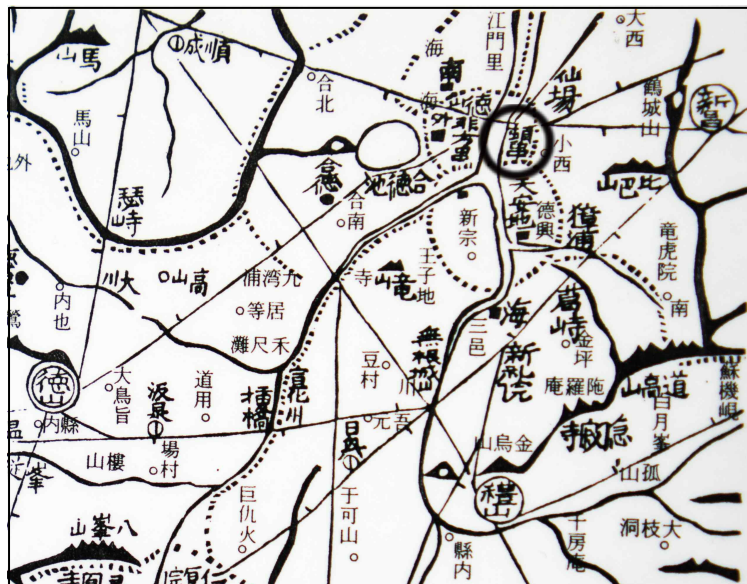
진관 관할의 군현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이다.²⁴⁾

이 시기의 기록의 특징은 내포를 조운, 국방, 그리고 가야산과 관련시킨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²⁵⁾ 「조선왕조실록」의 내포와 관련된 기사를 종합해 보면 내포는 충청도의 서해안 및 가야산 동·서부와 관련이 있으며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포구 주변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18-19세기 초

18세기 초에 이르면 조운제도는 크게 변화하게 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점차 조세의 금납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운로상의 요충지였던 내포의 중요성이 매우 감소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조정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또한 조운이 폐지되자 조운선을 노리는 왜적의 발호도 줄어들게 되었다. 조운과 국방으로 주로 인식되었던 내포의 의미가 이 시기에 이르면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대신에 이 시기의 내포는 ‘터틀 고르면 살만한 곳’으로 주로 인식되었다.

〈그림 3-2〉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돈곶(頓串)의 위치



24) 조선중기 홍주진관의 관할구역은 평택, 온양, 아산, 신창, 예산, 대흥, 덕산, 청양, 당진, 해미, 서산, 태안, 결성, 보령, 남포, 비인, 서천, 홍산 등 18개 군현을 포괄하였다.

25) ‘… 정인길이 말한 바는 망매(茫昧)한 것이 많아서 꿈을 말하는 것과 같음이 있었는데 신의 천성이 본디 혼암하고 잘 잊어버려서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길의 초사 가운데 이른바 정여립의 아들 1인이 아직도 가야산의 둔적소(屯賊所)에 있다느니 도내 내포 여러 곳의 적과 교통하고 있다느니 가야산에서 세 번 진법을 익혔다느니…’ (「선조실록」 권69, 28년 11월 戊子).

신경준의 「사연고」를 통해서 이 시기 내포의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俗名頓串 往來內浦者 多由此渡湖 右諸邑之在此浦上下 沿西者稱 以內浦(세속에서는 돈곶포라고 칭하는데 내포사람들이 대부분 이 호를 건널 까닭으로 왕래한다. 오른쪽의 많은 읍들이 이 포의 윗쪽과 아랫쪽에 존재한다. 연안의 서쪽을 사람들이 내포라 한다)’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즉, 돈곶(頓串)의 서쪽이 내포라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인데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돈곶은 삼교천과 무한천의 합류 지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포구이다. 이 포구의 서쪽에는 면천, 당진, 덕산, 홍주 등 많은 현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가장 구체적인 언급으로는 이중환의 「택리지」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야산 주변의 열 개 고을로 정의하고 있다.’²⁶⁾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신창, 예산, 대흥, 면천, 당진, 덕산, 홍주, 결성, 해미, 서산, 태안, 보령 등 12개 현에 해당하며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는 예산군, 당진군, 홍성군, 서산시, 태안군 전역과 보령시, 아산시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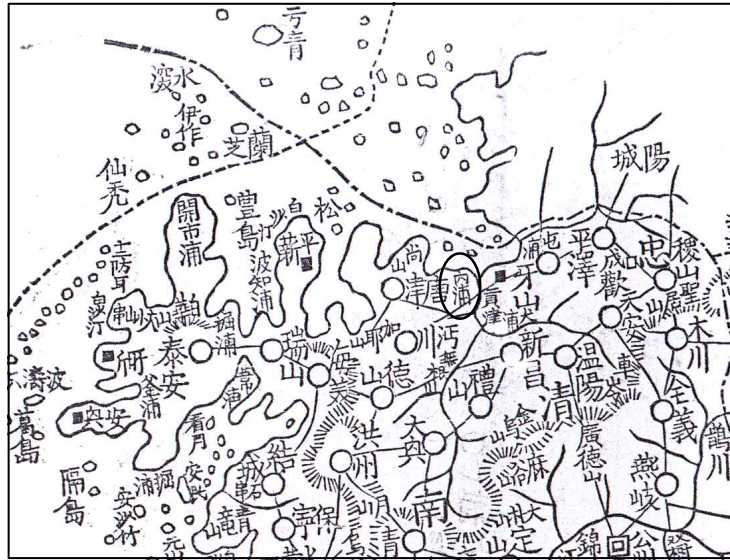
③ 19세기 후반

조선 후기에 이르면 토지제도는 더욱 문란해지며 지배층의 토지확대 욕구와 토지 겸병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내포 역시 한양 사대부의 경제적 근거지로서 더욱 인지도가 높아졌다. 내포는 비옥하고 넓은 토지와 한양과의 빠른 연결성으로 인하여 양반관료층의 욕구를 실현하는 데 적절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가장 ‘내포다운’ 곳은 아산만 일대가 되었다. 넓은 토지와 발달한 수로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곳이 아산만 일대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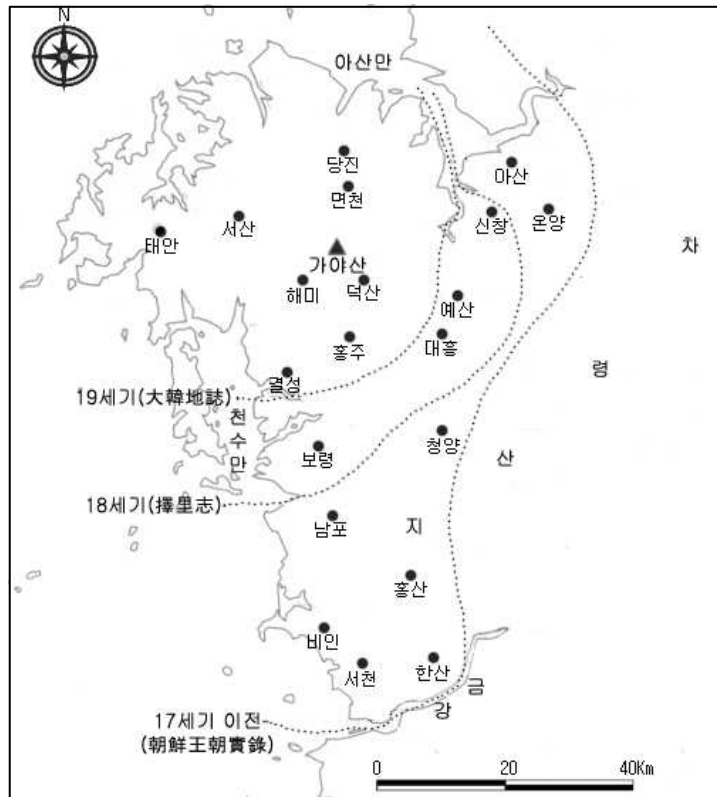
이에 따라 내포의 범위는 좀 더 축소되어 인식되게 되었다. 철종 연간(19세기 후반)에 제작된 「대동여지전도」에는 내포가 삼교천 하구의 지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구한말에 출간된 「대한지지」(玄采(편), 1899)에 삽입된 지도에도 내포가 아산만 연안의 지명으로 표시 되어 있다.

26) ‘忠淸則內浦爲上自公州西北可二百里有伽倻山西則大海北則與京畿海邑隔一大澤卽西海之斗入處東則爲大野野中又有一大浦名由宮津非候潮滿則不可用船南則隔烏棲山乃伽倻之所從來也只從烏棲東南通公州伽倻前後有十縣俱號爲內浦.(충청도에서는 내포가 좋다. 공주에서 서북으로 이백여리 떨어진 곳에 가야산이 있는데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의 해읍과 큰 펄(澤)을 두고 떨어져 있다. 서해가 쏙 들어간 곳이다. 동쪽에는 큰 들이 있고 들 가운데에 또 큰 개(浦)가 하나 있는데 유궁진이라 한다. 조수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다. 남쪽으로 오서산이 막혀있는데 가야산에 이른다. 동남쪽으로 공주와 통한다. 가야산 전후에 있는 열개 현을 합쳐 內浦라 부른다.’(「택리지」 팔도 총론 충청도조, 이익성(譯), 1992, 108-109)

〈그림 3-3〉 「大韓地誌」에 표기된 內浦



〈그림 3-4〉 내포 영역 인식의 변화



(3) 내포 지역권: 장시권

① 장시의 발생과 발전

가. 장시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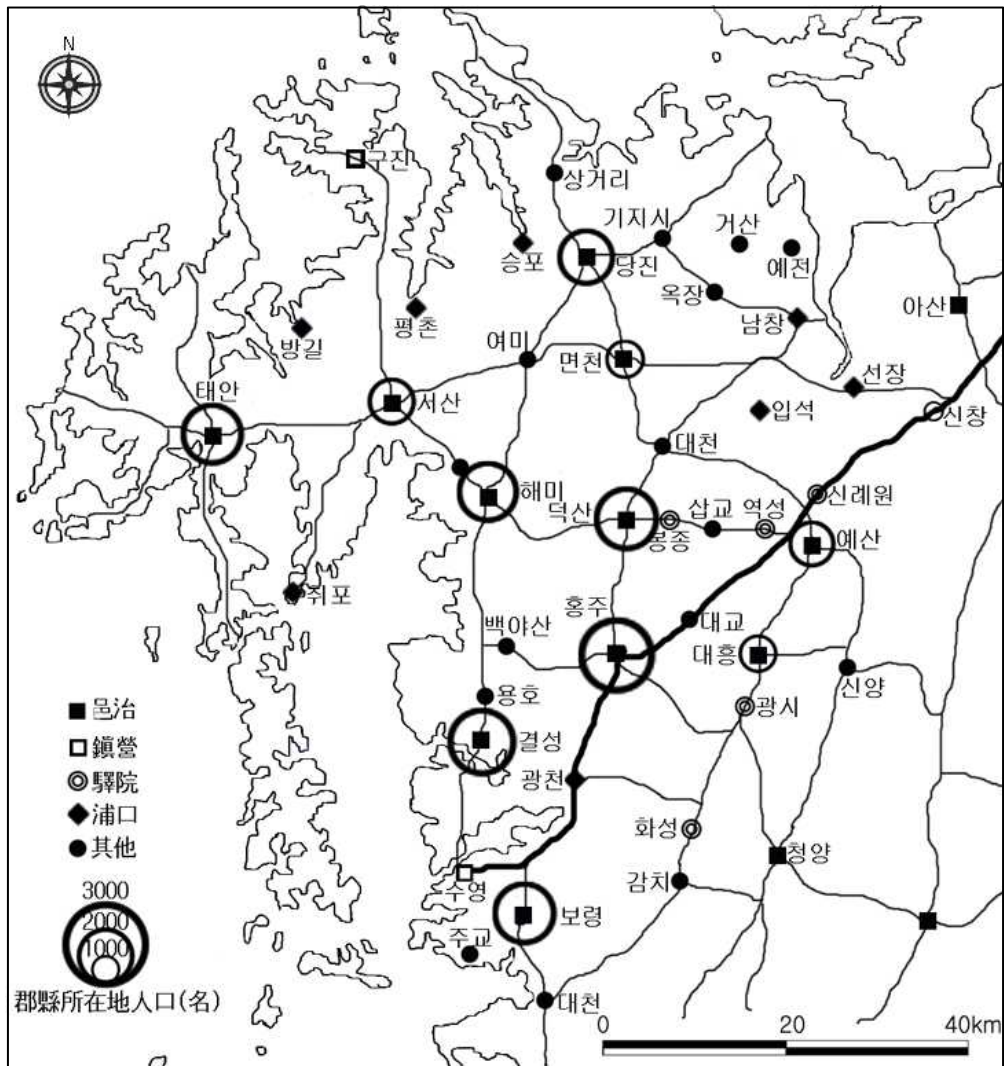
한국의 장시(場市)는 대체로 15~16세기경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장시의 형성은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관련이 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대체로 12세기부터 14세기 사이에 농업 기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의 하나인 휴경법에서 연작상경농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르러 장시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산지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내포는 일찍부터 농경지가 풍부하여 농업생산성이 높았다. 특히 홍성, 예산, 당진 등은 경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장시의 발달이 농업 생산성과 관련이 깊다고 볼 때 이와 같은 조건은 내포지역에 일찍부터 장시가 발달했을 가능성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충청도 지역에 장시가 형성된 것은 대략 16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였으므로²⁷⁾ 내포지역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장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장시의 발달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산이 풍부해야 하며 이를 소비할만한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매개하는 상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18세기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발달이 미약하여 하나의 시장이 최소요구치를 만족시킬만한 시장지역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매개하는 상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였다. 상인들은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오가며 물건을 중개함으로써 최소요구치를 만족시키는 시장지역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장시는 읍치나 진영(鎭營) 뿐만 아니라 역이나 원과 같은 교통의 중심지에 형성되었다. 내포에서도 역시 홍주, 덕산, 면천, 서산 등 주요 읍치의 소재지와 평신(구진)과 수영 등 진영의 소재지에 장시가 형성되었으며 신례원, 역성 등 역원의 소재지나 광천, 평촌 등 포구에 장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분포로 볼 때 18세기까지는 특별한 계층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7) 중종 11년(1516) 충청도 관찰사 권민수(權敏手)가 道內에 장문(場門)을 설치하겠다고 청한바가 있는 것(「중종실록」 권 27, 11년 12월 丁未)으로 보아 이때부터 충청도에 장시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곽호제, 2004).

〈그림 3-5〉 18세기 장시분포와 군현 소재지 인구



「동국문헌비고」 · 이현창, 1994 · 「호구총수」

〈표 3-3〉 18세기 후반 형성 원인별 내포 장시

구분	장 시
읍치	신창, 예산, 덕산, 대흥, 홍주, 면천, 당진, 해미, 결성, 태안, 서산, 보령
진영	구진(평신), 수영
역원	광시, 역성, 봉종, 신례원, 화성역
포구	선장, 남창, 입석, 평촌, 방길, 취포, 광천, 승포

나. 5일장의 성립

장시는 성립 초기에 한 달에 2회 내지 3회 개시되는 10일장 또는 15일장이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대부분 5일장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10일장이나 12회 개시되는 경우가 남아있었고 내포의 경우도 12회 개시장이 남아있었으나 대부분은 5일장으로 굳어졌다. 내포 장시의 개시일별 분포를 보면 <표 3-4>와 같다. 전체 43개 장시 가운데 5일장은 38개로서 전체의 약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4> 18세기 내포 장시의 개시일 분류

5일장						월 12회 개시장	계
1,6장	2,7장	3,8장	4,9장	5,10장	소계		
9	7	7	6	9	38	5	43

「동국문헌비고」

18세기 후반은 해방 이후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내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장시가 발달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장시간의 간격도 가장 가까웠던 시기로서 보통 20리~30리 정도의 거리에 장시가 형성되었다.

② 계층구조의 형성: 영역으로서의 장시권

가. 장시 수 및 개시일의 변동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면 장시의 성격은 또 한 번 크게 변화하게 된다. 상품이 증가하고 교역이 늘어나면서 大場이 형성되는데 이에 의해 小場이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적인 팽창에서 규모의 확대로 변화해 가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많은 수의 장시들이 상호연계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롭게 등장하여 국지적·지역적 범위의 시장권을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분산적으로 기능하던 벽지의 장시들이 폐지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읍치, 교역이 활발한 곳 등에 자리를 잡은 대장과 개시일이 같은 저차위 시장들은 개시일을 변경하거나 대장에 흡수, 통합되어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 시기의 시장들은 일종의 계층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정한 규모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장시의 수적인 증가 및 장시 내부의 질적인 발달은 대부분의 장

시가 5일장으로 통일 되어가게 하였으며 점차 지역마다 시장권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나. 시장권의 형성

이 시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시장권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²⁸⁾ 이전 시기에 이미 이러한 단초가 나타나기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서 시장권의 형성이 본격화되었다. 18세기 말부터 장시가 5일장으로 굳어지면서 10리~40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상인이나 농민들이 장시를 순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시일을 달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권은 주민의 요구와 상인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는 선에서 결정이 되었다. 시장권의 중심에는 대부분 대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시장권이 형성되었다.²⁹⁾

〈표 3-5〉 「임원십육지」(1830)에서의 장시망

개시일 중심 장시	1,6	2,7	3,8	4,9	5,10
보령	홍주	수영	대천	청양	결성
	보령	웅암	용호	광천	광시
	감장				
서산	여미	서산	태안	서산	구진
	취포		대교		해미
면천	기지시	당진	기지시	당진	삼거리
	여미	면천	대천	예전	
	범근천				
홍주	홍주	덕산	대천	봉종	해미
	감장	백야	대교	광천	광시
		결성	용호		결성
예산 (덕산)	범근천	면천	기지시	봉종	예산
		덕산	대천	선장	
	삼교		입석	신례원	

건설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2003·이현창, 1994, 재구성

* 진한 색으로 표시된 장시는 두 개 이상의 시장권에 포함되었던 장시를 나타냄

28) 시장권이란 일정한 범위내에서 4~5개의 장시가 개시일을 달리하여 그 지역 내에서 상품 거래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한상권, 1981).

29) 여기서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대부분 시장권의 중심이 되는 장시는 읍치에 형성된 장시였다. 즉, 홍주, 예산, 서산, 면천, 해미, 덕산, 당진, 보령 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세력권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일부 세력권을 공유함으로써 내포 전체에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한 홍주를 중심으로 내포의 다섯 개의 시장권이 내포 전체를 아우르는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장권은 각기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었으나 해당지역에서 부족하거나 많이 생산되는 상품을 인접한 시장권과 교류함으로써 내포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당시 내포의 영역이 신창에서 보령에 이르는 지역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권을 기준으로 볼 때 내포가 하나의 '결절지역'으로 기능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내포의 보부상 조직과 활동 범위

보부상은 시장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조직이었다. 조선후기 지방 상업은 주로 장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 장시를 경제적 존재 기반으로 삼아 활동하던 전문 상인들이 보부상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조직화되어 충청남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보부상 조직은 세 개에 달하였다. 예산·덕산을 중심으로 예산·덕산·당진·면천권에서 활동했던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 홍주·광천을 중심으로 홍주·결성·보령·청양·대흥권에서 활동했던 원홍주육군상무사(元洪州六郡商務社), 그리고 한산·서천을 중심으로 부여·정산·홍산·비인·임천·남포권에서 활동했던 저산팔구보부상단(苧産八區褓負商團)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특별한 조직을 형성하지는 않았으나 아산·평택·온양·신창권을 무대로 활동하던 보부상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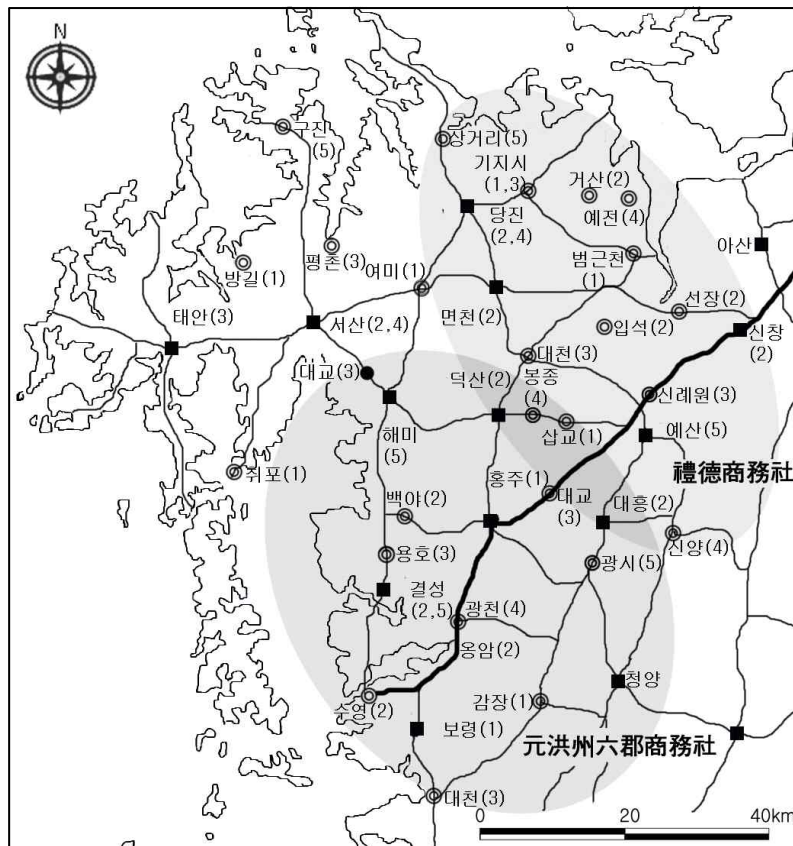
보부상 조직의 활동권은 모두 당시 홍주진관 관할권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이 되었다. 이 가운데 저산팔구보부상단은 공주진관 관할에 속했던 한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내포의 영역을 벗어나는 활동 범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내포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던 보부상 조직은 예덕상무사와 원홍주육군상무사였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19세기 당시의 내포와 관련된 장소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의 존재는 19세기 당시에 적어도 5~6개 군현을 포괄하는 유통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19세기 중반에 조직화되어 내포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 보부상 조직인 예덕상무사는 예산, 덕산을 중심으로 당진, 면천지역까지를 활동 무대로 하였다. 19세기 말 전성기에는 예산을 근거지로 면천의 기지시, 당진의 상거리까지 세력을 확대하여 예산, 당진을 중심으로 홍성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윤규상, 2000). 내포지역의 또 하나의 보부상 조직이었던 원홍주육군상무사는 홍주를 중심으로 광천, 보령, 대흥, 결성, 청양 등을 활동 무대로 하였다. 한성부공문에 의거하여 1851년 창설된 원홍주육군상무사는 활동 영역이었던 다섯 개 읍에 임방을 설치하고 소속 행상들을 관리하였다(임동권·정형호·임장혁, 2006).

또한 이들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적었던 지역범위를 활동권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형적으로 큰 장벽이 있거나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은 활동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내포에서 활동했던 두 개의 보부상 조직의 활동권은 차령산지나 아산만 같은 지형적 장벽에 의해 내포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부상단의 활동권과 구분되고 있었다. 즉, 이들의 활동권은 내포지역 전역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였지만 내포지역을 거의 벗어나지는 않았다. 예덕상무사와 원홍주육군상무사 두 보부상 조직은 각각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일부 세력권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내포의 핵심지역을 세력권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그림 3-7〉 19세기 내포지역 보부상의 활동범위



라. 내포의 공간구조

내포 영역 인식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역이 지역 내부의 주민들보다는 외부인의 시각에 의해 먼저 인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내포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은 한결같이 지역의 특성이나 풍습 등에 대한 언급보다는 조운이나 국방, 한양 사대부들의 가거지 등으로 주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내포는 내포를 정의했던 외적인 조건들, 예를 들면 왜구 침입의 증감이나 조운제도의 변화, 또는 한양사대부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변화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영역 범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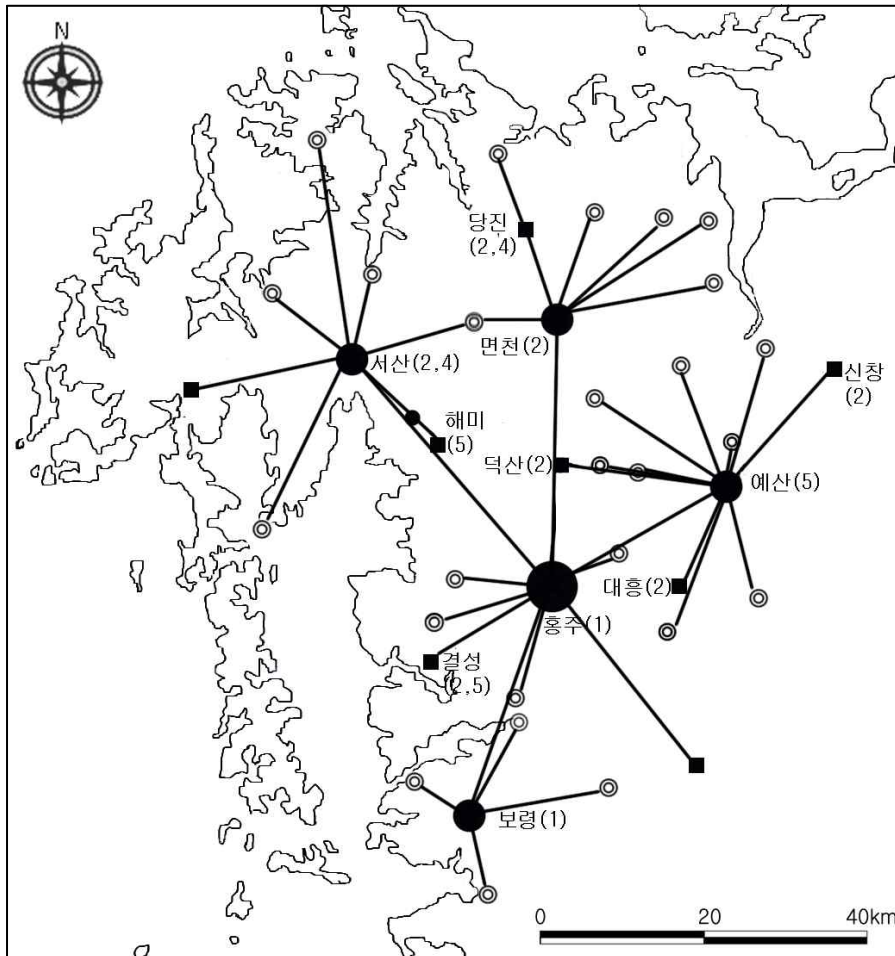
또한 내포의 영역은 조선시대 행정구역과도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진관체제상 홍주진관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³⁰⁾이 대체로 내포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시기와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행정구역체계의 변동도 내포의 영역적 형상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임병조, 2008).

이러한 원인에 의해 구획된 내포의 영역적 형상은 장시권을 통해서 잘 확인이 된다. 내포에 장시가 등장한 것은 16세기경으로 충청도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곽호제, 2004). 그러나 18세기 이전까지 내포의 장시는 교류범위가 인접지역에 한정됨으로써 지역 간의 연계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내포 전체를 포괄하는 장시권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장시는 주로 읍치와 진영 등 행정, 군사 치소와 역원 등 교통의 중심지에 분산적으로 발달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大場의 형성과 이에 따른 소장의 흡수로 시장들 간의 계층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대장을 중심으로 시장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각각의 시장권은 대략 40리 안팎의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세력권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일부 세력권을 공유함으로써 내포 전체에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었다(김대길, 1997). 따라서 지리적으로 내포의 가운데에 위치한 홍주를 중심으로 내포의 다섯 개의 시장권이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범위는 신창에서 보령에 이르는 차령산지 서부지역으로 내포 전체를 아우르는 범위였다.

30) 홍주병마첨절제사(홍주목사), 병마동첨절제사(면천군수, 서산군수, 서천군수, 온양군수, 태안군수), 병마절제도위(홍주판관, 결성현감, 남포현감, 당진현감, 대흥현감, 덕산현감, 보령현감, 비인현감, 신창현감, 아산현감, 예산현감, 청양현감, 평택현감, 해미현감, 홍산현감)

〈그림 3-8〉 시장권에 근거한 19세기 내포의 공간구조



2) 상징적 형상의 형성

(1) 자연지리적 상징

① 차령산지와 가야산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갖는 지리학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의 제약을 크게 받았던 과거로 갈수록 인간생활을 고려할 때 환경의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야만 했다. 근대 이후 환경을 극복하는 인간의 능력이 진보를 거듭

해 왔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기술적으로 환경적 제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이는 한 때 인간 생활에 대한 환경의 역할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환경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어울려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환경은 인간 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밑그림이다. 그러므로 지표의 현상에 관심을 갖는 지리학 연구에 있어서 자연적 배경에 대한 탐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역연구에 있어서는 경계선의 설정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때 인위적인 경계 대신에 어느 정도는 불변의 성격을 지닌 산맥과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구분하고 그 산맥과 하천으로 경계 지워진 지역 안에서의 동질성을 전제로 지역을 연구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한 한반도는 지질구조의 외적 표현인 지형적 조건 역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형적 조건들은 지역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다양한 크기와 모습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내포 역시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연지리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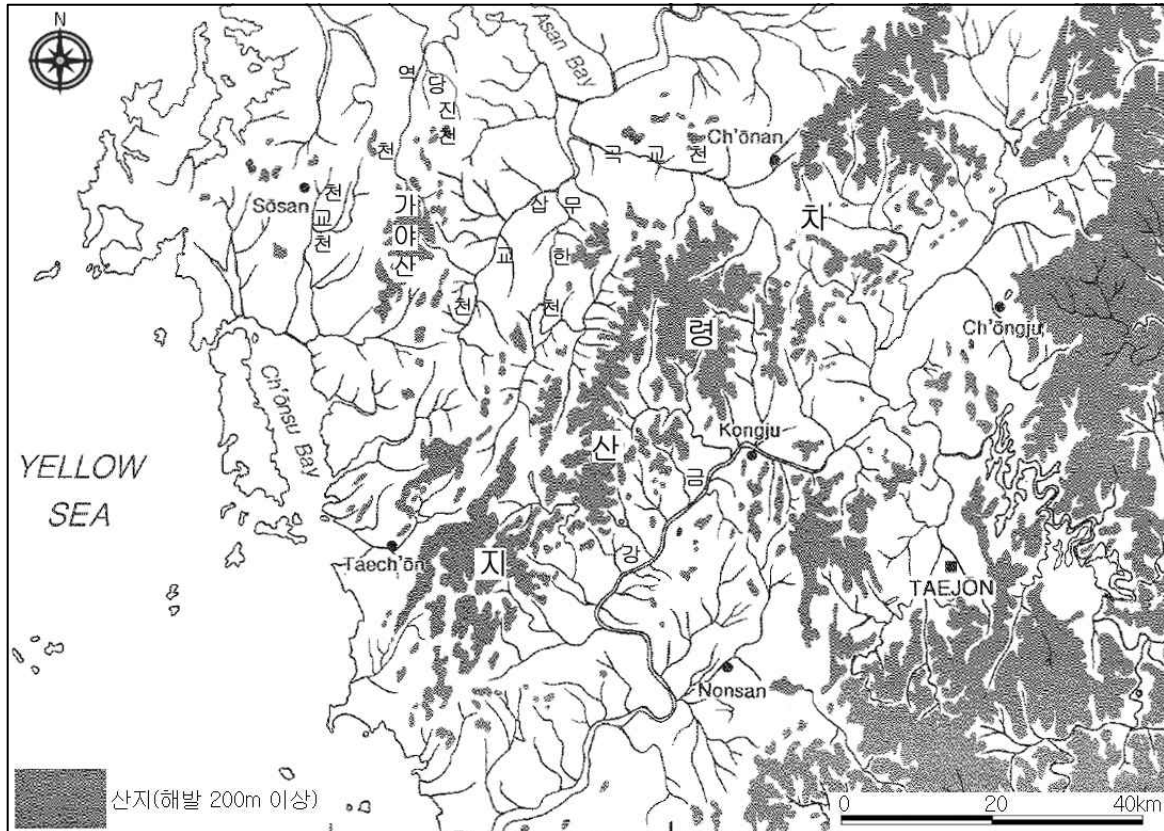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내포지역은 전체적으로 해발 200m 이내의 저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동부의 차령산지는 비교적 연속성이 강한 200m 이상의 산지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서부지역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오서산과 서쪽으로 팔봉산, 백화산 등의 고립성 산지들과 태안반도가 분포하고 있다. 동부 차령산지는 대략 NE-SW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서부의 가야산지는 NNE-SSW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내포를 주변지역과 분리함으로써 동질적 문화요소가 만들어지고 내부적 결집성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내포는 차령산지를 경계로 충청도의 동부지역(금강유역)과 구별되며 아산만을 경계로 오늘날의 경기도 지역과 구별된다. 이외의 지역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내포는 지형적으로 하나의 섬과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내포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가야산은 연속성은 약하지만 내포의 분수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9>와 같이 가야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삼교천이 아산만으로, 북쪽으로는 당진천과 역천이 당진만으로, 서쪽으로는 천교천이 천수만으로 각각 흘러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하구가 발달하고 있다. 가야산은 여러 하천의 분수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속성이 약한 산지이기 때문에 내포 지역 내에서 지역을 나누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내포 지역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림 3-9〉 내포의 지형



한국자원연구소, 1996

서부 가야산지와 동부 차령산지 사이를 흐르는 삼교천과 무한천 유역에는 두 하천의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예당평야가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야산 서쪽은 가야산에서 태안 백화산에 이르는 화강암 산지를 가운데에 두고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편마암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산지와 오랜 침식으로 평탄해진 구릉지대가 발달하고 있다. 차령산지는 편마암 산지로서 예당평야 일대에 풍부한 영양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당평야 일대는 비옥하고 넓은 경지를 이루고 있어서 예로부터 주요한 삶의 터전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내포는 조선시대부터 토질이 비옥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³¹⁾ 이러한 조건은 육로를 통한 내포의 내부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31) '충청도의 내포와 전라도의 만경 등 비옥한 곳은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라 일컬으나...'('세종실록' 권74, 18년 7월 甲寅)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차령산지는 연속성이 강하여 내포의 지형적 경계 역할을 한 반면 가야산은 내포의 여러 지역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산지를 중심으로 내포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야산 주변의 십여 개 고을'이라는 「택리지」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인 내포에 대한 정의인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야산은 내포의 대표적인 자연지리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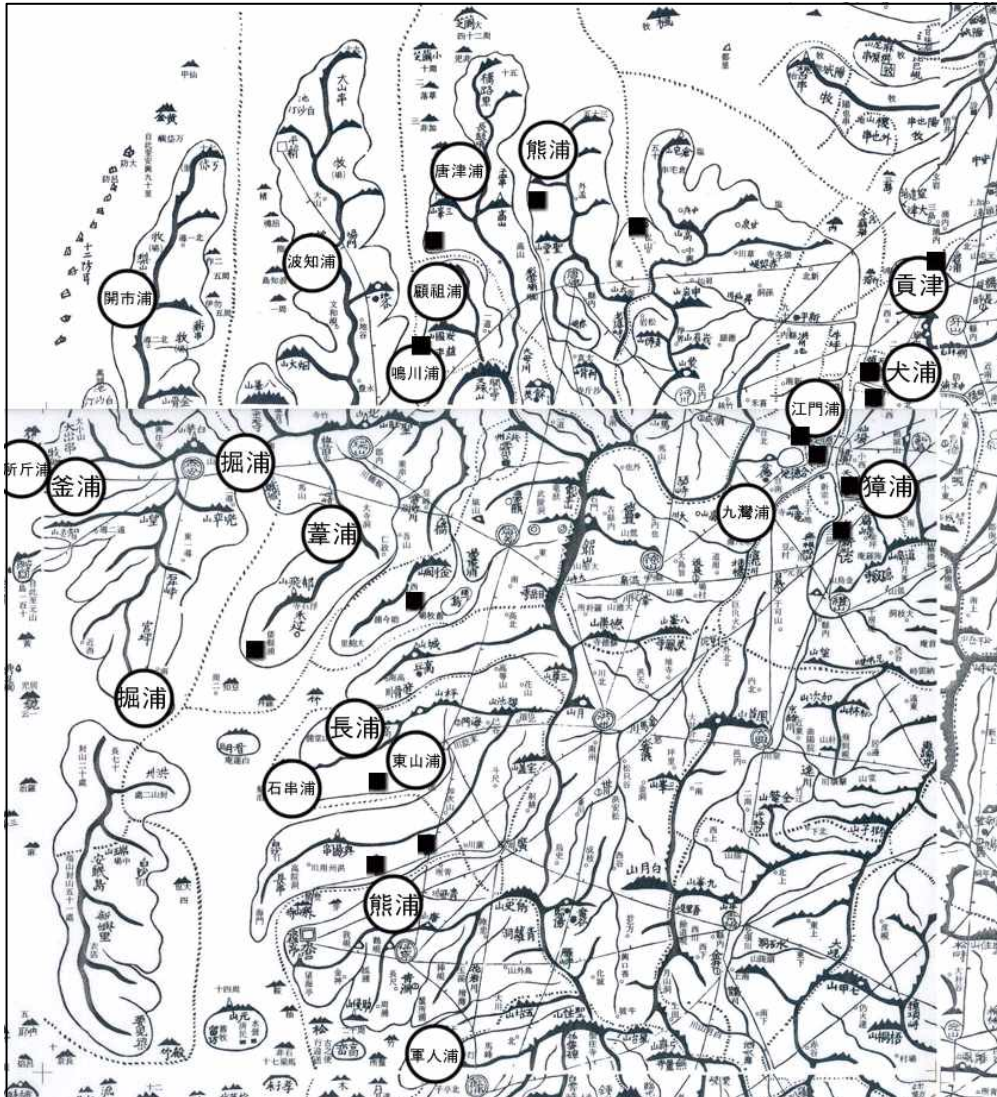
② 안개(內浦)의 발달

내포 전체가 복잡한 지질구조와 오랜 침식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지형을 이룬 가운데 해안 지역은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전형적인 리아스(rias)식 해안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해안선이 매우 불규칙하게 발달하여 크고 작은 만과 감조권이 깊은 하구를 형성하고 있다. 만과 감조권이 깊은 하구를 일컬어 '안개'라 하였으며 이것의 한자식 표현이 내포(內浦)이므로 내포라는 지명의 출발은 내포 전 지역에 발달한 '안개'라고 볼 수 있다. 즉, 지형적 특징을 표현한 일반 명사가 지명으로 정착을 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과거 해안에 인접한 저습지의 개간이 불가능했던 시기에는 주요한 지형적 장벽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아산만으로 유입하는 삼교천이나 안성천의 하구는 배가 없으면 통행이 어려운 지형적 장벽이었다. 반면에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내륙수로의 활용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내륙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자리를 잡은 포구가 많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내포 내부의 연결성을 높여서 동질적 문화를 형성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내포의 대표적 하천인 삼교천과 무한천은 북쪽의 아산만으로 유입하여 내포를 한양이나 경기도와 연결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삼교천은 유역분지의 총면적이 1,619km²에 불과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하천이지만 만조시의 가항 수로는 해안으로부터 28Km에 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덕산의 구만포(九灣浦)는 삼교천과 무한천의 합류지점으로부터 삼교천을 따라 10여리 이상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다. 구만포는 내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염이 교환되는 곳으로 아산만 일대의 포구 가운데 가장 내륙에 위치한 포구였다. 한말에 오페르트 일당이 남연군묘를 도굴하기 위하여 상륙했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은 방언, 시조, 민요, 유교문화, 천주교 문화 등 다양한 문화요소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이들 문화요소는 일부, 또는 상당부분 경기도나 한양의 영향을 받아 내포의 문화가 혼합지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었다.

〈그림 3-10〉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내포의 포구와 창고



따라서 내포지역에 발달한 수많은 ‘안개’는 가야산과 함께 내포의 대표적인 자연지리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2) 문화·역사지리적 상징

① 상징으로서의 방언

가. 충청남도내의 방언권

충남 방언은 어휘나 어법에서 지역 간에 크고 작은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보다 미시적인 고찰에 의하여 세밀하게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수희(1987)는 충청도 방언권을 독자적 방언권으로 설정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다시 하위 방언권으로 구분함으로써 독자적인 방언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충청지역을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서북부와 동남부로 대분한 다음 이의 하위구분으로 방언권을 다음의 세 개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경기어(중앙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잡고 전자를 동북부 지역(C역)으로 후자를 동남부 지역(A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A역 : 서천, 보령, 부여, 청양, 공주, 논산, 대전, 금산, 옥천, 영동

B역 :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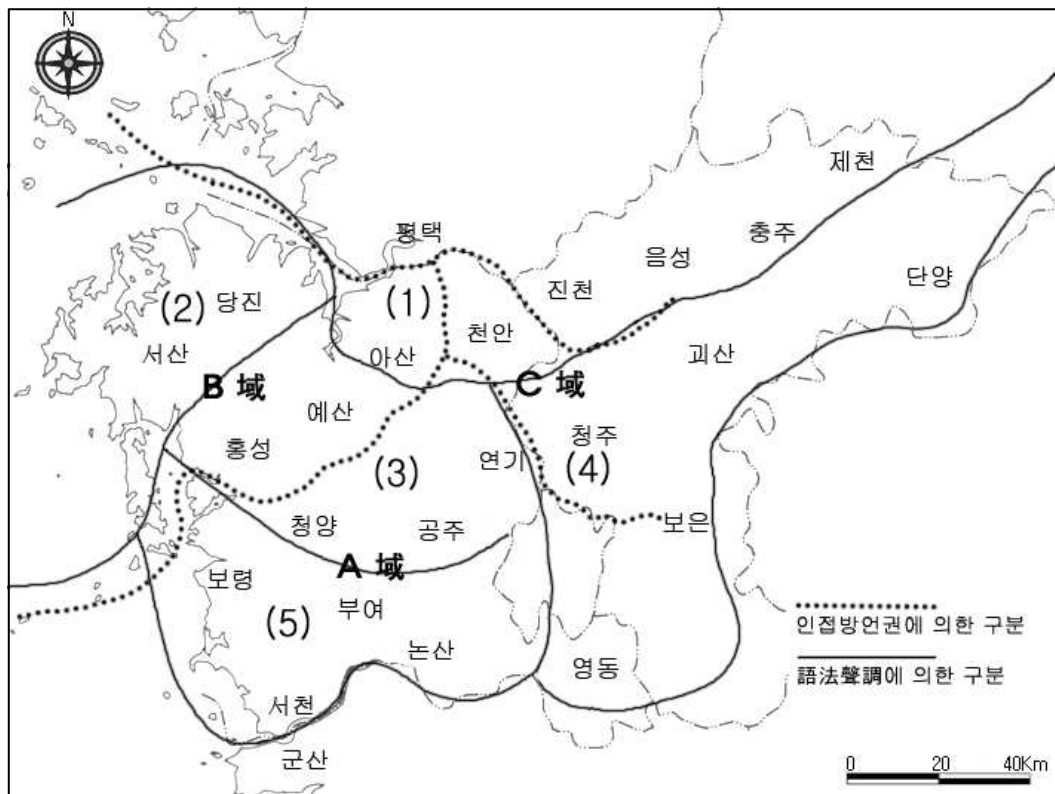
C역 : 천안, 청주, 청원

A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전라도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권역 가운데 보령 이남의 해안 지역은 전라도 방언의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 B역은 A역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전라도 방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권역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은 C역과도 구별이 된다. 즉 B역은 전라도 방언과 경기도 방언의 중간지대에 해당하므로 상대적으로 독특한 방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학근(1976)은 어법을 기준으로 충청도방언군을 세분하였다. 첫 번째는 경기지역의 어법과 유사하며 충청방언의 어법과는 일부(‘뭐하냐?’, ‘그러세유?’ 등)만 일치하는 지역으로 천안, 온양, (평택)이 포함되는 지역이다(1). 두 번째는 ‘-유?’의 사용이 매우 다양하며 ‘머하간?’, ‘머하냐?’(‘뭐 하는가?’), ‘빨리 오:노!’, ‘빨리 오:너!’(‘빨리 오거라’), ‘뭐 할라구:나?’, ‘뭘라구:나?’(‘뭐 하려고 하는가?’), ‘일 항게비다!’(‘일하는가보다!’) 등이 많이 활용되는 지역으로 당진, 서산, 태안 지역이다(2). 세 번째는 예산, 홍성, 청양, 공주지역으로 (2)지역과 마찬가지로 ‘-유?’가 많이 쓰이며 ‘멍넌다:나?’(‘먹더냐?’), ‘인넌다:나?’(‘있더냐?’) 등이 특색이며 ‘그런다’(‘그런데’), ‘하는다!’(‘하는데’), ‘그러니까!’(‘그러니까’), ‘허니까!’(‘하니까’), ‘머한다냐?’(‘뭐하는가?’) 등을 사용하여 그 성조와 더불어 전라도방언의 영향이 약간 나타나는 지역이다(3). 네 번째 지역은 ‘-유’의 사용이 적고 ‘간디야?’(‘간다던가?’), ‘갈티여!’(‘가겠따!’), ‘그려! · 그랴!’(‘그렇게 해라!’) 등이 쓰

이지만 대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방언이 잡다하게 섞인 지역으로 대전, 연기 등이 포함되는 지역이다(4). 다섯 번째는 부여, 보령, 서천, 논산 지역으로 ‘-유?’의 사용이 심하고 연결어미 ‘-데’를 ‘-다’(‘알간다:’, ‘허능가빈다:’, ‘있간다:’)로 발음한다. ‘그랑께 말이여’, ‘있든디 말이여’ 등 일반적인 충청방언과는 다른 말들이 많이 쓰이고 ‘그렇게’(‘그러니까’), ‘할랑께’(‘하러니까’) 등 축약과 ‘그리 했시야’(‘그렇게 했어’), ‘그러문서’·‘그럼시룽’(‘그러면서’) 등을 사용하여 전라도방언의 영향이 큰 지역이다(5).

〈그림 3-11〉 충청도 방언권



도수희, 1987 · 최학근, 1976

나. 내포 방언의 특징

내포지역은 충청남도 방언권 가운데 인접 방언권인 전라도 방언권과 경기도 방언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지역으로 두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포 방언은 다른 방언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독특한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이루어진 향토연구를 통하여 내포지역 방언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포 방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점과 고행의 어휘가 남아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내포 방언은 쉽게 발음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축약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마을-말, 고을-골, 주인-쥬, 높은 밥-눈밥, 세우기-세기, 귀여운-귀연, 때문에-때미, 거기로-그루, 모여-뫼, 몰라유-물류, 들어와요-들와유’ 등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축약된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음성모음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는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되는 사례이지만 내포의 경우는 특히 ‘ㅏ’→‘ㅣ’의 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나물-너물, 남-넙, 하다-허다, 까불다-꺼불다, 하여간-허여간’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ㅣ’모음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먼저 ‘ㅏ’, ‘ㅑ’를 ‘ㅣ’로 대체하는 경우인데 ‘같아요-같이유, 했어요-했이유, 있을거요-있을끼유, 구렁이-구렁이, 저-지’ 등이 있다. ‘ㅓ’를 ‘ㅣ’로 대체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메뚜기-메띠기, 죽이다-직이다’ 등이 있다. 또한 ‘ㅔ’를 ‘ㅣ’로 대체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세살-시살, 네 살-니살, 세수-시수, 그런데-그런디, 할텐데-할턴디, 집에-집이’ 등이 있다. ‘ㅡ’를 ‘ㅣ’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리다-디리다, 들려주다-디려주다’ 등이고 ‘ㅛ’→‘ㅣ’(닭의 똥-달기 똥, 이웃의 노인-이우지 노인), ‘ㅜ’→‘ㅣ’(뒤주-디지, 멧취-메찌) 등의 경우도 나타난다. ‘ㅣ’모음은 전설모음(前舌母音)이며 고모음(高母音)이기 때문에 가장 발음이 쉬운 음이다. 내포에서는 발음이 어려운 모음들을 가장 발음이 쉬운 ‘ㅣ’모음으로 대체해 버리는 경제성을 선택한 것이다.

내포 방언의 두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고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개(犬)-가히·가이, 뱀-비암, 게(蟹)-그이, 돼지-도야지, 새끼-사내끼, 소경-소이경, 묘-모이’ 등이다. ‘ㅅ’이 ‘ㅆ’으로 살아있는 경우도 많은데 ‘가(邊)-가시’ 같은 경우가 있다.

끝으로 특수한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는데 ‘모르다-몰르다, 날아오다-널러오다, 다르다-달브다’ 등의 사례가 있다.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의 방언은 발음이 길고 말꼬리를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포 방언은 특히 발음 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길고, 어감이 부드러운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종결 어미가 표준어의 ‘~했대, ~하니까, ~해보니까, ~했나?, ~않은가요?, ~했습니까, 못해, ~부터, ~까지’ 대신에 ‘~했디야, ~허니까, ~해보니까, ~했남?·했

다나?, 앓남이유?, 했이유?, 못히여, ~버텨, ~까정' 등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 내포 방언권의 설정

내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충청남도 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내포 방언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규명된 내포 방언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앞에서 논의한 내포 방언의 전반적인 특징과 부합하는 낱말을 시·군지와 향토자료를 통해 모두 45개를 추출하였다. 추출 방법은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가장 내포 방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곳으로 알려진 태안군, 서산시, 당진군 중에서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서산시를 잠정적인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서산시는 경기도나 전라도 방언의 영향을 적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차령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충청남도 지역의 방언과도 차별성이 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서산시 방언을 기준으로 인접지역인 홍성군, 태안군, 예산군, 당진군의 방언과 비교하여 공통적인 방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낱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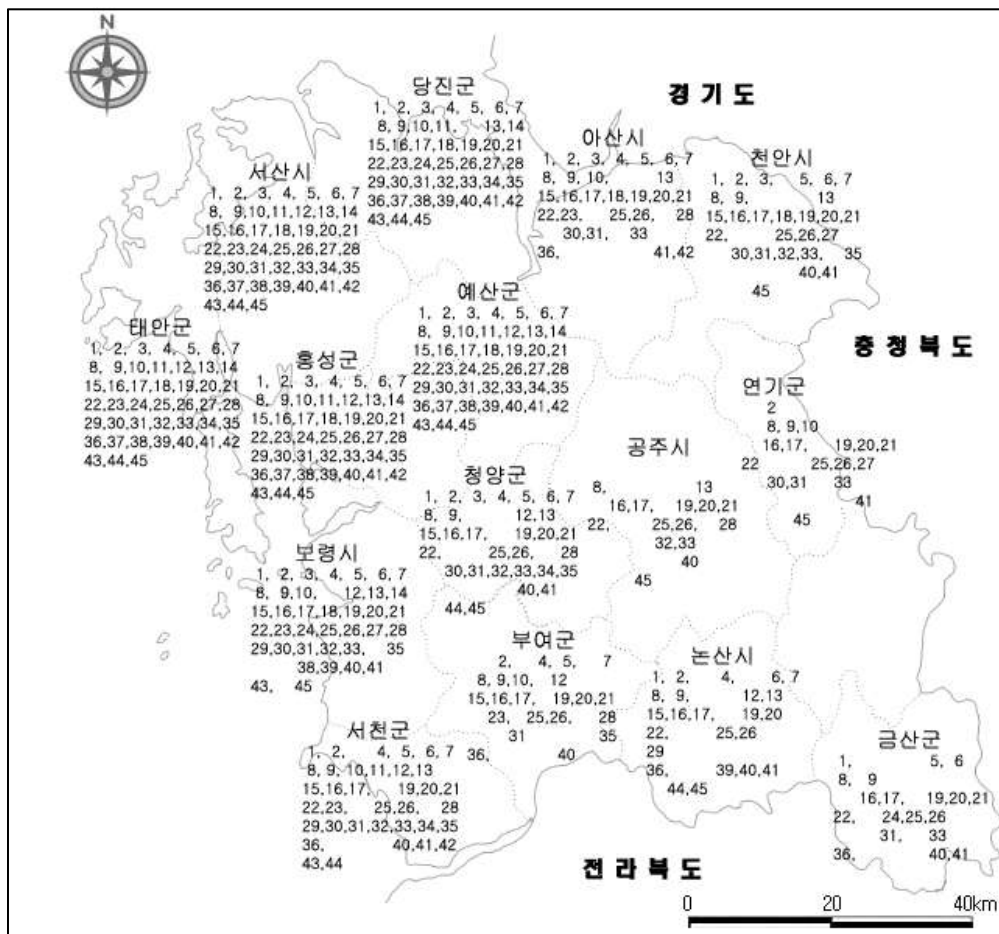
- 언어의 경제성 : 1널(내일), 2그류(그래요), 3물류(몰라요), 4호랑(호주머니)
- 음성모음화 : 5~허여(~해), 6널러가다(날아가다), 7너물(나물)
- ‘ㅣ’모음화 : 8근디(그런데), 9자장거(자전거)
- 특수한 어휘 : 10빼비(빨기), 11호섭다(탈 것을 타면서 즐겁다), 12텨쎄(도리어), 13자그매(어지간히), 14글갈다(콩심다), 15그머리(거머리), 16깨금박질(외다리 뛰기), 17노다지(늘, 항상), 18과줄(한과), 19싸게(빨리), 20께까드럽다(까다롭다), 21위디(어디), 22씨부렁거리다(군소리하다), 23왁새(억새), 24시절(철부지, 훈수), 25멸국(국물), 26말가웃(한말 반), 27부르쌈(상추), 28거편거편(가볍게), 29나래(이영), 30따깡(뚜껑), 31보새기(보시기), 32술꺄(떨어진 술잎), 33꺄이(꺄이), 34소당(술뚜껑), 35얼맹이(어레미), 36까닥(결판), 37구락쟁이(아궁이), 38모꺄이(모서리), 39광밥(튀밥), 40즙신(점심), 41어덕배기(언덕), 42포강(작은 둌병), 43헛꺄(헛일), 44꺄겨(조끼), 45옥수꺄이(옥수수).

다음에는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시·군별로 1명씩 선정하여 선정된 사람을 상대로 추출한 낱말의 사용 여부를 질문하였다. 선정된 각 지역의 주민이 해당 시·군의 완벽한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모두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으로서 내포지역과의 차별성을 규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각의 낱말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지도화한 결과는 <그림 3-12>와 같다.

내포의 다섯 개 시·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이한 어휘는 내포 이외의 충청남도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특히 차령산지를 경계로 충청남도의 동남부 지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이 내포에 포함되는 아산시와 보령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령시는 45개 어휘 가운데 5개를 제외한 모든 어휘가 사용되어 내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아산은 16개 어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내포방언이 경기도방언보다는 전라도방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결과로 보인다. 내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서천군이 모두 36개 어휘가 일치하여 내포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다.

<그림 3-12> 내포 방언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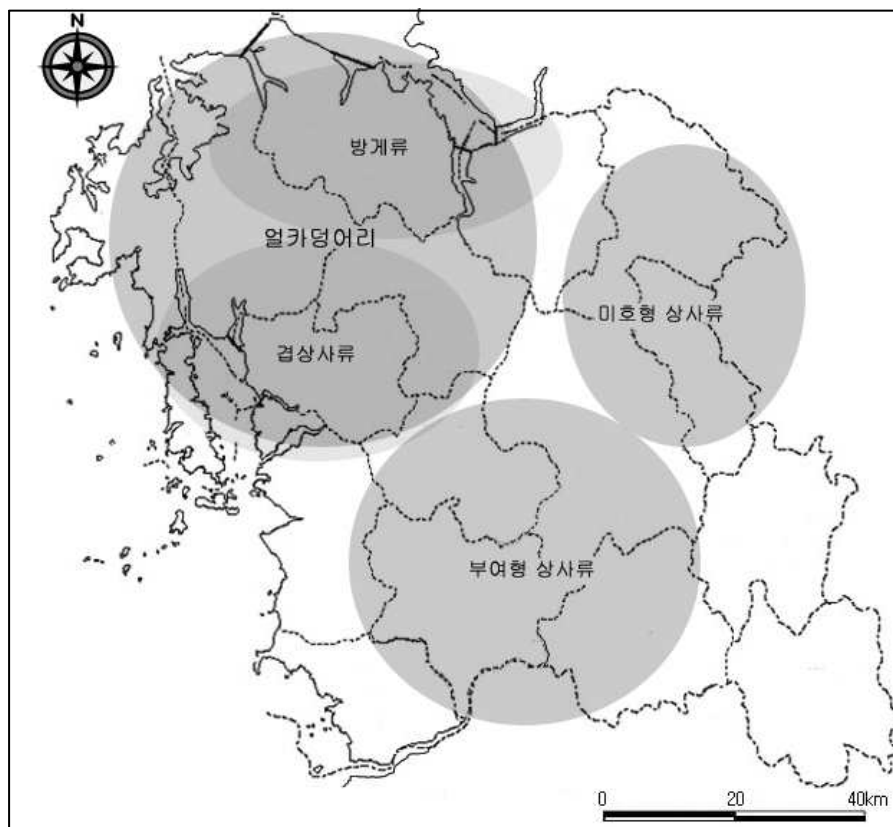


② 민요와 시조-내포 문화의 계급적 이중성

가. 민요

한국의 전통 민요는 농업과 관련된 노동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벼농사와 관련된 노래가 많이 전하고 있다. 벼농사는 육체적으로 힘이 들 뿐만 아니라 협동 노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른 것이다. 내포지역 역시 다양한 종류의 벼농사요가 전하고 있으며 '결성 농요'처럼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벼농사요도 있다.

〈그림 3-13〉 모심기 노래 및 논매기 노래의 분포



배동순(2000); 인권환 외(2000); 이소라(1990); 충청남도(2004)

내포지역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벼농사요는 모심기 노래와 김매기 노래이다. 이 가운데 논매기 노래는 내포 전 지역에 걸쳐 ‘얼카 덩어리’라는 유사한 유형이 나타난다. 얼카덩어리는 내포의 서북부 지역에 두루 전해지고 있으며 주변으로 가면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얼카덩어리는 내포지역이 본고장으로 볼 수 있으며 내포지역을 동질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김매기 노래와는 달리 내포의 모심기 노래는 크게 상사류와 방계류로 나눌 수 있다. 내포지역내 방계류의 분포지역은 경기도와 인접한 아산만 일대이고 상사류의 분포지역은 전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남부 지역으로 내포문화의 혼합지대적 성격을 잘 말해준다. 따라서 방언과 함께 민요는 내포문화의 혼합지대적 성격을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민요는 방언과 함께 내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중문화 요소로서 가야산 주변지역에서 가장 강한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나. 내포제 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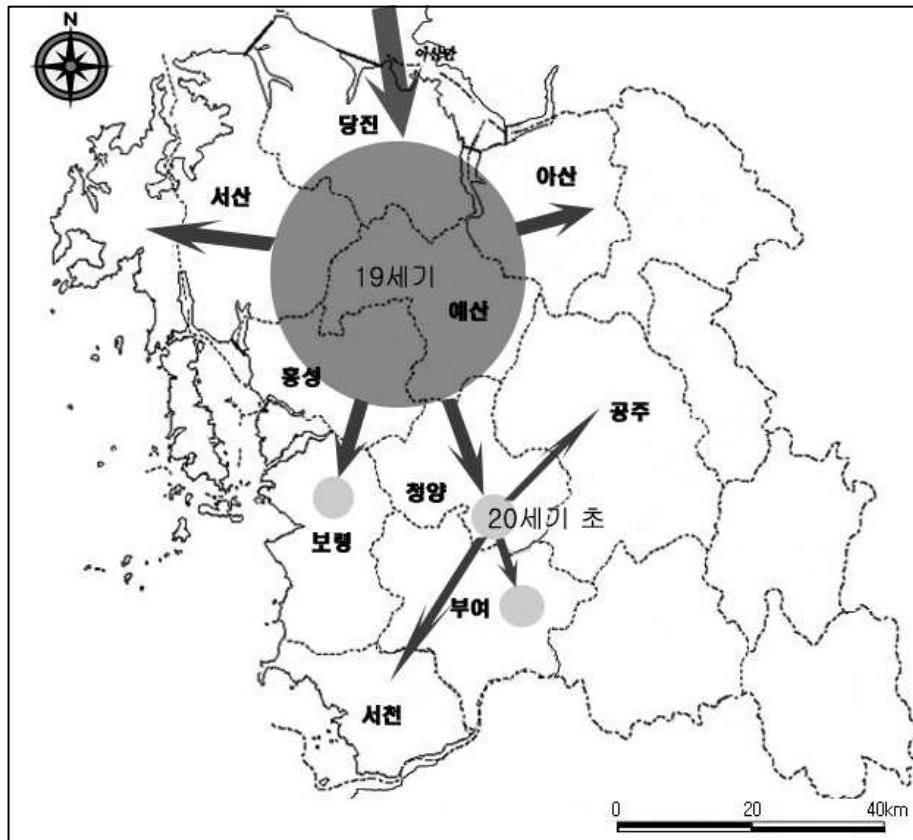
內浦制 시조는 내포지역의 문화요소 가운데 유일하게 ‘내포’라는 이름이 붙은 문화요소이다. 京制에서 파생된 시조의 유형으로 당진, 예산 등 아산만 인접 지역에서 탄생하였다. 초기 발생지역이 한양·경기지역과 인접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산만 인근에서 발달한 내포제 시조는 19세기 경 내포 전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내포지역을 넘어 충청남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내포제 시조는 아산만과 인접한 지역(예산군, 홍성군)을 핵심지역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문화요소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내포’라는 이름이 사대부 문화인 시조의 이름으로 붙여졌다는 사실은 내포가 일반 민중보다는 양반 사대부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던 지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포의 양반문화가 조선시대 한양과의 접근성을 배경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내포제 시조는 내포가 조선시대에 동질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지역이었음을 말해주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민요와 시조는 계급적 배경을 달리하는 문화요소이다. 공통적으로 내포를 동질지역으로 정의할 때 유효한 문화요소이지만 형성과정과 분포범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의 계급적 차별성은 조선사회의 특징이었으나 내포의 경우처럼 같은 지역내에서 뚜렷한 성격차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내포는 문화의 형성과정 및 분포에서 계급적 이중성이 비교적 잘 드러

나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내포에는 벼농사와 관련된 민요와 내포제 시조가 가야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공통점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내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적 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4〉 내포제 시조의 확산과 분포



이규원(1995); 예산문화원(1994); 청양신문(2001.5.20)

③ 사대부의 가거지-近畿圈으로서의 내포

조선시대 초기까지 내포는 유력한 토성이나 거족의 분포가 많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들이 많은 곳’으로 일컬어졌다는 것은 조선 초기 이후 내포의 특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내포에 ‘한양 사대부’들이 근거지를 마련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대략 조선 중기부터였다. 이러한 사실은 공신이나 왕가, 왕실의 척족 등 조선시대 고위 계층의 분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내포에 자리를 잡은 이들의 절대 수는 많지 않았으나 이들의 이주, 정착은 조선 중기인 임진왜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이 선호한 지역은 내포의 외곽, 즉 해안에 가까운 곳으로 이들은 내포에 자신들의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 한양과의 연결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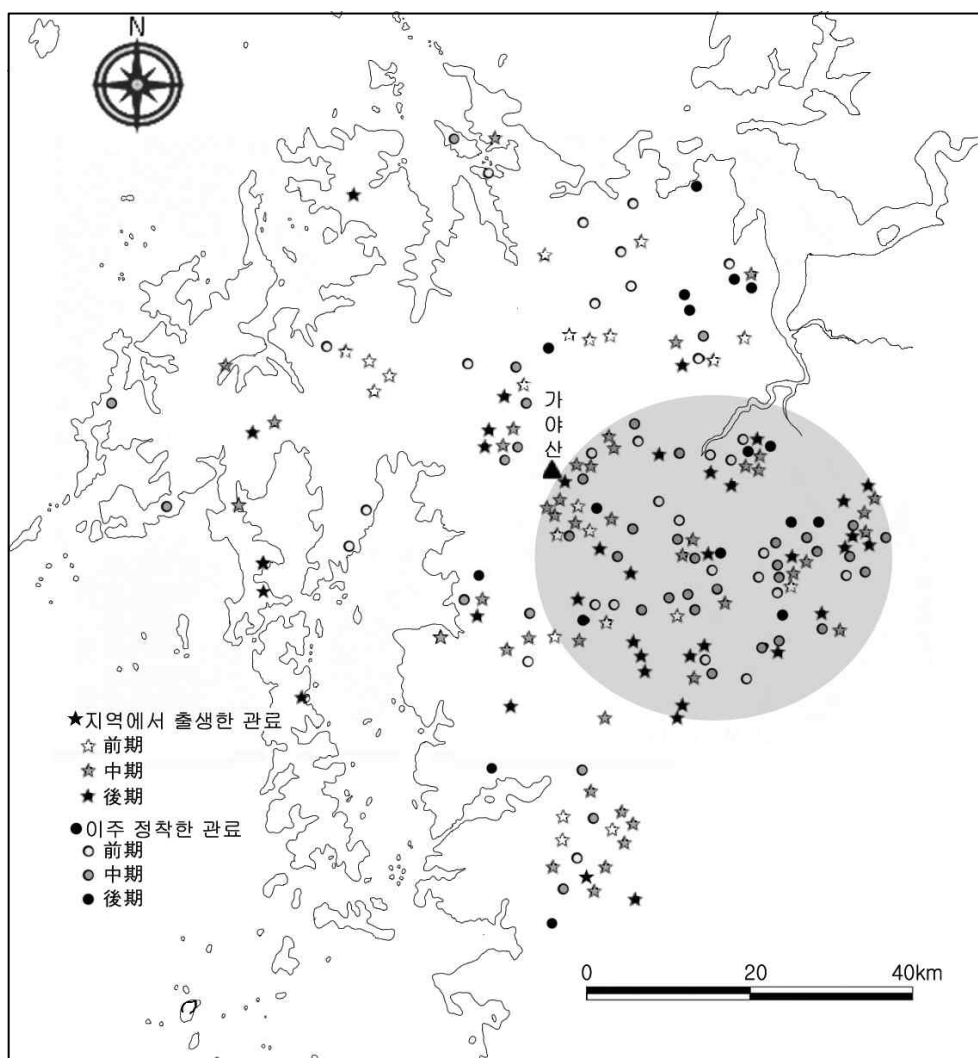
내포 사대부들의 정치적 경향성도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지표가 된다. 정치적 경향성은 서원, 또는 사우에 제향된 인물이나 건립주체의 당색을 알아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내포의 서원이나 사우는 서인계가 우세한 가운데 서인계 내에서도 노론계와 소론계가 혼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남인계나 북인계까지 제향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원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포 사대부의 정치적 결집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원 가운데 사액을 받은 비율이 매우 높아 내포의 사대부들이 중앙 정부와의 유대관계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포 사대부의 지역별, 시기별, 출생·이주별 분포를 살펴보면 내포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의 분포는 생원, 진사시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과 각 시·군지에서 확인되는 관료들의 신상정보로 확인된다. 먼저 지역별 분포에서는 「사마방목」에 기재된 생원, 진사시 합격자는 홍주, 보령, 서산 등에 많은 분포를 보였다. 홍주가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였던 것은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다. 인구 크기에 비해 많은 합격자를 낸 보령은 오랫동안 세거를 해 온 유력 가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산, 대흥, 덕산 등 아산만과 인접한 지역은 후기로 가면서 합격자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군지를 통해 확인되는 실제 관직에 진출한 관료의 분포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아산만 연안의 홍주, 예산, 대흥, 덕산과 보령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오늘날의 예산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포가 높았다. 예산 일대는 아산만으로 연결되는 내륙수로가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경지가 발달하여 한양의 사대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기별로는 중기에 가장 집중도가 높았으며 중·후기로 갈수록 가야산과 차령산지 사이의 삼교천과 무한천 유역에 사대부의 분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출생, 이주 형태를 보면 전기에는 내포에서 출생한 사대부의 수가 많다가 중기에는 이주, 정착한 사대부의 수가 증가하며, 후기에는 다시 내포에서 출생한 사대부가 많아졌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내포 사대부는 전체적으로 한양, 경기도로부터 이주, 정착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시기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기에 다시 내포에서 출생한 사대부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전에 이주, 정착한 가문에서 관료가 배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포가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가 많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대부들이 내포 전 지역에 분포하면서 종족촌락, 서원과 사우, 묘지 등 관련 문화 경관을 만들어 내었으므로 사대부문화는 내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적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5〉 조선시대 내포의 사대부 분포



(3) 상징적 형상의 형성-문화권으로서의 내포

내포는 지형적 고립성, 해안을 통한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 특히 한양이나 경기도와의 연결성이 높았다는 점 등이 원인이 되어 독특한 문화적 동질성을 형성하였다. 내포의 대표적인 동질적 문화요소로는 방언, 민요, 시조, 유교문화, 천주교문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방언은 지금의 서산시를 중심으로 당진군,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일대에서 가장 강한 동질성을 보인다. 민요는 홍성군을 중심으로 가야산 주변의 서산시, 당진군 일대에서 동질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반관료층의 분포는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지역에 많으며 지배층 문화요소인 시조는 예산군을 중심으로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지역에 널리 퍼져있다. 천주교 초기 전파와 관련된 문화요소는 아산만 연안에서 가장 뚜렷한 동질성을 보였다.

이들 요소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포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혼합지대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안을 통한 남북방향의 교류가 활발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방언과 민요 등 민중문화요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라도나 경기도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동질성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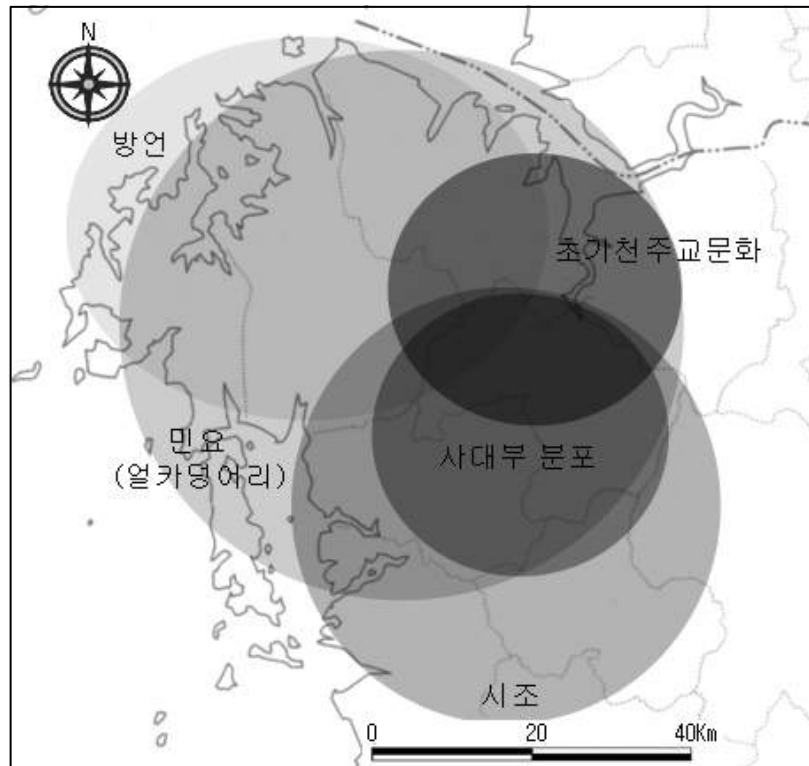
또한 내포 문화에서는 근기권(近畿圈)으로서의 문화 특성이 나타난다. 특히 지배층 문화에서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는데 시조, 사대부문화, 천주교문화 등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포제 시조는 경제의 변형으로 한양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예산현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었다. 내포의 사대부들은 한양이나 경기도와의 관련성이 깊은 경우가 많았으며 중앙정부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경우가 많았다. 초기 천주교의 포교 과정도 한양, 경기도와의 연결성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실제로 한양, 경기도와의 연결성이 좋은 아산만 연안을 중심으로 초기 천주교가 전파되었다.

내포의 문화적 동질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는 조선중기 이후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장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영역적 형상의 발달과정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시조, 유교문화, 천주교 전파과정 등에서는 비교적 문화적 동질성의 형성과정이 잘 드러난다. 즉, 내포의 사대부는 임진왜란 이후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주, 정착한 경우가 많았다. 천주교의 초기 전파는 18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내포제 시조는 19세기에 예산현을 중심으로 내포에 전파되었다.

방언, 민요, 시조, 사대부문화, 천주교문화 등의 문화요소들은 핵심과 주변의 구조에서 약간

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오늘날의 아산시 남서부에서 보령시 북서부지역에 이르는 차령산지 서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은 내포 전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각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은 지금의 예산군과 홍성군 일대로서, 이 지역이 문화적 동질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내포의 핵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6〉 동질적 문화요소(핵심지역)의 분포



3. 내포의 지리적 정체성

1) 영역 형성

내포는 한 때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던 지역으로서 정체성과 사회문화체계 형성 개념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다. 즉, 지역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지역의 소멸과정을 겪었으나 재영역화, 재상징화, 재사회문화체계 형성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구성하고

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각각의 사회문화체계 형성 요소들은 내포지역의 정체성 구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역적 형상의 발달과정은 전체적으로 가야산 주변의 여러 지역이라는 대전제에 합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역개발 논리가 개입되면서 전통적인 내포의 영역이 상당히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포지역 내의 시·군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역적 형상에 대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구역과 내포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영역적 형상의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시·군 단위가 실질적인 경제·문화·정치적 기본 단위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몇 개의 시·군을 포괄하고 있는 내포가 명확한 영역적 형상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포는 영역적 형상이 확정되고 강화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포의 영역적 형상에 대한 입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입장은 있으나 완전히 합의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 상징 형성

〈표 3-6〉 현재 제시되고 있는 내포의 상징

분류	내용
정신적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충절·충의로 상징되는 충남정신의 발원 · 민중문화(개방성, 진취성, 저항성) · 양반과 선비 정신
역사적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불교문화 유입의 관문 · 한양과 가까운 벽지 · 충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 서민·종교문화
현재의 지역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과 내륙평야를 갖춘 자급자족지역 ·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지역 ·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큰 지역(서해안고속도로) · 살아있는 박물관 · 내포문화권 · 충남의 중심(충남도청)

상징 형성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주로 내포의 다층

적이고 복잡한 역사에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징을 부각시키고자 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상징이 다양하고 많다는 사실은 상징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역정체성의 구성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내포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징 형성은 정신적 상징, 역사적 이미지, 현재의 지역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현재의 지역 이미지와 관련된 요소

분류		내용
살아있는 박물관	유형 문화	· 성곽(임존성, 홍주읍성, 해미읍성, 서산읍성, 면천읍성, 백화산성, 안흥성, 태안읍성, 보령읍성, 소근진성) · 불교(수덕사, 개심사, 보덕사, 보현사지) · 경제(호서은행, 예덕상무사) · 기타 유적(금산(禁山)과 목마장)
	무형 문화	· 황도봉기풍어제, 기지시줄다리기, 민간신앙, 결성농요, 박첨지놀이, 웃다리 농악, 벗가릿대 세우기
자연 자원		· 해안관광자원, 온천, 봉수산 자연휴양림 및 리조트, 안개(內浦), 철새 도래지, 신두리 해안사구, 간월도, 왜목마을, 황도, 창리
시설		· 역사문화공원, 내포박물관,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결성농요 전수관, 충남도청, 화석전시관, 박첨지놀이 전수관, 내포문화 발원탑
기타		· 내포한우 브랜드, 내포녹색체험프로그램, 천주교성지 연합미사, 내포지역 도청 유치 추진위원회, 내포지역 시장·군수회의, 내포권 의회 협의회

그러나 다양한 상징들은 대부분 시대적 공통성이 크지 않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정신적 상징과 역사적 이미지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잊혀진 내포가 관의 주도로 갑자기 부각되면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설정된 상징이 주민에게 전파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의도적인 상징의 설정 과정은 필연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상징을 먼저 고려하므로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유효한 상징을 정확히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내포지역의 방언은 아직까지도 지역 내에 통용되는 문화요소로서 상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나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 형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내포’라는 지명은 여러 사회문화체계 형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부각이 됨으로써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포지역의 상징적 형상은 주로 문화·역사적 전통과의 관련성 속에서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고를 중심으로 성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포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역할이나 가치를 강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상징적 형상의 성립은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사회문화체계 형성과 지역정체성의 구성

내포지역의 영역과 상징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나 소속감을 재생산하는 사회문화체계의 출현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치·경제·법률·행정관련 시설이나 행동양식으로서의 사회문화체계는 거의 발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내포지역의 사회문화체계는 내포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역할이나 기대를 통제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문화체계로는 지역 언론을 비롯하여 향토연구단체와 해당 단체의 간행물, 그리고 대중 집회 및 행사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영역적 형상과 상징을 설명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문화체계 형성 단계들은 지역정체성의 형성으로 귀결된다. 지역정체성에 기초한 지역의 구성은 지역의식으로 대표되는 정신적 공간의 형성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포는 아직 지역정체성에 기초한 지역의 성립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지역정체성 형성의 전제가 되는 사회문화체계 형성 과정의 각 단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체계 형성 과정은 물론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는 ‘단계(stage)’의 개념은 아니지만 지역정체성은 다른 단계들의 성립을 전제로 할 때 가장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사회문화체계 형성 과정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주민들이 보편적인 능력을 통하여 특수한 규범이나 특성을 추상화하여 다양한 특성들을 통일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구축된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구축과정은 세계적, 또는 국가적 획일성에 대항하여 지역에 ‘다름’의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시작된다. 또한 정체성의 설계에는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정체성의 구성과정에 작용하는 권력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내포지역은 규모와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포의 '다름'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합당한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써 지역정체성의 구성 가능성을 외부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체성 구성의 주체인 주민이 객체화됨으로써 정체성의 구성과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언론, 각급 연구단체 등은 매우 능동적으로 내포의 영역 및 상징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포지역 내 시·군 간의 입장의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쉽게 지역정체성의 구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정체성은 장소판매나 자원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념적 투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내포에서 초보적인 단계이거나 아니면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역정체성을 자원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시·군 단위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지역주의조차도 내포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포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내포지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정체성이 확고하게 구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정체성이 완벽하게 구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주체들의 폭넓은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관련 논의가 힘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사회문화체계 형성 과정의 한 부분으로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체계 형성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영역, 상징, 정체성 등은 완성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회문화체계 형성 과정에 재투입되는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내포는 역사적으로 주민들의 능동적인 사고와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외부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정의된 지역의 성격이 강했던 곳이다. 따라서 내포는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변화에 따라 불연속적인 정의가 내려져 왔다. 최근의 내포에 대한 관심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시기보다도 특히 다양한 사회문화체계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문화체계 형성의 개념으로 볼 때 내포는 영역적 형상의 발전과 상징적 형상의 성립, 그리고 사회문화체계의 출현이 짧은 기간 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각 단계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로써 확고한 지역정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4장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의 정체성

1.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장소, 인물,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소는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점적, 선적, 면적인 장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점적인 장소는 내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인물, 사건 등이 발생하거나 나타나는 곳이며, 면적인 장소는 내포 정체성을 나타내는 권역, 지역으로서의 넓은 장소를 의미한다. 면적인 장소의 개념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내포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본 장의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면적인 장소는 문헌과 기록에 의해 나타난 내포의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점적, 선적인 장소로서는 내포지역을 특징짓는 독특한 자연환경(갯벌과 포구), 역사문화유적지(조운로와 조창, 지방행정 및 관방유적, 종교 유적, 명현과 충절인 유적 등)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인물은 내포지역에서 배출한 대표적인 역사인물 중에서 국내의 역사문화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종교인, 학자, 운동가, 명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교인으로는 불교, 천주교, 학자로서는 성리학 및 실학자, 운동가로서는 근대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타 명현과 인물 들을 조사·연구하였다.

사건은 인물과 장소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내포지역의 정체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간적, 자료적 한계³²⁾로 민속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루었다.

32) 사건의 정확한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장소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많은 경우 소실되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표 4-1〉 지리적 차원에서 내포의 구성요소와 조사내용

구성요소	조사 내용		비고
1) 장소	(1) 내포지역, 문화권 등 전체 지역	문헌 중심을 중심으로 기록자, 작성된 시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포지역에 대해 조사	면적
	(2) 역사문화적 명소	① 독특한 자연환경 - 갯벌과 포구 ② 역사문화유적지 - 조운로와 조창, 지방행정 및 관방유적, 종교 유적, 명현과 충절인 유적	점적, 선적
2) 인물	(1) 승려	①혜현대사, ②도침대사 ③ 낭혜상 무염, ④ 탄문	
	(2) 성리학자	① 백이정, ② 이곡·이색 ③ 이개·이자·이지함·서기·홍가신 ④ 호론의 남당 한원진, 낙론의 외암 이간 등	
	(3) 실학자	① 성호학통의 실학자들 ② 여주이씨들, ③ 추사 김정희	
	(4) 천주교 신도	① 이존창, ② 김대건, ③ 최양업	
	(5) 근대 독립운동가	① 김복한, ② 이남규, ③ 한용운 ④ 김좌진, ⑤ 윤봉길, ⑥ 문종구	
	(6) 기타 명현		
3) 사건 -민 속 과 생활	(1) 자연환경과 연계된 풍습	안면도 황도 붕기풍어제와 서해 어로 민속	
	(2) 상속의 관행	가옥과 미개간지를 상속하는 관행	
	(3) 상업문화	예덕 상무사와 부보상	
	(4) 의례/놀이	내포제 시조와 결성 농악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서산 박첨지 놀이 저산팔읍 길쌈놀이	

2.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의 정체성 구성요소와 특징

1) 역사적 변천을 통해본 내포의 지역범주

내포(內浦)란 단어의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고려 공민왕조 기사로 왜구의 서해안 세곡선 침략기사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헌상 내포 지역의 범주는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내포’라는 용어가 지칭하던 지역범위는 자료의 기록자에 따라, 자료가 작성된 시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³³⁾.

(1) 내포 중의 내포라고 할 수 있는 삼교천 유역

①범근 내포를 중심으로 한 아산만의 조세를 거두어 들이던 곳(수조처收租處), ②삼교천을 중심으로 한 범근천, 공세곶, 경양포 등을 지칭하고 있다.

(2)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언급한 가야산 주위의 10여 고을

가야산의 서쪽에 보령·결성·해미의 3고을, 가야산의 북쪽에 태안·서산·면천·당진의 4고을, 가야산의 동쪽에 홍주·덕산·예산·신창의 4고을 / 대흥·청양을 지칭하고 있다.

한편, 최남선의 정의에 의하면 ‘內浦라 함은 忠淸道 西南隅의 伽倻山脈을 環繞하여 잇는 여러 골을 市傍 插橋川의 上流, 由宮津의 安眠해 잇다 해서 니르는 말’이라 하고 있다.

(3)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지였던 홍주목과 관련한 홍주진관 소관의 20여 고을.

홍주를 비롯하여 평택·아산·온양·신창·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덕산·예산·대흥·결성·청양·보령·남포·비인·홍산·서천·(오천←충청수영) 등을 말하고 있다.

33) 이는 다음의 글들을 중심으로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임선빈(2003), 「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성격」, 『문화역사지리』 15-2. 임선빈(2005), 「조선후기 내포지역의 통치구조와 외관: 홍주목을 중심으로」, 『호서사학』

40. 김정환 엮음(2012), 『내포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당진시·내포교회사연구소.

조선시대 내포지역 관할고을의 변천과 이속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2〉 조선시대 내포지역 관할고을의 변천과 이속

구분(시기)		관할 고을	현재의 시군
홍주목이 거느린 고을 (『세종실록지리지』)		홍주목, 태안군, 서산군, 면천군, 해미현, 당진현, 덕산현, 예산현, 청양현, 보령현, 결성현, 대흥현 (12)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일부)
홍주진관 (『경국대전』)		(홍주목), 서산군, 태안군, 면천군, 덕산현, 청양현, 대흥현, 결성현, 보령현, 예산현, 해미현, 당진현 온양군(←청주목), 평택현(←청주목), 아산현(←청주목), 신창현(←청주목), 서천군(←공주목), 홍산현(←공주목), 비인현(←공주목), 남포현(←공주목), (20)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아산시, 청양군(일부), 서천군(일부), 부여군(일부) / 경기 평택(일부)
내포의 영장 (조선 후기)	전영 (홍주)	홍주목, 서천군, 보령현, 청양현, 홍산현, 비인현, 남포현, 임천군(←공주진관), 한산군(←공주진관), 정산현(←공주진관) (10)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아산시,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일부) / 경기 평택(일부)
	좌영 (해미)	(해미현), 대흥군, 온양군, 면천군, 서산군, 태안군, 결성현, 예산현, 평택현, 아산현, 신창현, 덕산현, 당진현 (13)	
홍주부 (1895년)		홍주군·결성군·덕산군·한산군·서천군·비인군·남포군·보령군·임천군·홍산군·서산군·해미군·당진군·면천군·태안군·대흥군·청양군·예산군·신창군·온양군·아산군·정산군 (22) / 평택군→공주부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아산시,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일부)

조선시대 내포의 통치구조 변천을 통해 보면, 행정적으로 홍주목이 중심이었으며, 홍주의 관할영역은 19세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프랑스 선교사들의 상부내포(Haut Naipo)와 하부내포(Bas Naipo)

프랑스 선교사들은 상부내포(Haut Naipo)와 하부내포(Bas Naipo)라는 말을 1860년경부터 사용하였다. 상부내포는 기존의 삼교천 일대, 즉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내포(le Naipo)를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삼교천의 상류에 이르는 홍주까지, 북쪽으로는 경기도 남부까지 포함하는 충청남도의 서북부지역을 의미하였고, 하부내포는 홍주 아래쪽인 충남의 서남부지역을 지칭하고 있다.

2) 내포가 배출한 대표적 역사인물

(1) 승려³⁴⁾

① 혜현(慧顯, 570~627)대사

수덕사에서 삼론학(三論學)을 강의하고 법화경을 염송하며 대중을 교화인물로서, 수덕사 혜현대사에 대한 기록은 당(唐)나라 태종 정관(貞觀) 19년(645)에 도선(道宣)율사가 편찬한 『속고승전(續高僧傳)』 권 28 백제국 달나산 석혜현전(百濟國 達拏山 釋慧顯傳)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혜현은 어려서 출가하여 법화경을 염송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었는데 복을 빌어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 많았었다. 또한 삼론을 강론하기도 하였었는데 처음에는 본국 북부 수덕사에 살면서 대중이 있으면 강론하고 없으면 맑게 염송하니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시끄럽게 찾아왔었다. 이에 남방 달나산³⁵⁾으로 가서 예전처럼 수행하다 그곳에서 돌아갔다. 동학들이 그 시체를 메어다가 석굴 속에 두었더니 호랑이가 모두 먹고 혀만 남겨 놓았다. 3년이 지나자 홍적색이던 혀가 자색으로 변하면서 돌같이 굳어지므로 도속(道俗)이 모두 괴이하게 여겨 공양하고 잘 싸서 석탑에 모셨다. 나이가 58세 이었고, 그 해는 정관(貞觀) 초년(627)이었다.」

② 도침(道琛, 년대 미상~661)대사

내포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부흥운동의 정신적 지주, 수덕사 승려였으리라 추측된다. 도침대사가 임존성주이던 의자왕의 종제(從弟) 복신(福神, 년대미상~663)

34) 최완수(2002), 「내포지역의 불교」, 『열린충남』 18, 충남발전연구원 참조.

35) 達拏山이란 달이 나오는 산이란 의미로 전라남도 강진 월출산의 우리말 원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과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켜 일본에 가 있던 왕자 부여풍(夫餘豐)을 모셔다가 백제를 거의 다시 일으키게 되었으나 복신의 배신으로 그에게 살해당함으로써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③ 낭혜(朗慧)화상 무염(無染, 801~888)

내포 최남단인 남포(藍浦) 성주산(聖住山)에서 성주산문(聖住山門)을 개창한 태종 무열왕의 8대 손에 해당하는 왕손이다. 그의 선대는 진골 귀족으로 대대로 출장입상(出將入相)하였으나 그 부친인 범청(範淸)에 이르러서 6두품으로 떨어졌다 한다. 낭혜화상은 9세때 해동신동으로 불리고, 12세 출가, 821년 당나라에 건너가 선법을 배우고, 20여 년 동안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므로 '동방의 대보살'이라 불렸다. 문성왕 7년(845)에 귀국하여 성주사(聖住寺)를 선문구산의 하나인 성주산문의 본산으로 삼아 40여 년 동안 교화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를 구하므로 그들을 피하여 상주(尙州) 심묘사(深妙寺)에서 지내기도 하였으며, 888년 89세로 입적하였다.

④ 탄문(坦文, 900~975)

고려 초기의 승려로서 혜종과 정종이 지극히 공경하여 예로써 받들었으며, 968년(광종 19)에 처음으로 국사·왕사의 2사제도가 실시되자 혜거(惠居)를 국사로, 그를 왕사로 삼아 귀법사(歸法寺)에 머무르게 하였다. 974년에는 국사가 되어 가야산으로 옮겨갈 때 왕이 왕후와 백관을 데리고 전송하였으며, 어의를 보내어 병을 보살피게 하였다. 다음해 3월 가부좌한 채 입적하니 나이 75세, 법랍 61세였다. 시호는 법인(法印), 탑호는 보승(寶乘)이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에 탑비가 있다.

(2) 성리학자³⁶⁾

① 백이정(白頤正)

백이정(白頤正)은 성리학을 처음으로 연구하여 보급. 묘소는 보령군 웅천면 평리 양각산(羊角山)에 있으며 그곳에 그를 모신 신안사(新安祠)와 그의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성리학을 수

36) 이성무(2002), 「내포지역의 지성사」, 『열린충남』 18, 충남발전연구원 참조.

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안향(安珦)이지만 원나라에 10년간 있으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와 이를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백이정이다.

② 이곡(李穀) · 이색(李穡)

이곡(李穀) · 이색(李穡)부자를 비롯한 한산이씨(韓山李氏)가문은 백이정의 뒤를 이어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곡(1298~1351)은 1317년(충숙왕 4)에 거자시(舉子試)에 합격한 뒤 1332년(충숙왕 복위 1) 원나라의 정동행성(征東行省) 향시(鄉試)에 합격하여 한림국사원 검열관(翰林國史院檢閱官)이 되어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그 뒤 귀국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졌으며 이제현(李齊賢) · 민지(閔漬) 등이 편찬한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중수하고, 충렬 · 충선 · 충숙의 삼조실록(三朝實錄)을 편찬했으며 다시 원나라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수했다. 그의 본관(本官)은 한산(韓山)이며 한산 문헌서원(文獻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이색(1328~1396)은 이곡의 아들이요, 백이정의 제자인 이제현의 제자로서 역시 1352년(공민왕 1) 원나라 정동행성 향시에 1등, 1354년(공민왕 3) 제과(制科)에 1등으로 합격하여 그곳에서 벼슬살이도 하고 성리학을 공부했다. 귀국한 이후에는 1363년(공민왕 12)에 정동행성 유학제거(征東行省 儒學提舉)로서, 1367년(공민왕 16)에는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로서 성균관 겸 대사성(成均館兼大司成)을 겸직하여 성균관 중흥에 앞장섰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당시 김구용(金九容) · 정몽주(鄭夢周) · 이숭인(李崇仁) 등은 겸교관(兼敎官)으로서 이색을 도왔다. 그리하여 1373년(공민왕 22)에는 한산군(韓山君)에 피봉되었다. 그러나 1389(우왕 14) 위화도회군 이후로 이성계(李成桂)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민수(曹敏修)와 함께 창왕(昌王)을 옹립했다가 이성계 일파에게 밀려 여러 차례 귀양을 갔다. 1395년(태조 4)에 한산백(韓山伯)에 피봉되었으나, 이듬해 여강(驪江)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 이색은 불교는 본래 좋은 것이지만 승려들이 타락하여 피해가 심하니 불교적 윤리관을 유교적 윤리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했다. 도첩제(度牒制)를 강화하고 성균관을 부흥시키려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정몽주 · 이숭인 · 박상충 · 정도전 · 권근 등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나 이성계를 추종하는 정도전과 그를 따르는 기타 제자들의 대립으로 말년을 불우하게 보냈다. 묘는 서천 죽혼리에 있고 서천군 한산의 문헌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③ 이개(李塏)·이자(李紆)·이지함(李之函)·서기(徐起)·홍가신(洪可臣)

이색의 후손으로 이개(李塏)·이자(李紆)·이지함(李之函) 등이 있으며, 이개(1417~1456)는 이색의 증손로 사육신(死六臣)의 한사람이다. 이자(1466~1524)는 기묘명현록에 올라 있다.

16세기의 이지함(李之函)·서기(徐起)·홍가신(洪可臣) 등은 화담계열의 학자로서, 이지함(1517~1578)은 한산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화담의 영향을 받아 유학사상뿐 아니라 도가사상, 상수학(象數學)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상공업도 중시했고, 천문·지리·의학·복서·산수 등에 두루 능통한 박학풍(博學風)의 인물로서, 1578년 아산현감으로 재임하면서 노약자와 걸인을 구호하였다. 서기(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서 화담문하에 출입하였다.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으며, 만년에는 공주의 공암에 살다가 그곳에서 묻혔다. 홍가신(1541~1615)은 화담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로,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바 있다.

④ 호론의 남당 한원진, 낙론의 외암 이간

조선후기의 호락논쟁, 즉 인물성동이논쟁에 내포의 지식인들은 적극 참여하게 된다. 우암(尤菴) 송시열(宋詩烈)의 수제자인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의 제자들 가운데 낙론(洛論)의 외암(巍巖) 이간(李柬)은 일체의 만물이 천부의 본성(本性)은 같으나 인물성(人物性)의 차이는 기질(氣質)에서 생기는 것일 뿐이라 했으며, 남당 한원진은 스승의 학설을 따라 성(性)을 단순한 이(理)로 보지 않고 이(理)가 일정한 기(氣)로 배정되어 나올 때 상이한 만물로 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사람은 사람의 이기배합(理氣配合)이 있고 소는 소의 일정한 이기배합이 있는데, 사람이 만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배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르다는 것이다.

남당은 율곡-우암-수암의 주기론(主氣論)을 집대성했다. 남당의 심즉기설(心卽氣說)은 실로 퇴계의 심즉리설(心卽理說)에 맞서는 것이었다. 호론을 따르는 사람은 예산의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매봉(梅峯) 최징후(崔徵后), 서산의 한간(寒澗) 김한록(金漢祿),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등이 있다. 낙론을 따르는 사람은 외암 이간을 비롯하여 도암(陶菴) 이제(李穡), 박필주(朴弼周), 어유봉(魚有鳳), 관봉(冠奉) 현상벽(玄尙璧) 등이 있다. 뒤에 안동 김씨의 김원행(金元行), 김조순(金祖淳) 등이 정권을 잡아 낙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남당 한원진은 충청도 결성

(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학설을 호론(湖論) 또는 호학(湖學)이라고 하고, 외암 이간은 충청도 온양에 살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경기도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학설을 낙론(洛論) 또는 낙학(洛學)이라 한다.

호락시비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귀결을 보지 못했으나, 처음에는 호론이 우세하다가 뒤에는 낙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주역들이 낙론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 호락시비는 결국 정치적으로 송시열의 북벌론(北伐論)을 지지하느냐, 북학론(北學論)을 지지하느냐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청나라를 오랑캐(禽獸)로 볼 것이냐, 선진국으로 볼 것이냐는 차이이다.

⑤ 기타 인물

이외에도 내포에는 유명한 학자 정치인이 많다. 이산해(李山海)·박지계(朴知誠)·김홍욱(金弘郁)·권시(權譔)·조익(趙翼)·조헌(趙憲)·이안눌(李安訥)·조극선(趙克善)·남구만(南九萬)·채제공(蔡濟恭) 등이 그들이다.

이산해(1539~1609)는 한산이씨로 내자시정(內資寺正) 이지번(李之番)의 아들이며 화담의 제자인 이지함(李之函)에게서 배웠다. 그는 1558년(명종 13)에 진사, 1561년(명종 16)에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대북(大北)의 영수로서 이이첨(李爾瞻)·정인홍(鄭仁弘)·홍여순(洪汝諄)과 함께 북인정권을 이끌어갔으며 영의정을 지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문장 8가(文章八家)의 한사람으로서 서화(書畵)에 뛰어나 조광조 묘비(趙光祖墓碑)와 이언적 묘비(李彦迪墓碑)를 썼다. 저서로는 아계집(鵝溪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있다.

박지계(1573~1635)는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숭(追崇)하는데 앞장선 이론가이다. 인조초 김장생(金長生)·장현광(張顯光)과 함께 조정에 징소된 3대 산림(山林)이었으며, 예학에 뛰어난 학자였다.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신창(新昌) 사람이다.

김홍욱(1602~1654)은 경주김씨로 정조대의 벽파(辟派)인 김구주(金龜柱)의 조상으로, 효종 때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부인 강빈(姜嬪)의 원통함을 논하였다가 죽임을 당했다. 후에 신원되어 서산의 성암서원(聖巖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서산(瑞山) 사람이다.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그의 묘소가 있다.

권시(1604~1672)는 원래 서인이면서 기해예송(己亥禮訟)에서 남인인 허목(許穆)과 윤선도(尹善道)의 예론(禮論-三年說)을 지지한 이론가로서, 그의 후손들은 남인이 되었다. 원래 박지계의 문인으로 24세에 공주로 이주하기 전에는 태안에서 살았다.

조익(1579~1655)은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趙光祖)·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고,金玉(金堉)이 대동법(大同法)을 실시 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다. 묘는 대흥(大興) 동화산(東華山) 아래(예산군 신양면 백석리)에 있다. 광주(廣州)의 명고서원(明臯書院), 개성(開城)의 송양서원(崇陽書院), 신창(新昌)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예학(禮學)·경학(經學)·병법(兵法)·복술(卜術)에 밝았으며, 장유(張維)·최명길(崔鳴吉)·이시백(李時白)과 함께 사우지정(四友之情)이라 할만큼 서로 친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이안눌(1571~1637)은 덕수이씨(德水李氏)로 이행(李荇)의 증손이며, 이식(李植)의 종숙(從叔)이다. 권필(權弼)·윤근수(尹根壽)·이호민(李好民)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다. 정철(鄭澈)의 사미인곡(思美人曲)을 듣고 지은 문가(聞歌)가 특히 유명하다. 홍주목사(洪州牧使)·담양부사(潭陽府使)와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냈으며, 담양(潭陽)의 구산서원(舊山書院), 면천(沔川)의 향사(鄉祠)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묘소가 당진군 정미면 사관리에 있다.

조극선(1595~1658)은 한양조씨로 박지계(朴知誠)와 조익(趙翼)의 문인이며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다. 온양군수(溫陽郡守) 면천군수(沔川郡守)를 지냈으며 신창(新昌)의 도산서원(道山書院), 덕산(德山)의 회암서원(晦菴書院)에 배향되었다. 1600년경에 덕산에 입향하여 한양조씨 세거지를 마련하였으며, 묘비가 남아 있다.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結成)에 우거(寓居)했다.

채제공(1720~1799)은 홍주(洪州)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이다.

(3) 실학자

① 성호학통(星湖學統)의 실학자들

내포에는 성호학통(星湖學統)의 실학자들이 많이 살았다³⁷⁾. 일찍이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정현묘지명(貞軒墓誌銘)」에서 ‘우리 성호 선생은 하늘이 내신 빼어난 호걸로서 도덕과 학문이古今을 통하여 건줄 만한 사람이 없고, 교육을 받은 제자들도 모두 大儒가 되었다. 貞山 秉休는 『易經』과 三禮를 전공하고, 萬頃 孟休는 經濟와 實用을 전공하고, 惠寔 用休는 문장을 전공하고, 長川 嘉煥은 博洽함이 張華·干寶와 같았고, 木齋 森煥은 禮에 익숙함이 崇義와 繼公 같았고, 剡村 九煥도 祖父의 뒤를 이어 이름이 났다. 한 집안에 儒學의 성향이 이와 같았다.’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묘지명의 주인공인 정현(錦帶) 이가환(문학·경제학·서학)이 빠져 있으며, 이외에도 조선후기 성호가학으로는 죽파 이광휴(경학·박물학), 금화 이원휴(경학·문학), 청담 이중환(인문지리), 청계 이정환(문학·경학), 시현 이재위(박물학), 정현 이재상(경학), 육회당 이시홍(경학·예학), 석헌 이재중(경학), 소초 이재적(경학), 송남 이재남(경학) 등이 있다. 그런데 이상의 인물 가운데 이광휴, 이용휴, 이병휴, 이철환, 이정환, 이삼환, 이가환, 이재위, 이재상, 이시홍, 이재중 등이 내포의 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이침의 직계혈손(血孫)들이다. 이들 덕산의 여주이씨들은 가학적 전통을 지키면서, 내포지역에서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였다.

② 여주이씨들

여주이씨들은 17세기 중엽 성호 이익의 숙부인 이명진이 용인이씨와 혼인을 하면서 성호가문이 내포의 덕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내포의 덕산에 거주하는 여주이씨들의 족보상 가계는 이해, 이잠, 이서, 이침 등의 사손(嗣孫)들이지만, 혈통상의 가계는 모두 이하진의 넷째 아들로서 이명진의 양자로 입후한 이침의 血孫들이었다. 이들은 덕산의 장천리와 광주의 성호장, 한양 정릉의 구택을 왕래하면서 학문연마와 과거 응시 및 종족간 친목을 돈독히 하는 행사를 수시로 가졌다. 성호가학에서 덕산의 여주이씨 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특히 어려서 부친을 잃은 이용휴와 이병휴는 숙부인 성호 이익이 이들을 돌보면서 40년간을 성호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성호 사후에는 이병휴-이삼환으로 이어지는 덕산 장천리의 여주이씨들이 성호가학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성호문집의 편찬주도와 서암강학회, 장천의 구두, 양

37) 내포의 실학자에 대해서는 이우성(1997), 「내포지역의 실학자」 (『내포문화정보』 창간호, 내포문화연구원)에서 처음 주목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선빈(2003), 「내포지역 성호가학의 정착과 발전」 (『성호학보』 14, 성호학회)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변의 저술 등은 이에 대한 징표라 할 수 있다.

〈표 4-3〉 이침 후손들의 혈통상 가계도와 연고지

沉(鵝亭)/出 1671~1713 묘(덕산)	— 廣休(竹坡)/出 1693~1761 묘(덕산)	— 嘉煥(例軒) 1722~1779 호적·묘(덕산)	— 載威(柿軒) 1745~1766 호적·묘(덕산)	— 是盤 1782~1808 묘(덕산)
		— 晶煥(淸谿)/出 1726~1764	— 載重(石軒) 1747~1822 진사(덕산)	
			— 載常(靜軒)/出 1755~1836 호적·묘(덕산)	— 是鑣(松浦)/出 1782~1839 묘(덕산)
				— 是鉉(六梅堂) 1789~1862 묘(덕산)
				— 是欽 1793~1818 묘(덕산)
				— 是鑣 1797~1827 묘(덕산)
		— 森煥(木齋)/出 1729~1813 호적·묘(덕산)		
	— 用休(惠賣) 1708~1782 덕산장(生)·묘(덕산)	— 家煥(錦帶) 1742~1801 묘소		
	— 秉休(貞山)/出 1711~1777 덕산장(生)·묘(덕산)	— 鳴煥(謹齋) 1773~1809 방목·묘(덕산)	— 載賡 1803~1860 묘(면천)	— 是鏡 1824~1864 묘 (덕산)
			— 載采(五園)	

③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유명한 고증학자인 김정희(金正喜)도 내포사람이다³⁸⁾. 김정희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태어났으며 지금도 고택(古宅)이 남아 있다. 그는 송학(宋學)과 한학(漢學)을 절충한 고증학(考

38) 임선빈(2011), 「추사고택과 추사의 생애」, 『옛 사람의 학문과 생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참조.

證學)의 대가였다. 그는 특히 금석학(金石學)에 밝아 진흥왕 순수비(眞興王巡狩碑)인 북한산비(北漢山碑)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뛰어나 이른바 추사체(秋史體)를 개발했으며 그림도 잘 그렸다. 세한도(歲寒圖)는 그의 작품이다. 저서로서는 『추사집』(秋史集)이 있으며 이상적(李商適)·오경석(吳慶錫)등 중인 출신 인재들과 교유하여 영향을 미쳤다. 경주김씨이며 벽파(僻派) 집안의 인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가까웠다.

(4) 천주교 신도

내포지방은 천주교도를 많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① 이존창(李存昌, 1752~1801)

내포의 사도로 널리 알려진 이존창은 여사울, 지금의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천주신앙 공동체인 여사울 천주신앙공동체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비록 양반 출신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올라가 권일신(權日身)의 문하에 들어가 김범우(金範雨)의 지도로 천주교에 입문하고 고향에 돌아와 뒷날 내포교회로 불린 여사울 신앙공동체를 만들었다.

②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1822~1846)

김대건은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이다. 밋내 놀피, 즉 오늘날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태어났으며 7살 때 용인으로 이사했다. 1831년 조선교구 설정 후 신부 모방(Maubant,P.) 의해 신학생으로 발탁, 최방제(崔方濟)·최양업(崔良業)과 함께 15세 때 마카오에 있는 파리의방전교회 동양경리부(巴里外邦傳教會東洋經理部)로 가게 되었다. 그 곳 책임자인 신부 리부아(Libois,N.)의 배려로 마카오에서 중등 과정의 교육을 마친 뒤 다시 철학과 신학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 뒤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 주교 페레올(Ferreol,J.J.B.)의 지시로, 동북국경을 통하는 새로운 잠입로를 개척하고자 남만주를 거쳐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 땅에 잠입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다시 만주로 돌아갔다. 그 동안에도 꾸준히 신학을 공부하고, 1844년에 부제(副祭)가 되었다. 그 해 말에 서북국경선을 돌파하고, 1845년 1월 10년 만에 귀국하였다. 서울에 자리잡은 뒤 박해의 타격을 받은 천주교회를 재수습하고, 다시 상해로 건너가서 완당신학교(萬堂神學校) 교회에서 주교 페레올의 집전하에 신품성사(神品聖事)를 받고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가 되었다. 같은 해 8월에 주교 페레올, 신부 다블뤼(Daveluy,M.N.A.)와 서울에 돌아와서 활발한

전교활동을 폈다. 1846년 5월 서양성직자 잠입해로를 개척하다가 순위도(巡威島)에서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된 뒤 문초를 통하여 국금(國禁)을 어기고 해외에 유학한 사실 및 천주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임이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그에게 염사지죄반국지율(染邪之罪反國之律)을 적용, 군문효수형(軍門梟首刑)을 선고하고 9월 16일 새남터에서 처형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25세였다. 그의 시체는 교인들이 비밀리에 거두어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미산리에 안장했다. 한국 천주교회의 수선탁덕(首先鐸德 : 첫번째의 성직자라는 칭호)이라 불리는 김대건의 성직자로서의 활동은 1년 여의 단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한국인 성직자의 자질과 사목능력을 입증하여 조선교구의 부교구장이 되었고, 투철한 신앙과 신념으로 성직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천주교회는 그를 성직자들의 대주보(大主保)로 삼고 있다. 1925년 로마교황 비오11세에 의해 복자로 선포되었고, 1984년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③ 최양업(崔陽業, 토마스, 1821~1861)

최양업은 두 번째 조선인 신부이다. 그는 홍주(洪州) 다락골(지금의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태생으로 11살 경에 서울로 이사했다. 1836년 초 조선 입국에 성공한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모방(Maubant, R.) 신부에 의하여 김대건(金大建)·최방제(崔方濟)와 함께 조선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1837년 6월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마카오 도착 1년 만에 최방제가 풍토병으로 사망하고 두 사람은 1842년까지 신부수업을 받다가 갑자기 귀국길에 올랐다. 중국과 조선에 이권을 찾고 있던 프랑스는 세실(Cecille)제독으로 하여금 조선원정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세실은 조선인 신학생을 통역으로 동행시켜 줄 것을 신학교에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징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되자 세실은 이 계획을 포기하였고, 최양업과 김대건은 각기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1839년의 기해박해가 있었던 직후라 천주교도들에 대한 검문검색이 심하였다. 특히 사군난(私窘難)이라 불리던 사사로운 박해가 심하였던 시기라 조선입국이 여의치 못하였다. 최초의 조선인 신부인 김대건은 입국에 성공하여 활약하다가 1846년에 순교하였다. 이 무렵 최양업은 수차례 입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패한 뒤 1849년 4월 상해의 강남교구장 마레스카(Maresca) 주교에 의하여 사제품을 받고, 김대건에 이어 두번째 조선인 신부가 되어 그 해 12월 조선입국에 성공하였다. 유일한 조선인 신부였던 그는 천주교가 다소 묵인되던 철종연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전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박해 때문에 신자들의 고백성

사가 밀려 있었고, 산간의 여러 공소에서는 신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신부 수는 절대부족하였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나치게 전교에 힘쓰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설상가상으로 식중독이 겹쳐 1861년 6월에 사망하였다. 그의 장례식은 배론신학교에서 베르뇌(Berneux,S.F.) 주교에 의하여 거행되었다.

(5) 근대 독립운동가

① 김복한(金福漢 1860~1924)

김복한은 충주군 조휘곡, 지금의 홍성읍 소향리 사람으로 한말에 이설·임승주·임한주 등과 함께 홍주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한원진의 남당학과 계통으로 그 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② 이남규(李南珪 1855~1907)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에 고택이 있는 이남규(李南珪 1855~1907)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 온양 평촌에서 피살되었다.

③ 한용운(韓龍雲, 1879~1944)

홍성 사람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은 승려로서 3·1운동의 발기인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님의 침묵』 등 많은 시를 남겼으며 일제에 항거하여 끝까지 저항했다.

④ 김좌진(1889~1930)

청산리전투로 유명한 김좌진(1889~1930)은 홍성출신이다. 그의 홍성에서의 활동은 15세 때인 1904년에는 대대로 내려오던 노복 30여 명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종문서를 불에 태우고 농사를 지어먹고 살 만한 논밭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1905년 서울로 올라와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 1907년 향리로 돌아와서 호명학교(湖明學校)를 세우고, 가산을 정리해 학교 운영에 충당하게 하고 90여 칸의 자기 집을 학교 교사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홍성에 대한협회와 기호홍학회의 지부를 조직해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섰다.

⑤ 윤봉길(尹鳳吉 1908~1932)

윤봉길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출생하여 많은 독립운동을 펴다가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제의 승전기념식에 폭탄을 던진 애국지사이다. 덕산에는 윤의사의 생가와 성장가, 영정이 봉안된 사당인 충의사가 있다.

⑥ 문종구(1853~1897)

문종구는 당진사람으로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심훈(沈熏, 1907~1936)은 당진에서 집필활동과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태안 사람인 이종일(李鍾日)은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6) 기타 명현

면천의 복지겸과 박술희는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을 이루었으며, 몽유도원도를 그린 화가 안견은 서산 출신이다.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는 서산출생이며, 독립협회, 애국계몽운동가인 윤치호(1865~1945)는 아산출신이다. 이상재는 서천출생, 대통령 윤보선은 아산출생 등이 있다.

(7) 소결

내포지역에는 고대 불교의 승려, 초기 성리학자, 실학자, 천주교 인물, 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수용한 인물들이 활동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의 활동은 내포지역이 고대 불교 전개, 초기 성리학 수용, 천주교 수용의 선구, 국제적 활동, 사상의 다양성 공존, 애국충절의 활동을 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 형	대표적 인물	특 징
① 승려	혜현, 도침, 낭혜, 탄문	고대 불교, 초기 성리학, 천주교 수용의 선구, 국제적 활동, 사상의 다양성 공존, 충절인물 등
② 성리학자	백이정, 이곡·이색 부자, 이개, 이자, 이지함, 서기, 홍가신, 한원진, 이간 등	
③ 실학자	성호가학, 김정희	
④ 천주교	이존창, 김대건, 최양업 등	
⑤ 근대 독립운동가	김복한, 이남규, 한용운, 김좌진, 윤봉길, 문종구 등	
⑥ 기타 명현	복지겸, 박술희, 안견, 이순신, 정순왕후, 이상재 등	

3) 내포의 대표적 역사명소³⁹⁾

(1) 갯벌과 포구

내포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역사문화자원은 갯벌과 포구이다. 갯벌과 포구는 내포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갯벌과 포구에서는 내포인의 삶이 영위되어 왔으므로, 곳곳에 내포인의 삶과 역사적 자취가 스며있다. 최근 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천수만, 삼교천변, 대호지, 석문 등의 갯벌이 사라졌다. 전통시대에는 포구가 갯벌을 끼고 발달하였으므로 내포에는 많은 포구가 있었다. 문헌에 보이는 조선시대 내포의 포구는 다음과 같다.

39) 이 절의 서술은 다음의 글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오석민(1999),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임선빈(2001), 「내포지방의 역사문화자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기초조사연구』 (자료집), 충청남도·국토연구원.

〈표 4-5〉 문헌상 조선시대 삼교천 주변의 포구와 나루

문헌	포구와 나루
『신증동국여지승람』	堂浦(아산현), 井浦渡·獐浦·犬浦(신창현), 狐頭浦(예산군), 犯斤乃浦(면천군) / 大迺山津·介浦津·市津(아산현), 井浦渡(신창현)
『여지도서』	市浦·唐浦(아산현), 獐浦·大浦·加野浦·丹池浦(신창현) / 大迺山津·大角津(아산현), 井浦渡(신창현)
『대동지지』	中防浦·犬浦·白石浦·屯浦·堂浦·市浦·牛坪浦(아산), 獐浦·中防浦·犬浦(신창), 狐頭浦(예산), 江門浦(면천), 九萬浦·頓串浦(덕산) / 頓串津(덕산현)
『증보문헌비고』 권34 여지고 관방 해방조	① 아산 : 공세곶포, 당포, 시포, 단장포 ② 홍주 : 대진포, 전선창, 안면곶, 원산도, 석비포 ③ 면천 : 전선창, 대진포, 창택곶, 가리도 ④ 당진 : 당진포, 채원포, 맹곶 ⑤ 서산 : 평신진, 왜현포, 남곶, 위곶, 안면곶, 요견량, 파지도, 대산곶, 백사정, 창포 ⑥ 태안 : 안흥진, 소근포, 부포, 안지영산곶, 대소산곶, 굴포, 안흥량, 이산곶, 신곶, 백사정 ⑦ 결성 : 동산포, 석곶포, 장포, 모산당포

한편, 내포의 현존 지명에서도 과거에 포구(항구)였음을 알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충남편)』(한글학회, 1974)에서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예산군 : <고덕면> 구만리 浦里[새태구만이, 새태, 새뜸]·새태구만이나루, <삼교읍> 下浦里 新浦[포리]·포내

② 당진군 : <고대면> 唐津浦里, 옥현리 三浦, 眞館里 館洞·국말[국춘, 원진관], 우두리 北倉浦, 원당리 石浦, 적서리 뱃말[선촌]·石浦, 조금리 조금나루[造琴津], 出浦里 날개나루터[조갯굴나루터], <면천면> 삼봉리 熊浦, 삼화리 同心浦[東心浦]·普德浦, 통정리 곰개[웅포, 밧곰개], <송산면> 가곡리 斗浦(두멍개)·七星浦, 무수리 화포[고잔], <송악면> 복운리 伏浦(복개), 석포리 客浦(객개), 한진리 大津(한나루, 나루머리, 한진), <신평면> 남산리 萬同浦, 운정리 孔浦, <우강면> 강문리 富里浦(新筏浦), 공포리 孔浦, 대포리, 부장리 南元浦, 세류리 牛浦(소개),

소반리 小浦(소편), 송산리 上浦·中浦·下浦, 신촌리 佳浦(가판)·屈浦(굴편)·富里浦(수문통), <합덕읍> 대합덕리 개안[浦內, 浦內里], 신리 下浦(아랫개안, 하신, 하개리, 하개), 신흥리 獨浦(독개)·獨浦津(독개나루)

③ 서산시 : <고북면> 기포리 機浦[기포리, 틈개, 틀개], 사기리 沙器浦, <대산면> 오지리 古倉浦[고창개], 운산리 看月浦[간월개, 간월동]·檜浦[횃개], 화곡리 三吉浦[삼4길리], <부석면> 장당리 大浦[큰개], 마룡리 沈浦[짚은개]·將軍浦, 봉락리 老羅浦[노라실], 취평리 翠浦[취개], <성연면> 명천리 鳴川浦, 해성리 鳴川浦, <지곡면> 산성리 竹浦[땃개], 중왕리 영개[야옹개, 마성개], <팔봉면> 대항리 方吉浦[방길개], 어송리 倉浦, <해미면> 귀밀리 개심포, 기지리 짚은개들, 석포리 石浦[돌개]·삼도포[삼도개]

④ 태안군 : <근흥면> 도항리 生金浦[상생금이], 마금리 內浦[안개], 정죽리 內浦[안개]·定山浦[정산. 정산리], <남면> 몽산리 蒙山浦, 신온리 막은포[막은개], 양잠리 內浦[안개], <소원면> 소근리 所斤浦[석은이개, 후근포, 소근리, 후근진, 소근진, 후근이포진], <안면면> 승언리 南彦浦[남독개]·老弱浦[노약개]·石浦[독개], 신야리 項浦[항개, 黃浦], 정당리 북석포[북독개]·狐浦[여수해], 중장리 內浦[안개]·西陸浦[서육개]·陸浦[육개]·栗浦[밤개]·長登浦[장등개]·厚利浦[후리개], 창기리 棟木浦[연목개]·牛浦[수해]·창터[창기, 창기리], <원북면> 반계리 碇浦[닷개], 방갈리 項浦[목개]·盆店浦, 신두리 斗應浦[두롱개, 두롱포], 이곡리 深浦[짚은개, 심곡], <태안읍> 어은리 炭洞浦[탄동개], 인평리 개사리[浦沙]

⑤ 홍성군 : <갈산면> 동성리 星浦[갯말], <결성면> 성호리 石串浦[나루개, 난정, 버구머리, 돌구지], <광천읍> 웅암리 甕岩浦[독바위개], <금마면> 봉서리 後浦[후개, 뒤편], 부평리 茶浦[다개], <서부면> 남당리 南塘浦[남당이개]·長浦[장개], 신리 茅山浦[모산당포], 어사리 於沙浦, <은하면> 장척리 浦項[개목]

⑥ 아산시 : <둔포면> 신남리 冷浦[민개], 신법리 新浦[새개], <선장면> 군덕리 仙掌浦口, 대흥리 大浦[대포리], 둔포리 頓浦里·浦南里[개룽말], 신덕리 井浦渡, 장곶리 獐串里[노루지, 장관리, 장곶, 장포]·平倉[평창말], 채신언리 개창, <신창면> 수장리 長久浦, <인주면> 공세리 貢稅浦, 대음리 春浦[방아개, 春浦]

내포지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해만간척이 이루어져 왔는데, 20세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갯벌이 대규모의 간척으로 인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렸다. 이제 21세기의 시점에서 20세

기의 간척사도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있다. 갯벌을 막아 만들어진 간척지는 이제 또 다른 역사문화유적이다. 삼교천방조제, 서산 A·B지구 간척지, 대호지방조제, 석문방조제 등은 또 하나의 역사현장들이다. 간척사업의 긍정·부정을 떠나 어떤 면에서 이들 대규모의 방조제 사업은 농업에 의존해 온 우리민족이 조선시대부터 끊임없이 시도해 온 해만간척 역사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운로와 조창

내포의 서해안은 고려-조선시대에 중앙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던 삼남의 세곡이 운반되던 조운로였다. 고려 조선왕조에서 충청도 이남의 稅穀을 京都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령 앞바다→태안의 안흥량→태안 만대→당진의 난지도 서쪽을 경유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안흥량은 본래 난행량(難行梁)이라 부를 정도로 항해가 어려웠다. 新津島와 馬島를 거쳐 官首角과 賈誼島에 이르는 海域으로, 암초가 많고 좁은 수로라 조류가 빠르며, 간만의 차가 커서 선박 운항이 어려웠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운하(조거, 漕渠)건설을 시도하였다.

태안반도 중간인 남쪽 천수만(淺水灣)과 북쪽 가로림만(加露林灣) 사이의 폭은 매우 좁았다. 현재의 태안읍 인평리·도내리와 서산군 팔봉면 어송리·진장리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이곳은 그 지점의 폭이 불과 10리 미만이었으며, 늪지를 포함하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하였는데 이곳에 일찍이 운하공사가 시도되었다. 고려조에서는 고려 인종 12년(1134), 공양왕 3년(1391) 등에 운하공사가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조선초기에는 태종조에 하륜(河崙)의 발의로 갑문식(閘門式) 운하공사를 재개하여 일시적으로 완공하는 듯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세조조에는 굴포운하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으며, 현종조에 다시 논란거리가 되었으나, 결국 건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차선책으로 의항(蟻項, 속명 개미목)운하 건설이 강구되었다. 의항운하 건설 논의는 중종 16년(1521)에 시작되었으며, 다음해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4개월만에 중단되었고, 중종 30년(1535)에 다시 김안로(金安老)가 굴포운하의 건을 제기하였고, 굴포와 의항의 득실을 재검토한 후 중종 32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착공 약 5개월 만에 준공하였다. 그러나 준공 후 흙으로 메워져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뱃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인조조에 태안의 아전 방경잠(房景岑)이 충청감영에 진정하여, 현재의 안면도와 남면 사이를 끊어서 운하를 완성하

였다. 그 결과 안면도의 內海인 적돌강의 배가 직접 서해로 통하게 되어 안면도를 도는 200여 리의 뱃길을 단축하였다. 그 운하를 일명 ‘백사수도(白砂水道)’라고도 한다.

〈표 4-6〉 조운 관련 운하(조거, 漕渠) 굴착 유적

종류	유적명칭	현 위치
조거 (漕渠)	泰安 漕渠	태안 태안읍 인평리·도내리와 서산 팔봉면 어송리·태장리 경계
	蟻項 掘浦	태안 소원면 의항리와 송현리 사이
	白砂水道	태안 안면읍과 남면 경계

조선초기에는 전라도의 稅穀이 서해안을 통하여 漕運되었다. 그리고 大同法이 시행되면서 부터 영남 세곡까지 모두 서해안을 거쳐서 운반되었으므로 안흥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인근 山祭堂과 城隍堂에서는 모두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풍어와 함께 조운선의 순조로운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1927년 당시까지 안흥량 일대에서 設行되던 산제당과 성황당은 모두 5개소로, 정죽리 지령산의 산제당, 정죽리 문필봉과 남산봉의 성황당, 신진도리 후망봉과 마도산의 성황당이 있었다.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의 안과사 역시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려고 건립한 사찰이라 전해진다.

내포의 삼교천변은 충청도의 세곡이 집결되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에는 많은 조창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공세곶창은 조선전기 규모가 가장 큰 조창이었으므로 주목되는 유적이다.

- 홍주 北倉 :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 창리지역
- 당진 北倉 :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태성마을
- 면천 南倉 : 당진군 우강면 창리 (창말, 창촌), 조선초기의 收租處였던 범근내포의 조창
- 면천 北倉 :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1구
- 당진 海倉 :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온동마을 북서쪽 해창마을
- 덕산 海倉 : 당진군 합덕읍 옥금리 덕산촌, 조선시대의 덕산군 비방곶면에 있었던 해창
- 예산·대흥·청양의 浦倉 : 현재의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창촌(창말, 창뜸)
- 신창 漕城倉 : 현재의 아산시 선장면 평창마을
- 천안 新宗倉, 德興倉, 頓義倉 : 예산군 신암면과 아산시 선장면 일대
- 아산의 貢稅串倉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 지방행정 및 관방유적

내포지방에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관방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조사된 성곽과 봉수 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예산군 : 임존성(사적 90호, 대흥면 봉수산 산정), 예산산성(예산읍 산성리), 성리토성(삼교천의 지류인 성리천 서안), 상성리 토성(삼교읍 상성리), 반창이 토성(삼교읍 수촌리), 안다락미와 받다락미 토성(삼교읍 이리의 두부락), 사동리 산성(덕산면 사돌리의 서쪽인 대성산 산정에 있는 석성), 덕산읍성과 돛 토성(덕산면 읍내리), 가야고성(봉산면 봉림리), 수암산성(덕산면 신평리와 삼교읍 신리의 접경인 수암산 중턱), 대흥읍성(대흥면 상중리·동서리), 금후산토성(고덕면 대천리), 소천태산성(봉산면 시동리 소천태산성), 대천태산성(봉산면 시동리 대천태산정)

② 당진시 : 면천읍성(도지정기념물 91호, 면천면 성상리), 당진읍성(당진군청 뒷산), 몽산성(면천면), 나무고개 산성, 송악산성, 아후산성, 태성, 고대 성산성, 속사리 산성, 당진포 진성, 성동산성(토미산성), 소소리산성(퇴미산성), 신평현성(운정리 산성), 자모산성, 국사봉산성, 곰개토성, 작문재토성, 당진포영(고대면 당진포리 1구 만길동), 난지도수(소난지도), 안국산 봉수지, 고산 봉수지, 창택산 봉수지, 회태산 봉화

③ 서산시 : 해미읍성(해미면 읍내리), 서산읍성(부춘동), 대산읍내 구진지(대산읍 대산리), 평신진지(대산읍 화곡리 반곡), 둔당리 토성산성(인지면 둔당리), 화수리 산성(인지면 화수리·성리), 도비산 봉수지(부석면 취평리), 고파도리 고파도성(팔봉면 고파도리), 진장리 산성(고성산성, 팔봉면 진장리), 호리성(팔봉면 호리), 산성리 부성산성(지곡면 산성리), 상흥리 산성(음암면 상흥리 상노치), 율목리 산성(음암면 율목리·성현면 명천리), 동암산성(운산면 가좌리·갈산리), 전라산성(운산면 안호리 전라산), 월평리 대성(운산면 월평리), 반양리 산성(해미면 반양리 성재산), 웅소성리 산성(해미면 웅소성리), 신송리산성(고북면 신송리, 봉화산), 봉화산 봉수(고북면 신송리 봉화산), 연암산성(고북면 장요리·초록리, 해미면 대곡리), 읍내동 북주산성(부춘동·동문동), 부춘산 봉수(부춘동), 예천동 공림산성(석남동)

④ 태안군 : 안흥진성(안흥진 설치, 근흥면 정죽리), 소근포진성(소근진 설치, 소원면 소근리), 태안읍성(태안읍 남문리), 백화산성(태안초교 뒷산, 백화산 정상부), 토성산성(근흥면 수룡리 토성산), 두야리산성(근흥면 두야리), 양잠리산성(남면 양잠리), 한의산성(태안읍 장산리)

⑤ 홍성군 : 홍주읍성(홍성읍), 결성읍성(결성면), 전 해풍현성(홍성읍), 월산산성(홍성읍), 내법리산성(홍성읍), 구룡리산성(홍성읍), 매성봉산성(광천읍), 태봉산성(광천읍), 봉화산성과 봉

수대(갈산면), 신금성지(결성면), 결성산성(결성면), 청룡산 봉수대(결성면), 송암리산성(금마면), 석성산성(장곡면), 학성산성(장곡면), 태봉산성(장곡면), 소구니산성(장곡면), 만경산성(홍동면), 효학리산성(홍동면), 용봉산성(홍북면)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임존성, 조선시대 충청도 해안 방어의 중심지였던 조선전기의 충청병영성[해미읍성], 조선 전시기의 충청수영성[보령 오천성], 내포 행정의 중심지였던 홍주읍성[홍주목 치소성] 등이 주목된다.

(4) 종교 유적

① 불교유적

가야산을 비롯한 내포지역은 불교유적의 보고이다. 가야산의 지명은 갯산[토착어] → 가야산[불교식] (→ 상왕산[한문투]) 등의 변용을 보인다. 가야산 주변에는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불교사찰들이 대거 분포해 있다.

마애불로 대표되는 유적은 유구한 불교 역사를 증명해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내포지방의 마애불로는 태안 백화산 마애불[태안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 서산 운산면 용현리 마애불[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예산 봉산면 사면석불[사면석불(보물 제794호)], 예산 삼교읍 용화산 등지의 마애불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가야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로 꼽히는 예산 덕산면 덕숭산의 修德寺를 비롯한 末寺와 암자들, 남연군 묘역에 있었던 伽耶寺址[가야사는 본래 고려시대에 건립된 대가람], 서산 운산면의 개심사[대웅전(보물 제143호), 靈山會掛佛幀(보물 제1264호), 冥府殿(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4호), 尋劍堂(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8호)], 문수사, 普願寺址[사적 316호,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84호)로부터 남쪽으로 약 1km에 위치한 절터, 石槽(보물 제102호), 幢竿支柱(보물 제103호),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法印國師 寶乘塔(보물 제105호), 법인국사 寶乘塔碑(보물 제106호)], 해미면의 일락사, 부석면의 간월암과 부석사, 인지면 애정리의 두애절[杜宇寺], 홍성 용봉산의 용봉사와 광경사지, 보령 미산면 성주리의 성주사지, 당진 정미면 수당리의 안국사지[석불입상(보물 제100호), 석탑(보물 제101호)] 등이 있다.

② 천주교 유적

내포지방에는 일찍이 ‘內浦의 사도’라 일컬어지는 이존창에 의해 천주교가 전래되어 내포교회가 설립되었다. 내포지방은 한국에서도 가장 활발한 전교지역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가혹한 박해에 맞선 수많은 순교자를 낳기도 했다. 내포에는 다음과 같은 천주교 유적지가 있다.

- 순교지 : 홍성 옥터, 해미 진영터, 서산 생매장 터
- 순교자 무덤 : 해미 생매장지, 서산 줄무덤, 공세리 성당 세 순교자 묘, 신평 성당 무명 순교자 묘
- 순교자의 출생지·거주지(교우촌) : 예산 여사울·간양골·수철리, 면천 솔피, 홍주 신리·거더리·길아들기·원머리·옥금재, 덕산 황무실·섬말, 서산 강달리, 신창 창말·남방재·용당포
- 유서 깊은 성당 : 아산 공세리 성당, 구합덕 성당

‘신앙의 못[菑]자리’라 불리워지는 솔피와 ‘신앙의 밭[墓]자리’로 알려진 여숫골은 내포교회의 상징이다. 통칭 ‘내포교회’라 불리는 충청남도 중서부 지역에서 흔히 ‘솔피[당진군 연천면 송산리]는 신앙의 못[菑]자리’라고 하는 반면에, ‘해미는 신앙의 밭[墓]자리’라고 전해지게 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내포지방의 어머니 본당으로 꼽히는 (구)합덕 본당, 한국 카톨릭 교회사를 집필하였던 신리 등 곳곳에 산재한 공소들, 순교처로 유명한 해미 읍성과 주변의 유적지, 보령 갈매꽃 등등 천주교 유적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5) 명현과 충절인 유적

산수가 빼어난 내포에서는 많은 명현들이 배출되었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논쟁이었던 호락 논쟁의 본격적인 출발점인 외암 이간(李柬, 1682-1727)과 남당 한원진(韓元震, 1677-1751)은 아산과 결성에서 태어났다. 외암의 세거지였던 외암마을은 민속마을로, 남당의 세거지였던 남당리는 대하축제가 열리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秋史 金正喜(1786~1856)의 증조부 漢蠹은 영조의 駙馬였으며, 한신의 8촌 형제인 漢耆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들 경주김씨는 서산 한다리[大橋] 마을에 세거한다고 하여 한다리김씨로도 불리웠다. 서산 음암에는 정순왕후 생가가 있으며,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의 추사고택(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은 증조부 한신이 건립했다.

崔瑩(1316~1388) 장군은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서 출생하였다고 전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三峯山가운데 봉우리에 崔瑩祠가 있다고 하며, 1871년에 간행된 『호서읍지』에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성삼문이 홍성과 인연을 맺고 있는 노은동은 성삼문의 外鄕이었는데, 성삼문은 1418년 외조부인 朴瞻의 집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한 후에도, 부인 연안김씨는 官婢의 몸으로 방안에 위패를 모셔두고 제사를 올려다고 한다. 부인의 별세 후에는 선생의 첫째 사위인 朴臨卿의 가문에서 奉祀하였으나, 그 집안마저 絶孫이 되면서 매죽헌 선생의 위패를 인왕산에 묻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1672년 이 위패를 발견하여 노은동으로 옮겨 봉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은동이 본인의 출생지이며, 동시에 아버지 성승 내외 및 부인의 묘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성삼문의 위판이 봉안되면서 향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685년에는 박팽년을 주향, 성삼문을 차향으로 하여, 이개·유성원·하위지·유응부를 배향하고,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은 별사하게 되었으며, 1692년에는 마침내 祿雲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기에 이르렀다. 1712년에는 魯雲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1769년에는 魯恩이라는 이름으로 3차에 걸친 사액을 받았다. 그러나 1871년에 노은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고, 사육신의 위패를 매안하였으니, 그것이 지금의 노은단이다.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만해 한용운(1879~1944)의 고향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박철동이다.

일제강점기에 만주를 배경으로 독립군을 지휘하였고 청산리전투로 유명한 김좌진(1889~1930) 장군은 홍성군 갈산면 향상리에서 출생하였다. 갈산면 행산리에 있는 생가터(충청남도 기념물 제76호)는 1992년에 복원하였다.

매헌 윤봉길 의사(1908-1932)는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목바리'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1968년에는 忠義祠를 창건하였고, 1972년에는 사적 제229호로 지정하였으며, 의사가 출생하고 성장했던 두 채의 가옥이 복원되어 있다.

(6) 기타유적

① 국마장 유적

내포지방에는 조선시대에 국마장이 많이 설치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국마장은, 겨울철에도 放牧할 수 있게 기후가 온화하면서도, 또한 물과 풀이 풍부하고, 비상시에 손쉽게 운송할 수 있게 서울에서 가까우며, 맹수가 출몰하지 않고, 또한 말이 산림으로 도망하지 못하는 곳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서남해안의 島嶼가 대거 국마장으로 편입되었다. 서울과 가깝고 섬과 곳(串)이 발달한 내포 일원도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표 4-7〉 조선조 충청도의 국마장 현황

郡縣名	地名	규모	위치	馬匹數	牧子	비고
沔川	倉宅串	東西6里 南北20里 周廻50里	在郡北35里	雌雄竝23匹	60名	
瑞山	大山串	東西10里 南北35里 周廻90里	在郡西北	雌雄竝330匹	488名	
	興陽串	周廻60里				廢止
泰安	梨山串	東西5里 南北30里 周廻60里	在郡北42里	雌雄竝260匹	157名	(正宗朝 폐지)
	智靈山串	周廻30里				廢止
	薪串		在郡北29里			廢止
	禿津島		在郡北洋中			廢止
	安面串					東陽尉 折受處
	大小山串		在郡西25里			廢止
洪州	元山島	東西10里 南北5里 周廻47里	在州西南洋中			移給安興鎮 水營移屬

② 예덕상무사

상무사는 1899년 상행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裨負商團의 업무도 관할하였다. 조선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裨商과 負商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시작하였는데, 1899년 상무사의 발족과 함께, 상무사에 편입되었다. 부여·정산·홍산·임천·한산·비인·남포·서천 등 소위 苧産八邑에서 생산되는 모시를 배경으로 하는 忠淸右道苧産八區商務左右社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덕산·예산·당진·면천을 무대로 하는 활동하는 禮德商務左右社가 미미하나마 활동하고 있다.

③ 남연군의 묘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는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80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연군의 묘가 있

다. 홍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버지인 남연군은 죽은 뒤 경기 연천에 묻혀 있었는데, 홍선대원군에 의해 ‘二代天子之地’의 명당으로 알려진 가야사가 있던 이곳으로 1839년에 이장되었다. 그 후 지관의 예언대로 홍선대원군의 차남인 명복이 고종으로 등극하였고, 1868년(고종 5)에는 독일인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미수사건까지 발생하여 이곳은 역사적으로 유명해졌다.

덕산면 광천리에는 남연군묘 이장시 사용했던 남은들상여 1습이 중요민속자료 3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앞바다에 있는 행담도는 오페르트가 남연군묘를 도굴하기 위해 타고 왔던 680톤급 차이나호가 정박했던 곳이고,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구만교 다리 부근의 九萬浦는 60톤급의 작은 증기선 크레타호가 삼교천을 거슬러 올라와 정박했던 곳이다.

(7) 소결

내포의 대표적 역사명소로는 크게 갯벌과 포구, 조운로와 조창, 지방행정 및 관방유적, 종교유적, 명현과 충절인 유적, 기타 유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특정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형	유적 및 특징
갯벌과 포구	전통시대 수로교통의 요지, 중국 선진문물 수용의 창구, 해만간척의 역사와 방조제 축조
조운로와 조창	전통시대 삼남지역과 왕도의 연결, 중앙재정의 근간, 운하 굴착
지방행정 및 관방유적	해안을 통한 외적 침입의 보루, 지방행정의 중심지
종교 유적	불교와 천주교, 마애삼존불의 전통, 가야산의 불교유적, 천주교 순교지
명현과 충절인 유적	성리학, 실학, 충절인, 항일열사 등의 다양한 유적 혼재
기타 유적	국마장 유적, 예덕상무사, 남연군묘 등

4) 민속과 생활

(1) 바다를 통한 어업과 상업활동

① 어염시수의 고장

내포는 흔히 어염시수(魚鹽柴水)가 모두 갖추어진 고장으로 지목된다. 바다와 하천에서 물고기를 쉽게 구하고, 서해에서 아산만에 이르는 바다, 특히 태안반도에서는 전통적인 구운 소금[煮鹽]을 많이 생산했으며, 집촌을 이루는 금강권의 내륙과는 달리 거주지 주변의 구릉에서 목재와 땔감이 풍부했던 관계로 전통시대에는 낙토(樂土)로 손꼽혔던 곳이다. 그러나 소금과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유통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외부와의 관계는 내륙의 농촌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② 어업과 상업포구

바다에 접한 곳이 넓게 분포한 까닭에 일찍부터 바다와 관련된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갯벌이 넓게 발달한 관계로, 연안어업과 자염생산이 활발하였다. 연안어업 가운데에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주목망(柱木網)과 독살[石防簾]이 특징적이고,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곳곳에 소금을 굽는 곳이 많았다. 원양어업으로는 연평도와 칠산바다의 조기잡이 등이 활발했는데, 어민들의 이동을 통하여 문화요소가 전파되면서, 문화적 동질성 내지는 유사성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았다. 서해안의 상업포구로는 조선후기부터 광천이 손꼽혔던 곳이다. 제염업을 포함한 어업과 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혈연과는 무관한 개인들로 구성된 작업조직과 외부와의 연망이 중요한 관계로, 종중에 기반한 혈연적 결속력이 크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비혈연 관계를 혈연관계처럼 중시하는 의사친족(擬似親族 pseudo-kinship)적 양상도 더러 확인된다.

③ 여러 고을을 연합하는 상인조직, 내포 보부상의 전통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국가에서 전국에 걸쳐서 직접 보부상을 조직화하면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상무사(商務社)라는 조직인데, 그 가운데 등짐장수[負商]는 좌사(左社), 붓짐장수[右社]는 우사가 된다. 그런데 내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개별 고을

단위로 상무사를 조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고을을 묶은 광역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즉 3개의 상단이 충청지역 중에서도 서부 내륙부터 서해안까지 걸친 광역의 지역을 삼분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예덕상무사가 예산과 덕산 및 면천, 당진까지를, 중간지역에는 원홍주육군상무사가 홍성·광천·보령·청양·대흥·결성 등 과거 6개 군현을, 그리고 그 아래로 저산팔읍상무사가 정산·부여·홍산·임천·한산·서천·비인·남포 등 과거 모시생산지과 관련된 8개 군현을 포섭하고 있다.

④ 상무사의 지원을 받은 장터 민속과 전문 연회패

조선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마을 단위로 행해지던 민속행사가 장터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인다. 상인세력의 지원을 받으면 대규모의 행사가 가능하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농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봉산탈춤이 읍치를 떠나 사리원 장터에서 연행된 것도 그러한 맥락일 것이다.

기지시는 예덕상무사의 지부[任所]가 있던 곳이다. 또한 한진·안섬·성구미 등의 포구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후의 농촌에서 생산된 미곡이 집산하고, 또한 농촌에 필요한 잡화를 유통시키는 경제적 거점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통경로가 복잡한 때문인지, 기지시에서는 5일 2번씩 1달에 12번 장이 선다고 하여 ‘열두장’이 개설되었다. 현재 필자가 면접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1900년 무렵에 주변 농촌의 줄다리기 전통과 풍물을 장터로 불러 모으는 ‘줄 난장’이 행해졌다. 기지시 임소의 상인들이 지원 아래 한진 포구로 향하는 도로를 경계로 동쪽 마을은 ‘물 위[水上]’, 서쪽은 ‘물 아래[水下]’로 구분하여 줄을 당기는 행사를 유치하였던 것이다. 일제감점기에도 성황을 누렸던 줄 난장은 전통 장시가 쇠퇴하면서 해방 후에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 가운데 1982년 ‘기지시줄다리기’라는 이름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전승이 이어졌고, 2000년대 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당진시를 넘어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민속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과거 장터를 유랑하면서 공연을 하다가 농촌에 정착한 전문 연회패들도 있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김덕수의 가계, 내포지역에서는 서산의 박첨지 놀이패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2) 뱃길을 통한 의례요소의 전파, 그리고 산천을 닮은 내포제

① 서해 어업활동의 산물, 어민들의 신앙과 의례

내포지역은 바다를 통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활발했던 곳이다. 내륙이라 하더라도, 금강 하류와 삼교천과 무한천 중류까지는 바닷배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므로, 거의 전 지역이 외부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뱃길은 역사적으로 대외 교류의 통로로 중요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어업 관련한 민속의 전파경로가 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던 연평도 조기잡이를 위하여 출어하였던 어민들을 통한 임경업 장군 의례가 충남 서해안 곳곳에 전파된 것이다. 충청도 서해안은 최소한 한말 무렵부터, 황해도와 전라도로부터 전래된 어업민속과 충청도의 전통적인 어업민속이 충돌하면서 변화하던 현장이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는 내포지역의 독특한 의례와 음악의 일부는 이어지고 있다.

② 앓은곳의 명맥이 끊기지 않은 고장

앓은곳은 속칭 ‘정쟁이’[經客]이 앓아 북과 징을 치면서 무경(巫經)을 읽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하나이다. 앓아서 독경하는 방식인 관계로 ‘앓은곳’이라 하며, 현재는 충청도에서 유행하고 특히 양반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고 하여, ‘충청도 곳’ 또는 ‘양반 곳’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앓은곳이 전국적인 분포양상을 보인다.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신앙 또한 지역적 정서에 맞는 신앙형태가 지역마다 살아남으면서, 지역의 고유성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전라도와 황해도의 ‘선곳’이 충청도 해변지역으로 소개되면서, 내포지역은 앓은곳과 선곳의 각축장이 된 셈이다.

앓은곳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내포지역의 마을마다 이어져 오던 풍물가락이다. 경상도의 남성적인 가락이나, 기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 풍물과는 달리, 경기 남부와 내포지역을 포함하는 충청 북부의 풍물은 소위 ‘웃다리 농악’이라는 전통으로 불려지고 있다. 한편 민속예술은 민간의례와 복합된 형태로 존재했는데, 의례로서의 앓은곳이나 음악으로서의 웃다리농악 등 내포지역 민간의례와 전통예술의 기조는 ‘담담함’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선비의 모습과 닮은 데가 있다. 지금은 거의 전승이 끊겼지만, 일제강점기때까지 독립적 장르로 널리 명성을 떨쳤던 종목으로는, 중고제 판소리 가운데 최근 ‘내포제’라고 부를 수 있는 판소리의 전통이 있다.

③ 내포지역 중고제의 한 갈래 내포제의 전통

지역의 문화적 전통에는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고, 소리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소리가 발전하고, 그 소리는 주민들의 심성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조선후기 판소리가 놀이패의 일부로 참가하는 데에 그치다가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에, 충청도와 경기도의 중고제는 전라도의 동·서편제와 더불어 판소리의 3대 유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동서편제는 대체로 섬진강을 경계로 구분되는데, 광주·나주·보성·장흥의 소리를 ‘서편제’라 했고, 섬진강 동쪽인 남원·구례·홍덕·고부의 ‘동편제’라 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중고제는 동·서편제의 중간에 해당된다고 하여 중고제(中高制)라고도 하고, 때로는 옛 소리 즉 고제(古制)에 가깝다고 하여 중고제(中古制)라고도 하였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한 판소리 연구자는 “판소리는 경기·충청에서 시작돼 금강을 건너 전북·경상과 전남으로 약 200년에 걸쳐 이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논리는 ‘판소리가 고제(古制)에서 중고제(中古制)로 변했고, 중고제에서 동편제가 출현했으며, 다시 서편제로 파생되면서 현대 판소리로 이어졌다’고 본다. 물론 판소리가 전라도 토속어와 무속의 장단이 결합했다는 전라도 기원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전라·충청·경기에서 동시에 형성되어 왔다는 주장도 있다. 중고제 또한 충청도의 정서에 맞았던 판소리의 가락이다. 마치 선비들이 사랑방에서 글을 읽는 듯 하였다고 하거나, 충청도의 산천을 닮아서 억지소리[假聲]를 쓰지 않는다고도 한다. 혹자는 담담하게 물 흐르는 듯한 중고제의 가락이 현재의 음악적 풍토에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실제로 한말 이후 음악의 경향이 점차 감정의 극단적 표현으로 경도되면서 중고제 판소리는 쇠퇴하였다.

중고제 판소리를 대표하는 현재의 논산시 강경의 김성옥 명창의 가계는 김성옥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아들 김정근으로 이어졌고, 손자 김창룡은 국창으로 이름을 떨치며 일제강점기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유성기 음반을 남기고 있다. 서산의 또 다른 명창 가계의 전통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성옥의 가문이 강경과 장항 등 금강변의 소리를 대표한다면, 심팔록·심정순·심화영으로 이어지는 가문은 최근 ‘내포제’라 부르는 소리의 전통이다. 특히 심정순은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산조, 재담 등으로 유명한 국악 명인이고, 아들 심상건은 가야금산조의 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양금과 거문고 풍류 및 해금도 능하였다. 딸 심화영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승무’의 보유자였다. 가수 심수봉은 심상건의 조카로, 중고제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내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조선시대 내포라는 용어가 지칭하던 지역범위는 ① 내포 중의 내포라고 할 수 있는 삼교천 유역, ②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언급한 가야산 주위의 10여 고을, ③ 조선시대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던 홍주목과 관련한 홍주진관 소관의 20여 고을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일반화된 개념은 가야산 주위의 10여 고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동으로는 죽산의 칠현산에서 남쪽으로 치달리는 금북정맥의 본줄기에 가로막혀 충청도의 내륙지방과 격리되어 있고, 남으로는 오서산에서 보령의 진당산으로 갈라지는 금북정맥의 작은 갈래에 의해 구분된다. 서로는 서해라는 큰 바다를 끼고 있으며, 북으로는 경기의 바닷가 고을과의 사이를 아산만이 가로막고 있다.

이와 같은 내포의 지리적 위치는 전근대시기에 내포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진출하는 육로를 크게 제한하여 왔다. 우선 내포에서 충청도의 행정중심지인 공주와 통하는 길은 예산에서 차령을 넘어 유구를 거치는 길이 거의 유일하였다. 이 길은 공주와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금강유역에 펼쳐진 금강문화권과, 가야산 자락에 펼쳐진 바다를 끼고 있는 내포문화권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다. 내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내륙으로 깊이 만입되어 있는 아산만을 빙 돌아 삼교천의 중상류에 놓여져 있던 다리나 나루를 건너야만 했다. 오히려 거리의 단축을 위해서는 대진나루를 이용하여 아산만의 하구 바다를 건너 평택으로 가는 것이 편리했다. 사실 내포지방에서는 육로의 불편함과 달리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포구를 갖고 있었으므로 수로가 더 긴요하게 이용되었다. 내포의 이와 같은 지리적 환경은 내포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도록 한 측면도 없지 않다.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내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⁴⁰⁾.

(1) 고대 중국선진문화 수용의 창구

내포는 백제가 공주로 도읍을 옮긴 5세기 말 이후 중국문화의 초입지(初入地)로서 새로운 문물을 도입한 선진적인 문화지역이었다. 삼국시대에 백제와 중국을 연결하던 항로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의 미비로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현존하는 태안 백화산 태을암에 있

40) 임선빈(2003), 「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성격」, 『역사문화지리』 15-2. 참조.

는 마애삼존불, 서산 운산의 용현계곡에 있는 서산마애삼존불, 예산 화전리의 사면석불입상 등은 이 지역이 중국 선진문물이 수입되는 경로였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최완수는 중국 석굴조각 양식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마애불 양식이 예산사면석불(보물 794호)로, 불상제작 시기는 백제 무녕왕의 뒤를 이은 성왕(523~553) 때이며, 주불인 남면 석가여래좌상은 무녕왕의 초상조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덕왕(554~597) 때에 성왕의 초상조각인 태안마애삼존불(보물 432호)을 조각했으며, 무왕(600~640) 초년 경에는 내포지역 미남미녀 상호와 특유의 미소를 나타낸 보다 세련된 서산마애삼존불(국보 84호)을 조각해 낸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들 내포지역의 마애불은 모두 사람 키 이상의 크기를 가진 거대한 규모의 불상들로서 당시 이런 규모의 불상제작은 백제의 수도가 있던 공주나 부여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 실제로 백제문화의 중심지는 백제 해상세력의 근거지가 되고 있던 내포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태안반도를 세력기반으로 하고 있던 세력은 진씨 일족으로 추정된다.

백제후기 내포지역의 수덕사에는 혜현(慧顯, 570~627)대사라는 고승이 있어 삼론학을 강의하고 법화경을 영송하여 대중을 교화하였다. 수덕사 혜현대사에 대한 기록은 당나라 태종 정관 19년(645)에 도선(道宣)율사가 편찬한 『속고승전』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당시 내포지역의 불교 수준이 세계적이었다.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멸망당했을 때에도 내포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백제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부흥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도침(道琛, ?~661) 대사는 수덕사 승려로 추측되고 있다.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는 내포지역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이 지역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서산마애삼존불이 있는 상왕산 계곡에 보원사를 크게 중창해 짓고 화엄종찰로 삼아 이곳 불교를 장악해 가게 한다. 이에 보원사는 소위 화엄전교십찰(華嚴傳敎十刹) 중의 하나로 손꼽혀 이후부터 이 지역 불교의 중심사찰이 되었다. 그러나 이곳 백성들의 반신라적인 감정은 더욱 골이 깊어가 통일신라왕국이 통일의 여세로 극성을 보일 때까지는 변방의 망국 후예로 은인자중하고 있었지만, 차차 신라 왕실이 내분을 보이면서 해체되어 나가는 기미가 나타나자 옛 백제의 해상 전진 기지다운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통일신라 왕조의 주도이념이던 화엄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념으로 새 사회를 건설해 가려는 신사조 운동이 맨 먼저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앞장선 인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문인 가지산문의 실질적 개산조인 보조선사 체징(體澄, 804~880)으로 그는 가야산 보원사 계단에서 계를 받은 내포출신 인물이다.

또한 내포의 남쪽 끝에 해당하는 성주산에는 낭혜화상이 847년(문성왕 9)에 성주산문을 개설하였다.

당진(唐津)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 종래의 벌수지현(伐首只縣)이 개칭된 것인데, 지명에서부터 당나라와의 활발한 교역창구로 활용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조선후기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김정호에 의하여 편찬된 『여도비지』와 『대동지지』에 의하면,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덕물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당진에 상륙하였다고 하며 [백제의자왕이십년당소정방자등래도해주군덕물도인박당진⁴¹⁾, 백제의자왕이십년당장소정방주군덕물도박당진하록⁴²⁾],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방구암(防寇岩) 전설에 의하면, 삼국시대 당군이 서해의 덕물도에 주둔했다가 일부 병력은 송악면 한진으로 상륙하고, 일부는 난지도를 경유 내륙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상륙한 곳이 방구암이었는데, 당시 백제군이 이를 알고 사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상륙하는 당군을 격퇴하며 그들은 강 건너편 당진포리(唐津浦里, 현재의 당진군 고대면)에 상륙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후대의 기록과 전설은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민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진포는 백제 때부터 당과 교역하던 포구로 백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당과의 왕래가 더욱 잦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통일신라시대에는 ‘唐津’이라는 지명까지 얻은 것으로 보아 당과 교류하는 대표적인 항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송나라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중국의 변경(汴京, 지금의 하남성 개봉)을 떠나서 고려 수도인 개성의 예성항에 입항하는 항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항로도 내포의 바닷가를 지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협계산(夾界山, 당시 중국과 이족의 바다경계) - 흑산(黑山, 대흑산도로 추정) - 군산도(群山島, 전라북도 군산시로 추정) - 횡서(橫嶼) - 자운점(紫雲岾)[자운섬] - 부용산(富用山, 洪州 경내로 富用倉이 있다고 함)을 거쳐 마도(馬島)의 객관인 안흥정(安興亭)에서 청주 수령의 예를 받으며 하루를 묵고, 이튿날 출항하여 구두산(九頭山) - 대청서(大靑嶼) - 화상도(和尚島) - 소청서(小靑嶼) - 자연도(紫燕島) - 분수령(分水嶺)을 경유하여 예성항에 입항한다. [『宣和奉使高麗圖經』 第34卷 海島條~第37卷 馬島條] 그런데 1박을 했던 마도는 안흥정이 있고 여울이 험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재의 태안군 근흥면 마도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마도가 청주 땅으로 고려의 국마장이 있었으며, 마도라는 이름도 관마(官馬)를 먹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내포지방은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南京)이었던 명초에는 양

41) 百濟義慈王二十年唐蘇定方自登萊渡海駐軍德勿島因泊唐津(『輿圖備考』, 唐津縣 武備條 戰略)

42) 百濟義慈王二十年唐將蘇定方駐軍德勿島泊唐津下陸(『大東地志』, 唐津 典故條)

국의 사신이 직접 출입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내포지방의 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는 중국에서 해금정책이 실시되기 전인 고려전기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건너와 내포지방에 처음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태안이씨, 서산정씨, 소주가씨, 절강편씨 등의 입향과정을 통해서도 중국과 내포지방이 바닷길을 통한 교류가 활발했음을 추측케 한다.

(2) 왜구의 침입과 이양선 출몰

내포지역에는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폐쇄되어 있었을 때인 여말선초와 조선후기에 외국세력의 잦은 침투가 있었으니, 왜구침입과 이양선 출몰을 들 수 있다.

여말부터 한반도 해안에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는 조선조 세종대까지 100여 년간 해안지방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왜구의 주된 공격목표는 조운선과 조창이었으며, 홍수로 강물이 불었을 때에는 내륙 깊이 침투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왜구로 말미암아 조운이 통하지 않아 개경의 창고가 텅 비게 되었고, 공민왕 6년과 7년, 우왕 원년·4년·7년 등에는 관료의 녹봉지급에 차질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여말에 내포지방에 왜구가 침입한 사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왜구의 침입은 조선초기에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태종 11년에는 경상도 연해변 주군(州郡)의 수령을 모두 문무겸비한 자로 택하여 차견하도록 하였고, 세종 즉위년에는 무략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연해지방의 수령에 충원하여 왜구 방비를 하도록 명하고 있다. 따라서 내포지방에도 무관 수령이 많이 파견되었다. 또한 왜구 방비를 위하여 수군진을 설치하였다.

〈표 4-8〉 여말에 내포지방에 왜구가 침입한 사례

시기	왜구가 침입한 시기
공민왕	원년(안흥, 서주<서산>), 6년(결성, 홍주), 7년(면천), 9년(신평), 13년(내포), 18(예산·면천), 19년(내포), 21년(홍주, 양광도), 22년(태안-폐군)
우왕	원년(서주, 결성, 양광도 연해안), 3년(신평, 홍주, 이산<덕산>, 신창), 4년(태안, 덕풍<예산군 덕산면>, 합덕, 서주, 면천), 5년(여미<당진군 정미면>), 6년(결성, 홍주), 7년(이산, 서주), 11년(서주)

여말부터 세종대까지 해안방어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무관직 수령들은 성을 쌓고 산지로 대피했던 백성들을 모아 둔전을 만들었다. 이때 축성된 성곽들은 읍성·산성·진성 등으로 구분되는데 아산·예산·덕산·대흥·신창을 제외한 내포의 모든 읍에 축성되었고, 오천·안흥·평신·소근·서천포 등지의 수군진에도 축성하였다. 읍성이 없는 예산·대흥 등지에는 산성을 쌓았다.

조선후기의 내포지방에는 황당선(荒唐船)과 이양선(異樣船)이 자주 출몰하였다. 황당선과 이양선은 조선중기 이후 우리나라 연해에 출몰하던 소속불명의 배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서양의 배는 우리나라 배와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이양선이라 불리었다. 동양 침략에 열을 올리던 서양 세력은 정조 이후 조선으로 접근해 왔는데, 특히 순조 이후 자주 나타나 해역을 소란하게 하여 조선 정부에 두려움을 주게 되었다. 이 외국 선박들의 국적은 주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이었다. 18세기 이전에는 거의 표류에 의한 불가피한 접근이었으나, 18세기 후반 이래 이양선의 출몰은 정탐, 측량, 통상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접근이었다. 『실록』을 통해 충청도 연해에 나타났던 황당선과 이양선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44년(중종 39) 馬梁 앞, 남포 禿山島, 태안 麻斤浦, 荒唐船 1척

1546년(명종 즉위) 8월 馬島, 荒唐船 1척

1556년(명종 11) 7월 태안 禿津 荒唐船 1척(인가와 私船 약탈)

1559년(명종 14) 5월 남포현, 荒唐船 1척(왜적)

1634년(인조 12) 10월 태안 서해포, 唐船 1척(표류)

1639년(인조 17) 9월 보령 놀이도, 淸船 1척(의복 식량 약탈)

1655년(효종 6) 5월 堀業島 唐船 3척(防牌船을 습격)

1721년(경종 1) 윤6월 안흥진, 荒唐船(중국 등주인)

1738년(영조 14) 평신진 앞바다, 荒唐船

1794년(정조 18) 마량진, 荒唐船(중국 등주 황현인)

1816년(순조 16) 7월 마량진 갈곶, 異樣船 2척

1832년(순조 32) 6월 홍주 고대도, 異樣船 1척

1832년(순조 32) 7월 서산 간월도, 異樣船 1척

1846년(헌종 12) 6월 홍주 외연도, 異樣船 1척

1866년(고종 3) 2월 평신진 조도, 해미현 조금진, 異樣船 1척(통상요구)

1868년(고종 5) 4월 홍주 행담도, 異樣船 1척(오페르트 일행)

1868년(고종 5) 4월 소근진 부근, 異樣船 1척

1869년(고종 6) 1월 소근진 부근, 異樣船 1척

바다를 끼고 있던 내포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택리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내포사람들은 바다를 이용하여 생선과 소금을 만들었고, 이를 서울과 충청도의 내륙으로 드나들며 팔았으므로 일찍부터 상업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특히 내포에는 목화재배가 적절치 않아 내포의 생선과 소금을 유구의 목화와 바꾸어 가므로, 공주에서는 오직 유구만이 내포의 생선과 소금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한다⁴³⁾. 내포의 포구로는 하천의 수량이 많고 근원이 긴 아산 공세호와 덕산의 유궁포는 말할 것도 없고, 홍주의 광천과 서산의 성연도 비록 시냇물 항구이지만, 조수가 통하는 까닭에 발달한 포구였다⁴⁴⁾.

서구의 선박이 도입되기 전까지 한국의 선박은 주로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平底船)이었으므로, 조수를 이용하여 입항하였다. 즉 평저선은 밀물을 이용하여 해안가에 배를 대는데, 썰물에는 자연스럽게 갯벌 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포구는 갯벌이 넓게 발달한 지점에 위치하였다. 그런데 내포지방의 바다는 대개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조차가 6~9m에 달하였으므로, 조수의 운동에 따라 토사의 자연적인 퇴적이 이루어져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갯벌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부터는 이와 같은 내포의 바다를 막아 농토를 만드는 해만 간척도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나아가 내포의 구릉지 개발과 해만 간척을 통해 확보된 농경지는 이 지역에 새로이주하는 사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3) 다양한 학문과 문화의 공존

내포지역에서는 고려말에 성리학 수용에 앞장섰고,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시대 성리학적 분

43) 州西北有茂盛山 … 內有麻谷寺維鳩驛 西踰一峴卽內浦也 內浦不宜木綿 海戶浦漁之民 以魚鹽多 貿綿於此 故公州惟維鳩館內浦魚鹽之利(『擇里志』八道總論 忠清道條)

44) 內浦則牙山貢稅湖德山由宮浦 水大而源長 洪州廣川瑞山聖淵 雖溪港而通潮 故並爲商船居留轉輸之所(『擇里志』卜居總論 生利條)

위기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지 않았으며, 조선후기에는 실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우선 고려말에 내포의 지식인들은 성리학 수용에 앞장섰다. 그 중에서 성리학을 처음으로 연구 보급한 백이정의 묘소는 보령군 웅천면 평리 양각산에 있으며 그곳에 그를 모신 신안사와 그의 신도비가 있다. 원래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안향이지만, 원나라에 10년간 있으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와 이를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백이정이다. 그리고 백이정의 뒤를 이어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곡(1298~1351)·이색(1328~1396) 부자를 비롯한 한산이씨가문이다. 선조 사육신의 한사람이었던 이개(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1466~1524)도 이색의 후손이다.

16세기 기호유학은 화담계열이 중심이었다. 화담 서경덕은 무인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이중 내포 지방에 살던 인물로는 이지함·서기·홍가신 등이 있다. 이지함(1517~1578)은 한산이씨로 보령 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이지함은 화담의 영향을 받아 유학사상뿐 아니라 도가사상, 상수학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상공업도 중시했다. 천문·지리·의학·복서·산수 등에 두루 능통한 박학풍의 인물이다. 그는 정통성리학자들과는 달리 의(義)와 리(利)를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여 상업과 수공업을 중시했다. 이러한 학풍은 그의 조카인 이산해와 유몽인·김신국 등 북인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서기(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의 문인으로서 화담문하에 출입했다고 한다. 그는 만년에 공주의 공암에 살다가 그곳에서 묻혔으나,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으며 선기옥형(璇璣玉衡)을 제작했고, 조헌등과 함께 동방분야도(東方分野圖)를 고쳤다고 한다. 동방분야도는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독자적인 천문체계였다. 홍가신(1541~1615)은 화담의 제자인 민순(1519-1591)의 제자이다. 홍가신은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바 있다.

17세기에 서인계열의 율곡학파가 정립되자 기호의 화담학파는 무너지게 되었고, 나아가 율곡학과 내에서 인성과 물성이 같으나 다르냐를 놓고 인물성동이논쟁이 일어났다. 이는 율곡의 주기론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낙론]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이론[호론]으로 갈리었다. 호론의 중심인물인 남당 한원진은 내

포의 결성현 남당리[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 출신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예산의 병계 윤봉구, 매봉 최징후, 서산의 한간 김한록, 봉암 채지홍 등이 있다. 낙론의 지지자들은 주로 경기도에 살았지만, 중심인물인 외암 이간은 온양의 외암리[현재의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출신이다. 이와같이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의 하나인 인물성동이논쟁은 내포의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내포의 지식인 중에는 인물성동이론에 끼지 않은 유명한 학자·정치인도 많았다. 토정 이지함의 조카로 대북의 영수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아계 이산해(1539~1609,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위치), 인조초 김장생·장현광과 함께 조정에 징소된 3대산림으로 예학에 뛰어났던 박지계(1573~1635, 신창사람으로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 효종때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의 억울함을 논하다가 죽임을 당한 김홍욱(1602~1654, 정조대의 벽파 김구주의 조상으로 서산 사람, 성암서원 배향, 묘소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김굉필·정여창·이언적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었고, 김육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던 포저 조익(1579~1655), 권필·윤근수·이호민 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던 동악 이안눌(1571~1637), 박지계와 조익의 문인이며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던 야곡 조극선(1595~1658),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에 우거했던 남구만(1629~1711), 홍주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 변암 채제공(1720~1799) 등이 모두 내포인이다.

내포에는 성호학통의 실학자들도 많이 살았으니, 여주이씨인 이병휴·이용휴·이삼환·이철환·이가환·이재위 등이 그들이다.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 1710~1777)는 성호의 조카이며 고제로서 성호좌파의 수장이다. 그 문하에서 권철신·권일신등 천주교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경학에 밝았으며 성호의 가장을 썼다. 혜환(惠寬) 이용휴(李用休, 1708-1782)는 덕산현 장천리에서 태어나 외가인 덕산현 염곡에서 자라났다. 재야학자로서 문학에 밝았으며 음운학·병학·농학에도 두루 달통했다. 고덕에 살면서 뱃길로 안산 성포리에 있는 스승인 성호선생과 왕래하면서 연구에 몰두했는데, 그의 실학은 아들인 이가환(李家煥), 외손 이승훈(李承薰) 또는 이학규(李學逵) 등에게 전수되었다.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은 정조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학자관료였다. 채제공의 후계자로 남인의 지주가 될 것으로 촉망받았으나, 정

조가 죽자 천주교도로 몰려 1801년 신유사옥 때 처형되었다. 우리 나라 역사·풍속·인물·문학에 두루 밝았으며, 역시 고덕 땅에 살았다.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 1729~1814)은 12세에 종조인 성호선생에게서 성호의 손자 이구환(李九煥)과 함께 수학했으며 부친인 이병휴의 학문을 전수했다. 역시 고덕 땅에 살았다. 장천(長川) 이철환(1722~1779)은 성호의 종손이고 이재위(李載威)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물보(物譜)』를 지었다. 내용을 작성한 것은 아버지 이재위이고, 편차를 정하고 책 이름을 붙인 것은 아들 이철환이었으며, 이기경이 발문을 썼다.

이외에도 유명한 고증학자인 추사 김정희(1786~1856)도 내포사람이다. 그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태어났으며 지금도 고택이 남아 있다. 고증학의 대가로 특히 금석학에 밝아 진흥왕순수비인 북한산비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뛰어나 이른바 추사체를 개발했으며 그림도 잘 그렸다. 세한도는 그의 작품이다. 저서로서는 『추사집』이 있으며 이상적·오경석 등 중인 출신 인재들과 교유하여 영향을 미쳤다. 경주김씨이며 벽파 집안의 인물로 홍선대원군과 가까웠다.

내포는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내포의 사도라고 일컫는 이존창(1752~1801, 초기 천주교 순교자. 세례명 루도비코. 일명 端源)은 예산의 농민 출신의 학자로, 초기 천주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인 권일신(權日身)으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 뒤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하에 신부가 되어 충청도 지방을 맡아 전교에 힘쓴 결과 내포(內浦)의 사도로 불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가성직제도가 교리에 어긋남을 알고는 성직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윤유일(尹有一)에게 여비를 주어 중국 북경에 보냄으로써 마침내 주문모(周文謨)신부를 맞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1791년(정조 15) 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혹심한 고문에 못 이겨 한 때 배교하여 홍산으로 이사갔으나, 전날의 배교를 뉘우치고는 더욱 열심히 전교함으로써, 내포와 그 인근지방은 다른 어느 고장보다도 천주교가 가장 성하였다.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金大建)의 할머니는 그의 조카딸이 되고, 최양업(崔良業)신부는 그의 생질의 손자가 되는 등, 조선 말기의 신자 중 대부분이 그가 입교시킨 신자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으리만큼 그의 전교상의 공헌은 지대하였다. 1795년말에 그는 다시 체포되어 고향인 천안으로 옮겨져 6년 동안 연금생활을 하던 중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다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4월 8일 정약중(丁若鍾) 등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아 공주감영으로 이송되어 참수되었다. 예산 여사울 성지가 남아 있다.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1822~1846)은 당진 솔피 출신이며,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1821~1861)은 홍주(洪州) 다락골(지금의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출생이다. 내포는 천주교 신앙의 못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미 여섯골 성지, 보령 갈매꽃 성지, 청양 다락골 줄무덤 등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처형되거나 묻힌 신앙의 뗏자리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내포의 근대사에서 태안의 동학, 홍주의 의병활동 등이 주목된다.

제5장 지리적 ·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내포의 정체성

1. ‘내포’의 지리와 지역 정체성

1) 천혜의 자연조건, 풍부한 물산

한국사회에서는 지금도 충청도 사람 하면 우선은 ‘순하고 온화한 사람들’, ‘정이 많은 사람들’로 부르는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충청도 사람들의 인성은 바로 풍요로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배태된 것일 것이다⁴⁵⁾.

같은 충남이기는 하지만, 금강유역과 삼교천을 중심으로 한 내포지역은 적지 않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차령산맥의 줄기가 이들 두 지역을 단절시키면서 별개의 생활권을 조성하여 왔기 때문이다⁴⁶⁾.

내포지역은 긴 해안선의 바다를 끼고 있고, 가야산과 삼교천이 그 줄기를 구성하고 있다. 차령산맥의 줄기가 서남으로 빗겨 질러가면서 그 동쪽과 서쪽의 구분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 이 내포지역은 내륙수로의 교통상의 기능 쇠퇴, 대전권의 발달 등에 의하여 근대 이후 지역발전이 늦어졌지만, 사람들의 거주 환경으로서는 일찍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내포)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 200리 쯤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의 바닷가 고을과 큰 못(大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곧 서해가 쏙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큰 들판이고, 들 가운데에는 또 큰 개(大浦)가 있으니 이름이 유궁진(由宮津)으로,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를 이용할 수 없다. 남쪽으로 오서산에 막혀 있는데 가야산으로부터 온 맥으로 단지 동남쪽으로 공주와 통한다⁴⁷⁾.

45) 이해준, 『서해와 금강이 만나 이룬 문화』 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6. p.13

46) 윤용혁, 『충청역사문화 연구』, 서경문화사, 2009. p.12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 ……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함께 내포라 한다. 지세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 병자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이중환, 『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

고 하여 충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일컬었고,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에서 ‘태극을 이루는 大吉地’이라 하고 있다.

2) 해로발달과 ‘새 문화의 관문’ 내포

다음으로 내포문화는 서해로 향해 열린 관문적 성격이 강하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서울, 그리고 호남지역을 사이에 둔 삼각지대로 개방적인 문화교류를 해왔다. 서해안을 따라 발달한 ‘바닷길’이 일찍부터 내포만의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게 하였다. 내포의 서해안은 일찍부터 삼남의 조운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충청도 이남의 세곡을 경도로 운송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유해야만 했던 곳이다. 이 바닷길은 흡사 오늘날의 철도교통이나 고속도로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저 멀리 고대의 선사문화나 백제문화는 논외로 하더라도 바다는 내포인들에게 내륙의 깊은 골짜기와 평야지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화전과 루트였다. 우선 우리 역사에서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개방되어 있을 때 내포는 바다를 통한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 역할을 했다⁵¹⁾.

2. 내포지역의 다양한 문화특성들

1) 내포의 백제문화와 백제정신

51) 임선빈, 「조선후기 내포지방의 역사지리적 성격」, 『백제문화』 29,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2000. p.165

윤명철, 「동아시아 속의 서산과 그 해양문화적 의미」, 『백제문화』 34,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2005. pp.34~37.

(1) 백제불교미술의 백미 내포의 삼존불상

백제문화의 동력은 불교문화였다. 백제 불교는 불교 전파의 초기로서 왕실과 귀족이 신앙층이었다. 따라서 백제의 불교사원은 공주, 부여 혹은 익산과 같은 도성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도성 이외의 지역에서 불교 사원의 건립예가 전혀 없지는 않다. 보령 성주사의 전신인 오합사(오합사)를 비롯하여 예산의 수덕사, 서산의 보원사절터는 백제시대에 처음 절이 건립된 예로 생각되고 있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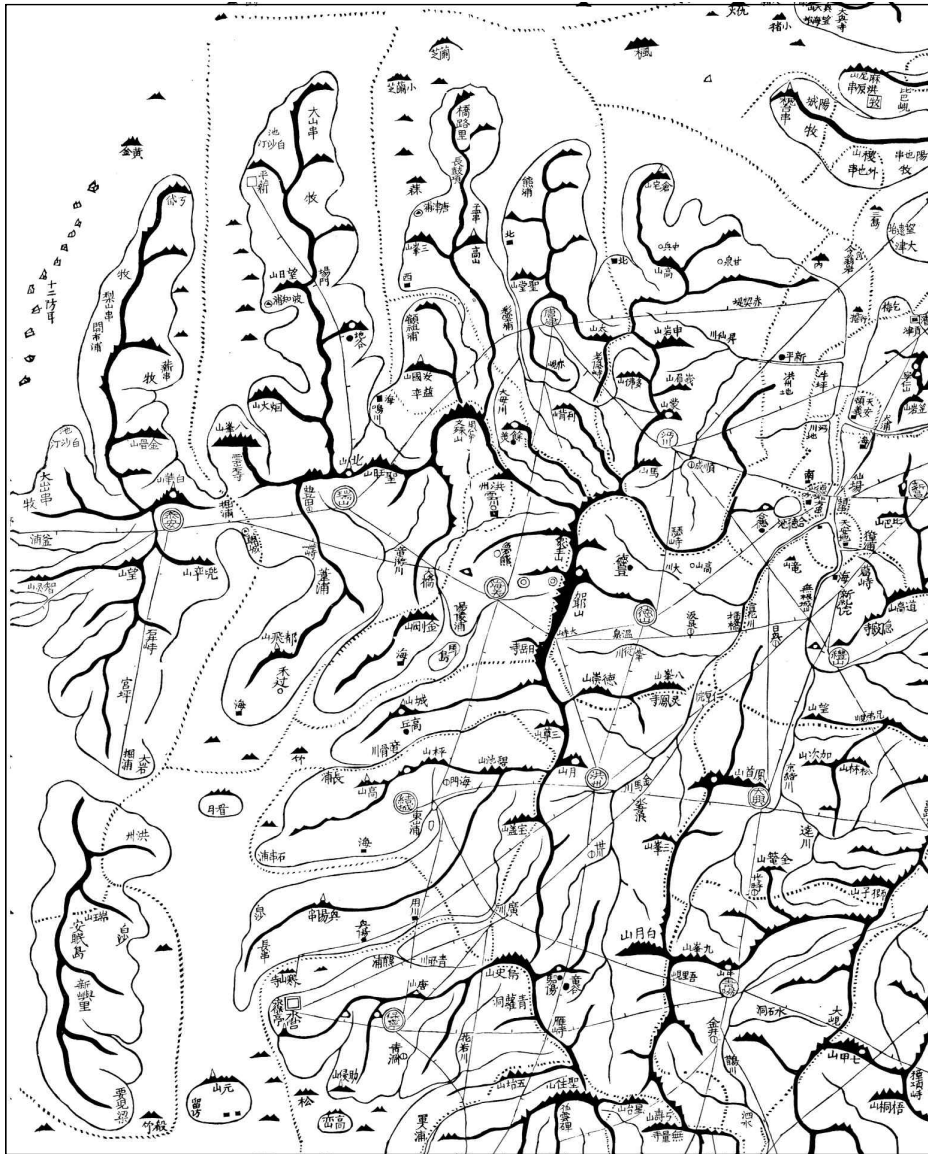
수덕사는 고려시대 대웅전 건물로 유명하지만, 『삼국유사』 혜현구정조(惠現求靜條)에 북부 수덕사라고 기록된 백제 시대 12개의 사찰 중의 하나로, 수덕사에는 혜현대사(惠顯大師)(570-627)가 주석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645년 당의 도선율사가 편찬한 『續高僧傳』(28, 百濟國達摩山釋慧顯傳)에 기술되어 있다. 그가 백제의 북부 수덕사에서 경을 강론할 때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물려들었다는 것이다. 또 이곳에서 백제의 연화문와당이 발견되어 백제 창건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내포지역의 불교사원 건립과 함께 가야산 주변의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태안 마애삼존불, 서산 마애삼존불 등 백제 석불 3례는 매우 주목되는 사항이다. 내포지역의 백제인들은 가야산 동쪽에 위치한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을 6세기 전반 중국 남조 석굴사원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하였으며, 6세기 후반에는 태안 백화산 정상에 태안 마애불을 조각하였고, 7세기에 이르러서는 가야산 북쪽 봉우리 상왕산 용현계곡에 서산마애 삼존불을 만들어 내었다. 당시 이러한 규모의 불상제작은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를 비롯한 한반도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었다. 가야산의 백제 석불들은 태안반도에서 공주, 부여 도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내지 대중국 교역로로서의 지리적 특성이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도성 이외의 백제 불교문화권으로서의 내포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지역의 문화적 독자성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⁵³⁾.

52) 보령 성주사의 전신인 백제 오합사에 관해서는 '적색의 말이 북악에 있는 오합사에 들어와 佛宇를 돌며 울다가 며칠 만에 죽었다'는 기록 등이 있다.(『삼국사기』, 의자왕 15년 5월조)

53) 최완수, 「내포의 불교」, 『내포문화』 1, 내포문화연구원, 1997

박성상, 「서산마애삼존불상연구」, 『문화사학』 25, 한국문화사학회. pp.46~49



〈그림 5-2〉 대동여지도 중 내포지역 부근도

(2) 백제부흥운동과 임존성

임존성은 예산군 대흥면 일대를 가리키는 행정구역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봉수산정상에 구축된 산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임존성은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한 부여도성 함락 직후 복신(福信), 도침(道琛), 흑치상지(黑齒常之)에 의하여 부흥운동의 봉화가 올려진 곳이다.

흑치상지가 봉기하여 임존성에 의거하자 10일 만에 3만 여명이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복신 등이 이에 합류하였다⁵⁴⁾. 이에 소정방은 나당군을 동원하여 660년 8월 26일 임존성을 공격 하였으나 실패하고 유인원의 1만 당병, 김인태의 신라 7천군으로 사비를 지키게 하고, 의자왕 및 태자 孝, 왕자 泰, 隆, 演 및 대신 장사 88인, 백성 1만 2천 807인을 포로로 하여 뱃길로 귀국하였다. 소정방의 조기 귀국은 백제의 왕, 왕족, 대신을 포로로 하여, 부흥운동의 기를 꺾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심·도침 등 부흥군은 사비성을 감행하였고, 나당군의 공격을 막아 내었으며 왜에 머물던 왕자 풍이 귀국, 백제의 왕통을 이었다. 그러나 부흥군 내부의 갈등으로 부흥군의 세력과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임존성의 흑치상지는 풍의 복신 살해에 반발한 듯, 당(부여 룡)에 항복하고 말았다.

663년 신라는 문무왕이 직접 김유신 등 28장군을 거느리고 7월 17일 출발, 웅진에서 당의 유인원과 합세하여 웅진강으로부터 백강으로 가서 수륙군이 합세하였다. 한편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왜의 원병 1만은 '백강(백촌강)구'에 도달, 양측 수군이 백강구를 사이로 대치하였다. 8월 말 왜의 선공에 의한 백강구싸움은 썰물을 타고 당 수군이 협공하여 4회에 걸친 싸움 끝에 왜 선단 400여 척이 궤멸되었다. 9월 주류성은 함락되었고 임존성의 지수신(遲受信) 부흥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1월 임존성은 흑치상지에게 함락되고, 지수신도 고구려로 도망함으로써 백제 부흥운동은 종식되었다.

※ 백제부흥운동의 거점 - (주류성 설) (대잠도와 당군, 흑치상지, 소정방사우)

2) 라말려초 변혁기의 내포지역

(1) 고려태조 왕건과 윤주성

934년 고려 왕건과 궁준 사이에서 벌어진 운주 전투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로부터 1년 뒤에 935년 왕건이 신라의 항복을 받고, 936년에는 후백제를 병합하여 민족을

54) 『삼국사기』 권제28 「백제본기」 제6.

재통일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왕건의 편에 선 궁준이 후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우면서 운주가 내포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고려가 민족을 재통일하는데 공이 컸던 궁준은 태조로부터 홍씨 성(姓)을 하사받고 이름을 홍규(洪規)로 바꿨다. 아울러 그의 딸 홍복원부인은 태조의 12번째 왕비가 되었다. 운주가 왕비의 고향이 된 것이다⁵⁵⁾. 이러한 정치적 변동과 함께 홍성은 급부상하여 '운주', '홍주'로 이름을 바꾸고 내포지역 15개 군·현을 관할하는 응부로 발전한다⁵⁶⁾. 995년(성종 14) 도단련사가 파견되었던 운주에 1012년(현종 3) 지주사가 설치되었다. 1018년 洪州로 지명을 바꾸고, 3군 12현을 관할하였다. 홍주가 내포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 된 것이다.

※ 고려태조 왕건의 전략제휴 지역
해로와 선종
홍주의 탄생, 복지검, 박술회
합덕제와 견훤, 왕건

(2) 나말 구산선문의 최초 성주사(보령시 미산면 성주리, 사적 307호)

통일신라 말기에 이르러 교종의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면서 선종이 크게 유행하자 지방 곳곳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호족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주었다. 최완수는 백제부흥운동 이후 오랫동안 반신라적 성향이 강했던 내포지역의 지방 세력들은 통일신라시대에 청해진 장보고(張保臯, ?~846) 세력과 손을 맞잡고 활동하게 되며, 새로운 사조인 선종사상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성주사는 백제 오합사의 후신으로 신라 낭혜화상(朗惠和尚) 무염(無染: 800~888)은 48세 되던 해인 신라 문성왕 9년(847) 남포 승엄산에 성주사를 짓고 신라 9산선문 중 최초의 선문을 개창하였다. 무염은 이를 근거로 2천 여 문도를 양성하였다. 백제 오합사에서 출발한 이 지역은 신라 통합 직후 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629~694)에게 봉토로 주어진 후 그 일족에

55) 윤용혁, 「나말여초 홍주의 등장과 운주성주 궁준」, 위의 책, pp.159

56) 고려 초 운주가 홍주로 바뀐 시기를 1012년(현종 9)으로 보기도 한다. 이 해 전국의 按撫使가 폐지되는 등 여러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홍주를 主縣으로 하는 주속체제가 확립되는 것도 이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김갑동, 「고려 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사학연구』 74, 2004. pp.134~135)

의하여 계승되었다. 821년 웅천주도독 김현창의 난도 같은 무열왕계라는 이 지역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9세기 중반 역시 무열왕계의 왕족 출신인 낭혜화상이 초빙되어 성주산문이 개창되는 것이다⁵⁷⁾.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송암산 성주사 사적』에 의하면 성주사의 규모는 불전 80칸, 행랑 800여 칸 등 거의 천여 칸에 이르렀으며, 당시 무염의 문하가 2,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과거 이 절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지금 절터에는 무염국사의 부도비인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 8호)가 남아있다. 이 비는 신라의 명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이 글을 지었으며, 그의 사촌 동생인 崔仁滾이 글씨를 썼다. 이 부도비는 그 크기와 조각기법에서 통일신라 시기의 부도비 중 최고 수준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 시기에 건립한 성주사지 5층석탑(보물 19호), 성주사지 중앙3층석탑(보물 20호), 성주사지 서3층석탑(보물 47호), 성주사지 동3층석탑(도유형문화재 20호) 등이 경내에 남아 있다.

(3) 광종의 국사 탄문의 보원사지(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사적 361호)

또한 내포지역의 불교세력과 고려 왕실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는 내포지역의 라말려초 불교문화유적으로 우리는 보원사지를 주목할 수 있다. 삼국통일이후 신라 중앙정부는 백제 부흥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내포지역에 깊게 남아있는 반신라적 감정들을 수습하기 위해 서산 마애삼존불의 본사로 알려진 보원사를 화엄 종찰로 크게 중창하고, 라말려초에는 법인국사 탄문의 도량으로 삼아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왕권의 강력함을 내세우며 대중의 교화에 앞장선다.

백제시대의 금동보살입상이 출토되어 그 창건시기를 백제시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보원사지(사적 316호)에는 웅장한 오층석탑(보물 제104호)과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석조(보물 제102호), 그리고 파손되어 조각만 남아 있는 불교 조각편들이 이 사찰의 규모와 융성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보물 제105호와 106호로 지정된 법인국사 보승탑과 법인국사 보승탑비는 새로

57) 오합사와 김인문의 관련성은 최치원이 쓴 「성주사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의 비문 중 「(무염대사가)이에 북쪽으로 떠나 헤아리고 눈여겨보아 終生토록 몸 붙일 곳을 골랐다. 때마침 왕자 김흔이 벼슬을 그만두고 山中宰相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 바라는 바가 합치되었다. 왕자 혼이 이르기를, 大師와 저는 함께 龍樹 乙粲을 조상으로 하는데……웅천주 서남쪽 모퉁이에 한 절이 있는데, 이는 나의 선조이신 臨海公(김인문)께서 봉지로 받은 곳입니다.」라고 한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운 시대에 새로운 사상을 폈던 인물 탄문(坦文, 900~975)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민국사 보승탑비에 따르면 개경에 머무르던 탄문이 이 곳 보원사에 돌아오자 그를 맞이하는 승려가 1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그들이 먹는 쌀의 양이 하도 많아 쌀뜨물이 내를 하얗게 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냇물을 떠다 숯농으로 끓여 마셔 일대 별판의 이름이 숯농별이 됐다는 전설로 미루어보아 당시 보원사의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다. 탄문은 926년 태조 왕건의 왕후 유씨(劉氏)가 임신하자 후에 광종이 된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를 요청할 만큼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승려이었다. 이 후 혜종, 정종 두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으며, 광종 즉위 후에는 국사로 임명되어 이 지역의 불교세력이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중앙 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대규모 집단을 형성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내포의 정신사, 지성사 - 실천과 다양성

내포의 지성사는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수용할 줄 아는 진취성에 그 특징이 엿보인다. 특히 다양하게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과 실천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고려 말 조선 초 성리학 도입기에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白頤正(1260~1340), 李穡(1328~1396) 등이 내포지역 출신이었고, 수도 없이 많은 의병과 충심들이 배출된 곳도 내포지역이었다.

그런가하면 조선후기 내포지역에서는 우선 실사구시의 실학적 분위기가 그 첫째이고, 천주교의 전래와 확산에 내포지역이 중심지가 되는 것이 둘째이며, 한말척사위정의 의병운동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 셋째이며, 그런가하면 동학의 움직임이 크게 발현된 것, 또 한말개화운동과 항일민족운동의 중요 인물들이 배출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냥 주장을 하려고 주섬주섬 끼워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아주 명쾌하고 강한 선으로 우리 지역에 자취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⁵⁸⁾.

(1) 조선후기 호락논쟁과 내포

그 후 호서유학사에서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우암 송시열의 적전이었던 權尙夏의 문하에서 이른바 ‘人物性同異論辯’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즉 人物性 異論을 주장한 南塘 韓元震

58) 이해준, 위의 책, pp.16~20

(1682-1751)과 同論을 주장한 巍巖 李柬(1677-1727)이 모두 호서지역이 배출한 유학자였던 것이다.

※ 송시열 - 권상하 - 남당 한원진, 외암 이간
인물성 이론(호론) : 의리, 북벌, 척사, 의병
인물성 동론(낙론) : 복학, 개화, 애국계몽

한국유학사에서 16세기는 성리학의 전성기로서 사단칠정, 인심도심, 본연지성기질지성 등 인간의 심성문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天人의 관계에서 나아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즉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나 다르냐 하는 소위 人物性 同異論爭이 되었다.

이는 일종의 보편, 특수 논쟁으로 程, 朱의 理一分殊나 율곡의 理通氣局에 근거하고 있었다. 人性과 物性을 놓고 理一分殊나 理通氣局의 논리를 적용했을 때 생기는 동일성과 차이성의 문제였던 것이다. 南塘 韓元震과 巍巖 李柬의 논쟁 초점은 本然之性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있었다. 李柬은 이 본연지성을 理一之理로 보아 人, 物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韓元震은 본연지성을 理氣妙合으로서의 氣質之性으로 보아 人, 物의 차별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성리학계 최고의 문제 거리였을 뿐 아니라 20세기 초 조선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계속된 한국 성리학계 최고의 이론적 관심사였다. 이러한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을 통해 조선조 성리학이 보다 정밀하게 심화된 것은 송대 성리학이 남긴 과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한편 내포의 지성사를 거론할 때 실학의 발달도 주목할 수 있다. 내포지역에는 성호 이익의 학통을 이은 실학자들이 많이 살았다. 예컨대 여주이씨 이병휴, 이용휴, 이삼환, 이철환, 이가환 등이 그들이다. 이병휴는 성호 이익의 조카이며, 그 문하에서 천주교 신봉자였던 권철신과 권일신이 배출되고, 덕산 출신으로 음운학과 병학, 농학 등에 두루 통달했던 이용휴의 학문은 이가환에게 전수되었다. 이가환은 정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학자관료로 체제공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으나, 천주교도로 몰려 신유사옥(1801년) 때 처형된다. 한편 예산 출신의 추사 김정희도 고증학으로 이름을 날린 서예가이자 실학자였다.

(2) 내포 천주교

내포는 천주교 초기 전파의 못자리, 상징지역이다. 내포 천주교와 순교사도 이 지역문화의 큰 특징으로 부각된다.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등 한국천주교의 최초 성직자들의 고향이 당진과 청양, 즉 내포일대라는 점, 그리고 내포지역 교회가 서울교회와 더불어 충청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강원도 태백산 산간지방에까지 천주교 전파의 배후지 구실을 하였다는 점은 이곳 내포가 당시 한국 천주교 전파에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

내포지방은 지방민의 자진구도(自進求道)에 의하여,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방이다. 그 중심조직은 여사울(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의 한 마을) 사람 이존창(李存昌)에 의해 1784년 조직된 여사울 신앙공동체였다. 이에 의하여 내포지역에는 천주교 신앙이 급속 전파되었다⁵⁹⁾.

내포지방은 한국 천주교회사 초기 한국인 성직자를 키워낸 신앙의 못자리였다. 최초의 한국인 신부로서 1845년 상해에서 서품된 김대건 신부는 당진 출신이었고, 두 번째로 1849년에 서품된 최양업 신부의 고향은 청양이었다.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의 첫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내포지방에는 과거 참혹했던 순교의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있다. 그 중 해미읍성은 다른 어떤 순교지보다도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해미에서 처형된 천주교인들의 수는 헤아릴 길이 없다.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5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등 조정이 천주교탄압을 공식화 할 때마다 해미 진영은 끊임없이 내포지역 천주교인들을 처형하는 장소였다. 다음은 내포지역의 대표적인 천주교 관련 유적이다⁶⁰⁾.

- 서산 해미 진영, 줄무덤(서산시 음암면 상흥리)
- 청양 다락골 줄무덤(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 보령 오천면 갈매못 순교지
- 당진 송산리 김대건 신부 출생지, 합덕 성당
- 아산 공세리 성당
- 예산 이존창 유적, 예산성당

59) 김수태, 「조선 후기 내포지역 天主教의 확산과 이존창」, 『지방사와 지방문화』 7, 역사문화학회, 2004

60) 차기진, 「해미 지역의 천주교와 순교사 연구」, 『교회사학』 4, 수원교회사연구소, 2007.

(3) 한말의 홍주의병

우리 역사상 험난한 왜침을 겪을 때마다 두드러졌던 의병의 활동은 선비들의 애국충절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산 자료들이다. 충남의 한말 의병활동을 대표하는 동시에 한국 의병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것이 바로 홍주의병이다.

홍주의병의 첫 봉기는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두 번째 봉기는 을사조약을 계기로 일어났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김복한과 이설은 지방 유생들과 함께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것이 1차 홍주의병(을미의병)이다. 을미의병이 실패하고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김복한과 이설은 을사5적의 참수를 요구하며 상소를 올렸다. 민중식을 의병장으로 모시고 안병찬 등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홍주성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2차 홍주의병(병오의병)이다.

홍주의병은 격렬한 전투를 치르면서 홍주성을 점령하였지만, 일본군의 공격으로 1000여명이 사망하며 패퇴하고 말았다. 홍주의병의 생존자들은 후에도 항일비밀단체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수많은 옥고와 패배에도 굴하지 않은 의병정신”으로 차라리 머리 없는 귀신이 될지언정 외적의 침입으로 조국과 고향을 지키고자 하였다. 홍주의병은 한말 의병사에서 대표적인 의병항쟁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⁶¹⁾.

홍주의병을 주도했던 유생들은 南塘 韓元震(1682-1751)의 척사론에 영향을 받았다. 김복한, 이설, 임한주 이외에도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예산의 김봉구, 서산의 김한구 등이 남당의 추종자였다. 한원진은 홍주의병과는 1세기 이상 차이가 나는 시대의 인물임에도 그의 영향력은 어떻게 홍주의병에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남당 한원진은 조선 후기 성리학의 일파로 湖論의 주창자이다. 호론은 사람과 사물의 성품이 다르고, 유교와 불교, 사람과 동물, 中華와 夷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는 이단론으로 유명하다. 그의 이단론은 중화와 이적의 차이를 강조하여 한말 위정척사론에 영향을 주었다. 이단론은 주로 호서 지역에 기반을 둔 학자들을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이렇듯 한원진의 사상을 이어갔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의병 다수는 이러한 남당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척사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61) 「근대의 유교학맥과 민족운동」,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김상기, 「한말 일제하 홍성지역 유림의 형성과 항일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3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이처럼 내포의 의병과 천주교, 의병과 동학, 동학과 천주교는 서로 방향이 다른 문화주체로서 이들이 모두 내포지역에서 동일시기에 경쟁하듯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그뿐이 아니다. 한말의 선각자들을 보아도 한용운, 김좌진, 윤봉길, 이상재 등등 실로 다양한 노선의 인물들을 두루 배출한 곳이 바로 내포지역이었다.

※ 내포 지성사와 저명인물들	
이지함(1517~1578)	이산해(1539~1609)
이 간(1677~1727)	한원진(1682~1751)
이병휴(1710~1777)	채제공(1720~1799)
이존창(1752~1801)	최양업(토마스, 1821~1861)
최익현(1833~1906)	김복한(1860~ ?)
한용운(1879~1944)	심 훈(1901~1936)
	윤봉길(1908~1932)

(4) 내포의 민속문화와 생활문화

해안을 끼고 있는 내포지역에는 해양 민속자료가 중요한 자원이다. 안면도 황도 봉기풍어제는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도 무형문화재 12호)의 사례이지만, 조사 정리되어야 할 많은 해양문화자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서산 박첨지 놀이, 저산팔읍 길쌈놀이, 결성 농악 등등 하나하나로 알려진 이들 민속문화유산들을 내포의 지역 특성으로 특화시키면 귀중한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한편 지역 축제로 보령 머드축제, 태안 자염축제 등도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내포 지방의 보부상은 이 지역의 유리한 조운로와 해로를 이용한 상인집단으로 아주 특별한 조직과 성격을 지니며 발달하였다. 내포지역에는 이들 보부상 조직으로 禮德商務社(예산, 덕산, 면천, 당진)와 元洪州六郡商務社(홍주, 광천, 보령, 청양, 대흥, 결성), 葦産八邑商務社(부여, 홍산, 남포, 비인, 서천, 한산, 임천)가 있었고 그들의 유품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3. 21C 도청이전시대의 시사점

내포지역의 독특한 문화사는 ‘새벽문화’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역사상에서 몇 가지 특이하고 커다란 궤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우선 내포의 지성사적 전통은 금강유역의 유교문화와 그 경향이 약간 다르다. 내포문화는 ‘열린 출구, 관문’으로서 새로운 변화에 매우 빠르게 대처한 개방과 선진, 다양성을 보인다.

- 대중국해로와 당진, 한나루
- 서산마애불로 상징되는 내포 백제불교
- 라말 선종의 유입과 성주사지
- 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
- 조선후기 실학과 호락논쟁
- 천주교의 전파
- 충절의병, 동학, 애국계몽, 항일독립운동

백제시대의 대중국교류나, 라말려초의 내포 불교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조선후기 실학의 발전, 천주교의 이른 전파와 교세확장, 한말 홍주의병으로 대표되는 의병활동, 동학농민군의 활동도 만만치 않은 곳이 내포지역이었다. 그런가하면 개화·민족운동의 대표적 인물들이 내포출신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윤봉길, 김좌진, 한용운, 이상재, 이남규 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성향을 약간 달리하기는 하지만 해안과 도서지역에 남아 전하는 갯벌 민속문화의 존재라든가, 저산팔읍을 휘돌며 상권을 장악했고 때로는 서울을 넘나들면서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던 보부상단의 거점도 이곳이었다.

〈표 5-1〉 내포의 지리·역사문화적 특징

내포 > 개방과 선진, 다양함 그리고 민중문화가 있는 곳	
① 서해로 열린 문화 특구, 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선진 출구, 인후부(서해와 포구) - 중국과의 첨단 교류지역 ; 당진, 한나루 - 내포지방의 백제마애불상 : 태안 마애삼존불, 서산 마애삼존불, 예산 사면석불 - 수덕사, 성주사지, 보원사지 - 러말선초 성리학 수용 : 白頤正, 李穀 · 李穡 부자 - 천주교의 수용과 내포교회의 전통(김대건, 최양업 신부 등) 	
②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부흥운동의 거점 ; 임존성 - (주류성 설) - 내포 행정의 중심지였던 홍주읍성과 호서전영 - 조운로와 조창 : 안면곶, 공세곶, 안흥진, 소근진, 굴포운하 - 충청도의 관방(兵營, 水營) 호서좌영, 충청수영성 (수영성, 서천포(장암진), 마량진, 안흥진(첨), 소근진(첨), 평신진, 당진진) - 솔뫼성지, 갈매못 성지 등 천주교 순교성지, 남연군 묘 	
③ 한국사의 새벽을 연 내포지성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락논쟁과 실학 - 의병과 동학, 내포 천주교 - 한말의병, 애국계몽, 항일독립운동 - 충절 지성인맥의 보고 	
④ 내포의 민속문화와 생활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부보상의 전통(예덕 · 원흥주육군 · 저산팔읍상무사) - 중고제(내포제) 판소리와 내포제 가락(내포제 시조, 결성농요 등) - 안면도 황도 붕기퐁어제와 서해 어로 민속 -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서산 박첨지 놀이 - 저산팔읍 길쌈놀이 등 	

내포지역 내에서의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사실과 특징을 통해 21세기 충남도정에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의 계승과 발현이 중요하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모방이 아닌 그 의미와 가치의 전승과 계승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포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요소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①개방성, ②다양성, ③자립

성이다.

〈표 5-2〉 내포의 지리·역사문화적 특징과 정체성 요소

내포의 지리·역사문화적 특징	내포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요소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 : 고대 불교문화의 전래, 안흥항과 당진항의 발달 등 → 한편으로는 바닷길을 통한	항, 포구의 발달 (긍정적 측면의 발전)	개방성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잦은 외국세력의 침투 : 여말선초 왜구의 출몰, 조선후기 이양선의 출몰 등 → 다른 한편으로는 바닷길을 통한 외침에 저항하는 강고한 대응	관방시설의 구축 (부정적 측면의 극복)	
조선후기 개방적 분위기 : 화담학, 퇴계학, 율곡학의 공존 / 인물성동이논쟁 / 실학의 발달 / 의병과 동학 / 천주교 등	다양한 문화의 공존 (긍정적 측면의 계승)	다양성
다양한 이념의 수용과 미래에 대한 진취적 모색 : 성리학적 논쟁 / 천주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	문화적 배타 (긍정적 측면의 교훈)	
개간과 간척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자립 : 갯벌과 간척, 어림의 이익과 상업의 발달, 농업의 발달 등	스스로의 삶의 개척 (긍정적 측면의 계승)	자립성
독특한 생활민속문화 : 내포제 시조와 결성 농악, 기지시 줄다리기, 황도 봉기풍어제와 서해 어로 민속 등		

첫 번째 내포 정체성은 개방성에 있다. 내포지역은 서해와 접하며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외국문물 적극적 수용의 창구역할을 하였으며, 이곳을 통해 고대 불교문화가 전래되었고 항·포구가 발달하게 된다. 외부와의 교류가 빈번하였고 그 속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며 내포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내포 정체성은 다양성에 있다.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학문이 수용되었고 문화의 공존이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후기의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화담학, 퇴계학, 율곡학이 공존하였으며, 인물성동이논쟁과 실학이 발달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의병과 동학, 천주교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내포 정체성은 자립성에 있다. 서해안 지역에 개간과 간척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자립적 특징이 민속에 나타나며 이는 갯벌과 간척, 어림의 이익과 상업의 발달, 농업의 발달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독특한 생활민속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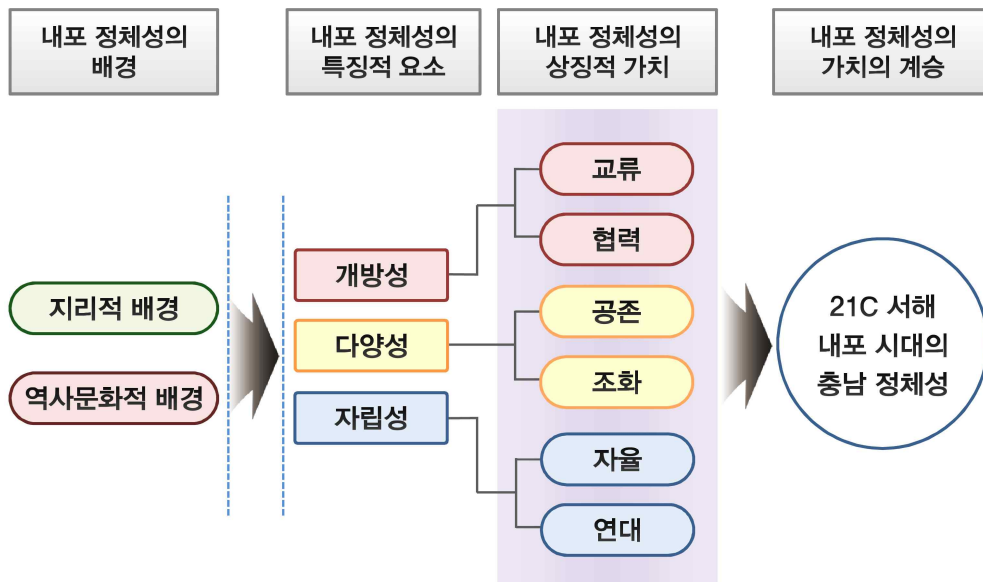
데 그것은 보부상의 전통과 내포제 시조와 결성 농악, 기지시 줄다리기, 황도 붕기풍어제와 서해 어로 민속 등이다.

〈표 5-3〉 내포 정체성 특징적 요소와 가치

① 선진문물의 <u>적극적 수용</u> 과 <u>개방적 사고</u> ⇒ 교류와 협력
② 서로 다른 <u>다양한 문화</u> ⇒ 공존과 조화
③ 개간과 간척을 통해 스스로 삶을 <u>개척하는 자립</u> ⇒ 자율과 연대

이러한 내포 정체성의 특징적 요소와 가치는 21세기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문명창조에 부합될 뿐 아니라 내포시대 충남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림 5-3〉 내포 정체성 요소와 21세기 내포시대 충남 정체성의 계승



〈표 5-4〉 내포 정체성의 특징요소, 상징가치와 의미

특징 요소	상징가치	상징가치의 의미	비고
개방성	교 류 (Exchange)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	사전적 의미
		바닷길을 통한 인적 물적 교환	내포적 가치
	협 력 (Cooperation)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사전적 의미
		외침에 저항하는 강고한 결속력	내포적 가치
다양성	공 존 (Coexistence)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사전적 의미
		외부 선진문물과 기존 문화전통의 융합	내포적 가치
	조 화 (Harmony)	서로 잘 어울림	사전적 의미
		외부 선진문물의 토착화 (예 : 내포불교의 전통-백제의 미소)	내포적 가치
자립성	자 율 (Autonomy)	스스로의 의지로 객관적인 법칙을 세워 이에 따름	사전적 의미
		자연환경에 대한 적극적 활용	내포적 가치
	연 대 (Solidarity)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사전적 의미
		외부세력에 대한 유대 강화 및 저항 (예 : 홍주의병, 내포동학 등)	내포적 가치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및 연구함의

본 연구는 지리·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충청남도 내포지역에 대한 정체성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리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내포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내포의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내포와 정체성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통해, 내포란 본래 일반명사로서의 뜻이 있지만, 한편으로 충남의 서북부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가 진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적으로 내포란 ‘바다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충청남도의 서부지역’으로 개념을 도출하였다. 정체성이란 우리 인간환경 속에 존재하는 개체 또는 집단이 참된 본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의미하며, 동일성(지속성, 공유성), 특이성(차별성, 고유성, 수월성)을 속성을 가지며, 지역·도시차원에서 정체성을 찾고 정립한다는 의미는 ①지역·도시가 가지고 있는 수월하고 차별화된 특성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②전략을 마련하며 ③실천하겠다는 것을 의미함을 도출하였다.

지리적 측면에서 내포의 영역, 자연지리적, 인문지리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내포의 영역은 가야산 주변의 십여 개 고을(擇里志)-지금의 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전역과 아산시(선장면, 영인면 일대) 및 보령시(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일부 지역을 의미한다. 둘째 자연지리적 특성은 ①차령산지(금북정맥)가 내포지역의 경계 역할을 하며, ②가야산을 중심으로 하천이 분기하며 서해로 유입되며 만(灣)을 형성하고, 차령산지에서 발원하는 무한천과 오서산 및 가야산에서 발원하는 삼교천이 가로지르는 예당평야는 편마암 산지에서 공급되

는 풍부한 영양염을 바탕으로 ③비옥한 토지가 발달하여 한양 사대부들의 근거지가 되는 생산 기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①수로가 중심이었던 조선시대 내포의 포구는 경기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내포는 문화적으로 한성·경기와 연관성이 큰 문화를 형성하였다. 한성사대부의 경제적 근거지였으며 경기도의 성호학파의 영향권에 들었고 한양·경기도와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초기 천주교 전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고, ②방언, 민요, 시조 등 문화요소들이 경기와 호남의 중간 성격을 띠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지리적 측면에서 내포정체성은 중국과 근접성, 한성·경기의 연결성 등으로 개방성과 다양성을 보이며, 문화적 접미지역으로서 문화적인 복합성을 보이고 있다.

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내포의 영역, 역사문화적 인물, 장소, 민속 등을 연구한 결과, 첫째 내포의 영역 시대에 따라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가야산과 삼교천,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범역은 내포 지역의 중심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내포의 역사적 인물로서는 승려, 성리학자, 실학자, 천주교 선교자,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하였다.

유 형	대표적 인물	특 징
① 승려	혜현, 도침, 낭혜, 탄문	고대 불교의 수용
② 성리학자	백이정, 이곡·이색 부자, 이개, 이자, 이지함, 서기, 홍가신, 한원진, 이간 등	초기 성리학 성립과 발전
③ 실학자	성호가학, 김정희	선진문물의 수용
④ 천주교	이존창, 김대건, 최양업 등	천주교 수용의 선구
⑤ 근대 독립운동가	김복한, 이남규, 한용운, 김좌진, 윤봉길, 문종구 등	충절인물
⑥ 기타 명현	복지겸, 박술희, 안견, 이순신, 정순왕후, 이상재 등	

셋째 장소적 명소로서는 서해의 갯벌과 포구, 조운로와 조창, 관방유적, 불교 및 천주교와 관련된 유적지,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유적이 대표적인 장소적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유 형	특 징
① 갯벌과 포구	전통시대 수로교통의 요지, 중국 선진문물 수용의 창구, 해만간척의 역사와 방조제 축조
② 조운로와 조창	전통시대 삼남지역과 왕도의 연결, 중앙재정의 근간, 운하 굴착
③ 관방유적	해안을 통한 외적 침입의 보루, 지방행정의 중심지
④ 종교유적	불교와 천주교, 마애삼존불의 전통, 가야산의 불교유적, 천주교 순교지
⑤ 역사적 인물 유적	생가와 생가지, 활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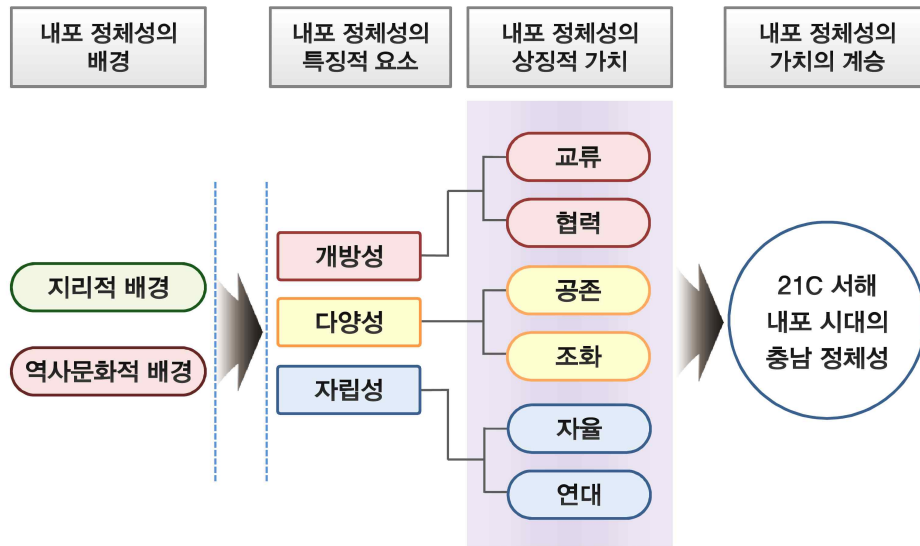
넷째 민속적 특징은 ① 자수성가를 요구했던 분가와 상속의 관행, ② 여러 고을을 연합하는 상인조직, 내포 보부상의 전통, ③ 주민들의 심성이 반영된 내포제 등이 대표적인 요소로 도출되었다.

유 형	관할 지역	비고
① 예덕상무사	예산과 덕산 및 면천, 당진	
② 원흥주육군상무사	홍성·광천·보령·청양·대흥·결성 등 6개 군현	
③ 저산팔읍상무사	정산·부여·홍산·임천·한산·서천·비인·남포 등 8개 군현	

내포의 지리적, 역사문화적 특징요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방과 선진, 다양함 그리고 민중문화가 있는 곳으로서 ① 서해로 열린 문화 특구, ②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 ③ 한국사의 새벽을 연 내포지성사, ④내포의 독특한 민속과 생활문화가 온전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포지역 내에서의 역사문화적인 사실과 특징을 바탕으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의 계승과 발현이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는 ①개방성, ②다양성, ③자립성을 도출하였으며, 상징적 가치로서는 교류와 협력, 공존과 조화, 자율과 연대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6-1〉 내포 정체성 요소와 21세기 내포시대 충남 정체성의 계승



이러한 내포 정체성의 특징적 요소와 가치는 21세기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문명창조에 부합될 뿐 아니라 내포시대 충남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포 정체성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백제고도문화권과 함께 내포문화권은 충남을 견인하는 두 바퀴,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포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가치적인 경쟁력을 블루오션적인 측면에서 홍보하고 전략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내포 정체성 제고를 위한 분야는 역사, 문화, 경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상이 있으며, 종합적, 체계적, 단계적인 접근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정책제안을 건의하고자 한다.

〈표 6-1〉 내포 정체성 제고 분야와 내용 및 대상

분야	내 용
역사	•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의 현장, 유적, 운동
문화	•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경관	•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	•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자료: 계기석·천현숙, 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24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

첫째, 내포 정체성 강화와 내포 정체성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여야 한다. 내포 정체성을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발굴된 내포 정체성 요소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개를 통해 내포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충청도민들이 내포 정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함께 지역별 내용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청남도, 시·군 비전 및 전략계획에 내포 정체성 요소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계획은 트렌드와 수요 등은 반영되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역사문화적 정체성 요소는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내포 정체성에 기반한 상품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정체성의 형성으로 지역 활성화로 연계시켜야 한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소프트적 측면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을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를 시·군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내포 정체성에 대해 도민들은 잘 알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문화의 홍보(『내포의 역사와 문화』 기획 편찬) • 내포 정체성에 대한 교육, 브랜드화, 홍보(도 내, 도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자료(관광안내판 등)의 재구성 - 내포의 지리, 역사적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 브랜드화 추진 예) 아이콘 제작 및 보급 활용 - 도로표지판, 공공시설 등에 활용, 상징물 제작 - 내포지리, 역사 답사 자료 제작 보급 - 내포지역의 특징을 찾아내고 알리는 대회 개최 예) 아름다운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 내포 대회

② 내포 정체성의 가치를 정책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법정계획, 중장기 비전계획 예) 도 종합계획, 서해안 비전, 금강비전 등 • 시·군 중장기 계획 예) 비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분야별 종합계획(도시, 경관, 문화관광, 산업, 환경 등)

③ 내포 정체성 관련 문화·관광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문화권 사업과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관광프로그램 사업 계획 및 추진 - (포구)체험 관광코스 개발 및 장소 복원 예) 구만포-아산만 • 지역별·시군별 주제 특화개발 및 연계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예) 연합 특산물 상가 조성-젓갈(어리굴젓, 새우젓), 한우 등 주말농장: 신도시 주변 공간을 확보 보급 도농연계: 한우, 계란, 오리쌀 등 특산물을 도농 연계로 생산·판매하는 체계

둘째, 내포 정체성을 계승하는 물리적인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충남의 정체성 정립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포 정체성은 과거적 속성이 많으나,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가치는 현재와 미래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인 정체성은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계승되고 창조적으로 발현될 때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포 정체성의 상징가치인 교류와 협력, 공존과 조화, 자율과 연대라는 가치는 창조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활성화로 연계하는 것은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고 형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포신도시 구성에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도입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사업으로서 충청남도 내, 외 기관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교류센터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 시·군에 내포 정체성에 대한 상징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적 시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존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문화센터 조성, 자율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정 시스템 구축, 연대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도민참여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표 6-2〉 내포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예시)

특징요소	상징가치	상징가치에 대한 구현 사업
개방성	교 류 (Exchange)	①대외 교류 센터, 컨벤션 센터, 문화원 등 ②도시 내, 도시 외 지역과 유기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확보
	협 력 (Cooperation)	①도 내, 도 외 내포 협력 센터 운영 (상생협력, 갈등관리 등)
다양성	공 존 (Coexistence)	①다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
	조 화 (Harmony)	①다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조화로운 내포신도시 경관 조성
자립성	자 율 (Autonomy)	①주민참여형 도정 시스템 구축
	연 대 (Solidarity)	①도민참여 정책 거버넌스 구축

셋째, 내포 정체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원 발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는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되었다. 저변에 흐르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체험하는 많은 요소들은 발굴이 절실하다. 그리고 관련자료의 고증과 의미 등에 대한 조사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내포지역 학술기초조사 강화(원형콘텐츠 확보), ② 내포지역 정체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 ③ 백제문화와 내포문화의 공조, 상생방안 강구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내포 정체성 관련 학술기초 조사 및 콘텐츠 개발 분야			
분야	학술연구	콘텐츠 개발	공조방안
• 내포 지리, 역사, 정신사	■	■	
• 내포 불교문화, 보부상, 내포의 천주교와 성지	■	■	
• 내포 민속예술, 민속문화	■	■	
• 내포 의병과 항일운동, 동학	■	■	
• 내포 음성	■	■	
• 내포와 백제			■

참고문헌

□ 고문헌

「고려사」
「대동여지도」
「대동여지전도」
「대한지지」
「동국문헌비고」
「사마방목」
「사연고」
「임원십육지」
「조선왕조실록」
「택리지」
「호구총수」
「호서읍지」

□ 연구보고서

건설교통부국립지리원(2003), 한국지리지 총청도편

구동희·박영민(譯)(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of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한울.

김대길(1997), 조선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김정환 엮음(2012), 『내포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당진시·내포교회사연구소

김추윤(1995), 『삼교천의 역사문화』, 당진문화원

노도양(1997) 「내포문화권의 환기, 『내포문화정보』 창간호, 내포문화연구원

도수희(1987), “충청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9, 국어연구소, pp. 88-101.
 배동순(2000),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20호 結城農謠, 홍성군·결성농요보존회.
 서영숙(2002), 우리민요의 세계, 역락.
 예산문화원(1994), 內浦制時調正樂譜.
 오석민(1999),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오석민(2005), 「내포문화권 개발의 역사문화적 의의」, 『충남지역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윤규상(2000), 이땅에 남은 마지막 보부상 禮德商務社, 금오인쇄사.
 윤용혁(2009), 「충남에 있어서 내포문화의 위상」, 『내포문화포럼 준비세미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9.
 이규원(199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 예인 백사람, 현암사.
 이성무(2002), 「내포지역의 지성사」, 『열린충남』 18, 충남발전연구원
 이성무(2002), 「내포지역의 지성사」, 『열린충남』, 충남발전연구원
 이소라(1990), 한국의 농요 4, 현암사.
 이익성(역)(1992), 택리지(이중환), 을유문화사.
 이해준(2006), 『충남의 역사와 정신』, 충남역사문화원,
 이해준(2009), 『충남의 문화유산』, 충남역사문화원, 2009
 인권환·성낙수·김연호(2000), 충남북부지역의 전통언어와 문학, 백산서당.
 임동권(2001), 「내포지역의 민속과 삶」, 『내포문화의 재조명』, 충남발전연구원
 임동권·정형호·임장혁(2006), 청양의 시장민속, 청양문화원.
 청양신문(2001.5.20)
 최완수(2001), 「내포지역의 불교문화」, 『내포문화의 재조명』, 충남발전연구원
 최완수(2002), 「내포지역의 불교」, 『열린충남』 18,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2004),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충청남도(2007),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연구』
 충청남도(2007),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한국자원연구소(1996), 대전 지질 도폭 설명서, 건설교통부.
 홍석표(1999), 「합덕방죽에 대한 종합적 고찰」, 『당진향토사의 조명』

□ 학술자료

- 곽호제(2004) “조선시대~일제시대 내포지역 장시의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7(2), 역사문화학회, pp. 101-147.
- 김지영(2004), “틀뢰즈의 타자 이론,” 비평과 이론, 9(1), 한국비평이론학회, pp. 49-80.
- 김형호(1990),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레비스트로쓰, 라캉, 푸코, 알튀세르에 관한 연구-, 인간사랑.
- 양석원(2001), “욕망의 주체와 윤리적 행위-라캉과 지젝의 주체이론,” 안과 밖, 10, 영미문학연구회, pp. 269-294.
- 유원기(2004), “동일성(Identity)의 기준에 대한 고찰,” 인간연구, 6,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pp. 126-149.
- 이성백(2002), “동일성의 긍정성과 부정성 -데리다, 아도르노, 헤겔, 맑스의 동일성 개념 비교-,” 철학연구, 56, pp. 61-77.
- 이원순(2000), 「내포 천주교회사의 의의」, 『백제문화』 제29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 이해준(2009), 「한국역사상의 충남문화와 정신」 『충청학과 충청문화』 8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이현창(1994), “조선후기 충청도지방의 장시망과 그 변동,” 경제사학, 18(1), 경제사학회, pp. 1-56.
- 이현재(2005), “‘정체성(Identity)’ 개념 분석 : 자율적 주체를 위한 시론,” 철학 연구, 71(1), pp. 263-292.
- 임선빈(2000), 「조선후기 내포지방의 역사지리적 성격 : 천주교전래와 관련하여」, 『백제문화』 29,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 임선빈(2003), 「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역사 · 문화적 성격」, 『문화역사지리』 15-2,
- 임선빈(2005), 「조선후기 내포지역의 통치구조와 외관 : 홍주목을 중심으로」, 『호서사학』 40
- 임선빈(2006), 「조선후기 성호가학의 내포지역 확산배경」, 『성호학보』 3
- 임선빈(2011),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축성과 기능변천 : 충청병영성에서 호서좌영으로」, 『역사와담론』 58
- 임선빈(2011), 「추사고택과 추사의 생애」, 『옛 사람의 학문과 생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임선빈(2013), 「내포지역 성호가학의 정착과 발전」, 『성호학보』 14.
- 최영준(1999), 「19세기 내포지방의 천주교 확산」, 『대한지리학회지』 34-4
- 최학근(1976), “南部方言群과 北部方言群과의 사이에 介在하는 等語地帶 設定을 爲한 方言調査研究,” 語學研究, 12(2),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pp. 209-240.
- 한상권(1981), “18세기말~19세기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 연구-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pp. 179-237.

□ 해외문헌

- Allen, J., Massey, D., and Cochrane, A.(1998), Rethinking the region, London: Routledge.
- Amdam, J(2000), Confidence building in local planning and development. Some experience from Norway, *European Planning Studies*, 8(5), 581-600.
- Amdam, J(2002), Sectoral versus territorial regional planning, *European planning studies*, 10(1), 99-111.
- Anderson, K., Domosh, M., Pile, S., Thrift, N.(2003),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London: Sage.
- Baldwin, E.(2004),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Harlow&New York : Pearson/ Prentice Hall.
- Bauman, Z.(1996), From Pilgrim to Tourist-or a Short History of Identity, Hall, S., Du Gay, P.(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pp. 18-26.
- Bell, V.(1999), Performativity and belonging, *Theory, culture and society*, 16(2), pp. 1-10.
- Bernstein, M.(1997) Celebration and suppression: the strategic uses of identity by the lesbian and gay mov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3), pp. 531-561.
- Bhabha, H.(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Calhoun, C.(eds)(1994),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 Entrikin, J, N.(1994), Place and reg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2), pp. 227-233.
- Giddens, A.(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Hall, S.(1993), Minimal selves , Gray, A., McGuigan, J., *Studying culture*, New York : Edward Arnold, pp. 134-138.
- Hall, S.(1996), Introduction : Who needs identity?, Hall, S., Du Gay, P.(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pp. 1-17.
- Keating, M.(2001), Rethinking the region, culture,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atalonia and Galicia,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8(2), pp. 217-234.
- Knox, D.(2001), Doing the Doric: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language and culture in the north-east of Scotland,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2(3), pp. 315-331.
- Massey, D.(1994), *Space, place, and gender*, Cambridge :Polity Press.
- McSweeney, B.(1999), *Security, identity, and interests :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ysterman, D.(2004), Self-concept and Identity, Brewer, M., Hewstone, M.(eds), Self and social identity, Oxford: Blackwell, pp. 5-24.

Paasi, A.(1991), Deconstructing region : notes on the scales of spatial lif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pp. 239-256.

Paasi, A.(2003), Region and place: regional identity in ques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pp. 475-485.

Raagmaa, G.(2002), Regional identit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European planning studies, 10(1), pp. 55-76.

Taylor G., Spencer, S.(eds)(2004), Social Identities : Multidisciplinary Approach, Oxon :Routledge.